

경제 정책 하면

나라경제

2008 January
nara.kdi.re.kr

2008년 한국경제 전망
최저 4.1%
최고 5.2% 성장 예측

사물을 배운다
커피믹스
경제학

경제뉴스 행간읽기
“당신은 빛 선호형인가?
빛 회피형인가?”

특별기획

20대, 희망의 나침반을 찾아라




특별기획 20대 희망의 나침반을 찾아라

경제정책연구원(KDI) | 2008년 1월호 | 1227-8033




ISSN 1227-8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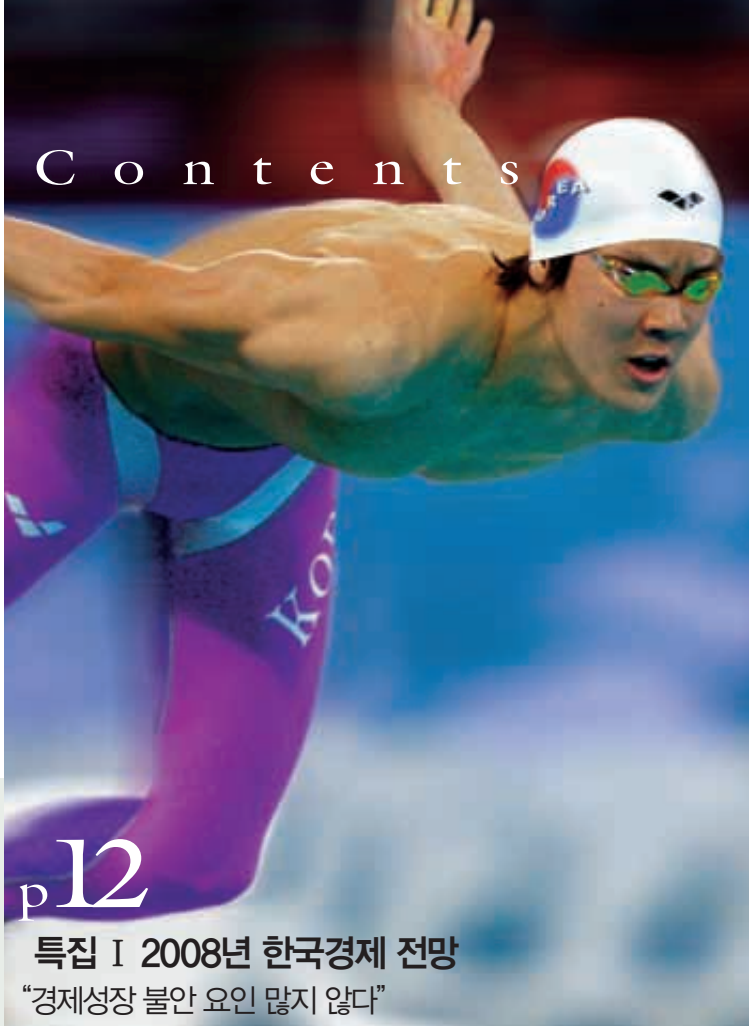
우리 가족은
칫솔 통에서만 만납니다!

아빠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는 집안 일을 이유로.....
동생은 고3이라는 특혜(?)로.....
아침마다 북적이지만,
오늘도 제각각 따로따로.
말 한마디 나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우리 가족은 오직 칫솔 통에서만 모입니다.
오늘은 가족모두 저녁도 함께하고
상쾌한 양치질만큼 개운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빠는 어깨 짝악! 엄마는 웃음 활짝!
힘들수록 가족이 힘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C o n t e n t s



p12

특집 I 2008년 한국경제 전망

“경제성장 불안 요인 많지 않다”

올해 5%?

- 14 5% 내외 성장률 보일 것
성장동력 확충, 통화정책 신뢰성 유지, 경제시스템 효율화해야 현정택 KDI 원장
- 16 소비심리 회복, 내수 경기 살린다
설비투자·민간소비 회복세 지속 김중석 한국경제연구원장
- 18 질풍지경초의 시기
인적 자원 확충 교육개혁 새로운 10년 준비해야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 20 내수기업 투자 호조 예상
대미 수출의존도 높은 고가소비재 수출 둔화될 수도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 22 최저 4.1% 최고 5.2% 성장
한국은행, S&P, 모건스탠리 등 국내외 경제전문기관 전망
정리 이윤우 나라경제기자

88

좌담

기업이 돈 잘 벌 수 있게 해라

조병구 KDI 연구위원 | 정진하 KISDI 우정경영연구소장 | 임채성 건국대 교수



표지 사진 | 토픽포토

<안내>

「나라경제」는 2008년 1월호부터 신설 칼럼을 선보입니다. 인문학적·철학적 성찰의 장 '천천히 걷기'와 경제계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경제뉴스 행간 읽기'(이지훈 제정임 격월집필), '김두열 박사의 경제사 이야기',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은 문화의 의미를 유쾌하게 전달하는 '김찬호의 문화견문록'입니다. 「나라경제」가 마련한 신설칼럼들이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편집팀 -

28

특집 II 새 정부에 바란다

일자리 늘리고 체감경기 살려달라

- 29 취업걱정 좀 덜어주세요 성은혜 고려대 정책학부 1학년
- 30 우리 문화를 세계에 내다 팔 전략을 유광수 연세대 강사
- 31 체감경기 살려 주머니 두둑하게 김기현 인트로 부장
- 32 시장경제의 공정한 심판관이 되어주길 인종훈 우정상사 대표
- 33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길재 전 경찰공무원

2012 여수 엑스포 집중분석

80

스페인·포르투갈 성공사례 벤치마킹할 계획
이제는 준비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여수세계박람회유치팀장

82

5년전 '모나코의 눈물'이 보약됐다
숨 기쁜 10년간의 긴 여정

김윤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유치팀장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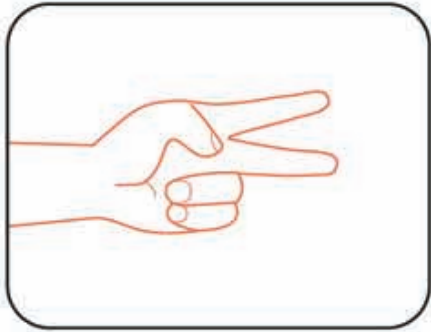
바다와 연안 보호 인류 공동노력
왜 '여수엑스포' 인가?

전형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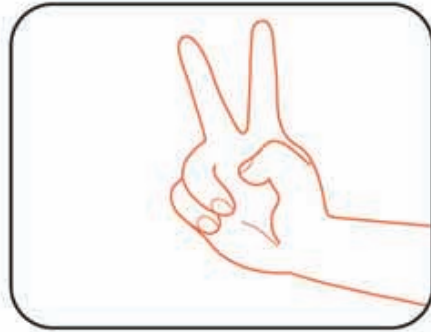
86

도면 통계자료 등 각종 도시계획정보를 전산화
도시계획정보를 한 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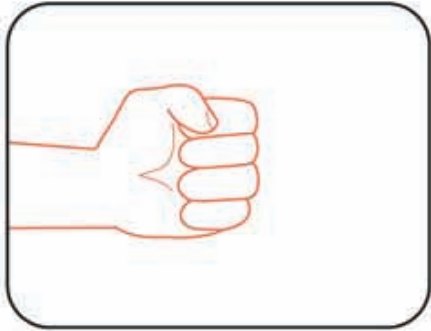
문성요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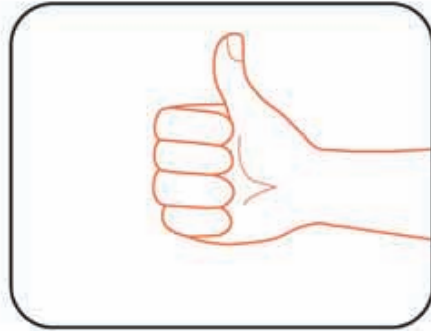
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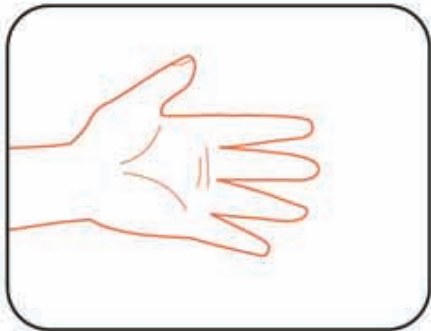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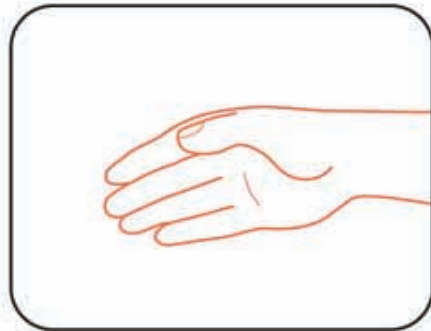
바위



인정



보



화해

조금만 바꾸면~

살다 보면 아무일도 아닌데 상대방으로 인해 상처 받고 얼굴 붉히는 일 많으시죠?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표정과 말투를 조금만 바꿔 보세요! 사회 질서는 당신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학의 삶과 닭의 삶

흐린 겨울 하늘 위로 새들이 무리지어 날아갑니다. 빠르게 솟아올랐다 미끄러지듯 하강하는 군무가 아름답습니다.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하늘을 나는 새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자유로운 비상, 하늘을 향해 활짝 펼친 큰 날개, 고고한 날갯짓, 그 날개를 품어안은 광활한 하늘을 동경하며 삽니다. 얽매임 없이 사는 삶,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며 사는 삶을 꿈꾸기 때문에 새들처럼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들의 삶은 그렇게 자유롭고 고상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크고 깨끗한 날개와 매끈한 몸매를 지닌 학도 갯가나 늪지에서 미꾸라지와 갯지렁이를 잡아먹으며 살거나 땅에 떨어진 씨앗이나 옥수수 낱알을 찾아 허기를 채웁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에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땅위에 마른 갈대를 물어다 둥지를 만들고 거기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아 새끼를 키웁니다.

주위에 학처럼 고아하게 사는 사람의 삶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듣기 좋은 말을 한답시고 저런 학 같은 시인하고 살면 사는 게 다 시가 아니겠냐고 이 말 듣고 속이 불편해진 마누라가 그 자리에서 내색은 못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구시렁거리는데 학 좋아하네, 지가 살아봤냐고, 학은 무슨 학, 닭이다 닭, 닭 중에도 오골계(烏骨鷄)!” (정희성 시인의 시 (시인본색)전문)

정희성 시인은 맑은 분이십니다. 선비정신을 지키며 사는 분이고, 욕심에 얽매어 문학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학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시인의 삶을 지켜본 사모님에게는 학 같은 분으로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학은 무슨 학, 닭이다 닭, 닭 중에도 오골계(烏骨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 학 같은 분도 곁에 있는 이들에게는 닭 같은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지요.

닭은 이미 하늘을 잃어버린 새입니다. 날개는 줄어들고 몸집은 비대해지고 있으며 비상의 꿈도 접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이렇게 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장에서 집단 사육되는 양계장 닭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면 오골계처럼 사는 인생도 그렇게 자학하며 살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당이 있고 어울려 살 동료들이 있으며 산보를 다닐 뉘들이 있다면 오골계처럼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고하기보다는 범속하고, 신선처럼 살기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수도하듯 살기보다는 평안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옷 걸치고 밥 먹는 것, 이것이 인륜이자 물리(物理)이다.” 라고 중국의 사상이 이지는 말합니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나 자연감을 부정하고 하늘의 이치나 치국평천하만을 논하는 것이 야말로 공허한 인생입니다. 욕망에 시달리며 살 필요는 없지만, 욕망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거기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옷 걸치고 밥 먹는 일에 끌려 다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옷 걸치고 밥 먹는 일 자체도 참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며, 밥 한 그릇을 고맙게 생각하며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욕망 절제의 철학’도 훌륭한 삶의 철학이지만 인간이 지닌 욕망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욕망 긍정의 철학’도 우리가 배워야 할 철학입니다.

수신(修身)의 철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는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 안신(安身)의 철학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삶의 철학입니다. 누구나 학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닭처럼 사는 삶도 소중한 삶입니다. 평범해보이는 생 속에 가장 깊은 삶의 철학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학을 고아한 선비로 비유했다.



글 도중환 시인

C o n t e n t s



46 사물을 배운다 coffee mix 커피믹스 경제학

3 [천천히 걷기]
학의 삶과 닭의 삶
도종환 시인

8 [Reader's Letter]

10 [경제뉴스 행간읽기]
"당신은 빛 선호형인가
빛 회피형인가"
이지훈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

23 [그림 속 경제]
그림과 그림 값어치
이미란 아트블루 국제부 전시기획실장

27 [건강하게 삼시다]
우울증과 스트레스,
夜食 부른다
김철규 하늘꽃한의원장

33 [특별기고]
일하는 저소득층에
현금 지원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계실장

40 [권태균의 오지기행]
너와집

44 [이동진과 함께 보는 영화]
혼자 살아낼 수 있기에 슬픈
'색, 계'
이동진 영화평론가

66 [해외시장 리포트]
리비아, 인프라 구축에
팔 걷어붙였다
송선근 KOTRA 트리폴리 무역관장

69 [세미나 이상중계]
직업, 넌 누구니?
윤성인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70 [시골의사 박경철의 부자되기]
거품 낀 큐빅보다
흙 묻은 진주를 찾아라
박경철 경제 칼럼니스트

72 [김두얼 박사의 경제사이야기]
경제성장률 높으면
평균 신장도 크다?
김두얼 KDI 연구위원

74 [김찬호의 문화견문록]
소리의 풍경,
마음의 자화상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76 [부처탐방]
기획예산처 혁신관리팀
공공기관 시어머니?
아니죠, 친정 어머니죠
김의택 기획예산처 혁신관리팀 사무관

92 [아름다운 그 곳]
과천 제비울미술관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96 [정책담당자 칼럼]
아기우는 소리 자주 들리네
김서중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팀장

98 [시평]
'명예·존경·권위'가
회복되는 사회
설광인 KDI 부원장



p53
특별기획

20대, 희망의 나침반을 찾아라

- 54 우리의 청춘 이대로 좋은가
길준범 나라경제 기자
- 56 '한국형 노동모델'로 20대 숨통 튀워라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 58 세대 갈등 속에서 희망은 자란다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60 잃어버린 20대의 목소리를 찾아라
허지웅 GQ KOREA 기자
- 62 결혼? 에이~ 서둘 거 뭐 있나
조윤영 KDI 연구위원
- 64 대한민국 20대는 안정만을 추구하는가
김다혜 연세대 국문과 4학년
- 64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까
김광일 중앙대 일문과 4학년

24 [전직관료 요즘 뭘 하십니까] 김광림 세명대 총장
'벼슬 속도'와 '내공 속도' 서로 맞아야

34 [만남] 복거일 소설가 시사평론가 김서령 나라경제편집장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걸 맡겨라



일회용품, 오늘은 쉽!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회용품의 사용을 쉬는 것-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음만은 뿌듯해질 거예요.
일회용품 줄이기 - 말보다 실천이 먼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Reader's Letter

경제교육에 도움되는 정보 더 많이 소개해주세요

현재도 만족하지만 2008년 <나라경제>는 더욱 다양한 국내 주요 경제지표와 자료 등을 소개해 주길 바랍니다. 경제교육 차원의 내용을 추가한다면 아주 유용한 <나라경제>가 될 것 같다.

강동진 전북 군산시 나운동

남녀노소 편안하게 읽는 경제잡지로 발전 하길

평소 『나라경제』를 즐겨 읽는 애독자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딱딱한 기사들이 많았던 것 같다. 최근에는 부드러운 내용이 많아진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생활의 지혜와 문화 관련 기사, 세상 살아가는 정겨운 이야기, 독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나라경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기홍 경기 시흥시 도창동

부드러운 내용이 많으면 좋겠다

경제정보는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실제 가정경제의 경우 여성이 이끌고 있는 예가 대부분이다. 경제정책정보에 대한 수요는 주부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용의 편의성을 높여주길 바란다. 주부들이 경제에 강해야 가계경제도 튼튼해지고 국가경제도 살아난다고 생각된다.

허선숙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경제 이론을 더욱 강화해 달라

KDI에 경제학 전문가들이 많은 만큼, 기사에 경제이론을 좀 더 강화해 주었으면 한다. 이론적 예측, 교과서적 설명이 현실에서 괴리되는 양상을 쉽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기존의 신문기사나 시중에 나와 있는 경제월간지에서는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라경제』라면 경제정책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배려해도 좋지 않겠는가.

노양욱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피부에 와닿는 인터뷰 기사를 늘렸으면

경제정책에 관한 자세한 기사를 읽을 수 있어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 입장에서 매우 유익해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읽고 있다. 다만 인터뷰나 탐방코너에서 '~ 출신' 등의 인물소개에서 벗어나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인터뷰를 실었으면 좋겠다.

장윤선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경제정책 하면 나라경제

2008. 1 [제19권 1호 통권 206호]

발행 |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 한정택 KDI 원장
편집인 | 전홍택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강호인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

편집주간 | 김동률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홍보실장

편집위원

재정경제부 차영환 정책상황팀장
외교통상부 최연호 통상홍보기획관
과학기술부 김주한 종합기획과장
농림부 김남훈 행정법무팀장
산업자원부 이준태 법무행정팀장
정보통신부 김준상 혁신기획관
보건복지부 하 성 재정기획관
환경부 최흥진 정책총괄과장
노동부 시민석 재정기획팀장
건설교통부 황성연 기획총괄팀장
해양수산부 류재형 정책기획팀장
기획예산처 박춘섭 중기재정기획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치걸 경영정책팀장
금융감독위원회 도규상 기획과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선민 총괄조정팀장
행정자치부 이희복 재정정책팀장

편집간사 | 유수영 재정경제부 정책상황팀

편집장 | 김서령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기자 | 공은주, 이정미, 이윤우, 김준범

배포 | 김경숙, 김정철

발행처 | KDI경제정보센터

ISSN 1227-8033 01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전화 | 02-958-4656, 4654

팩스 | 02-3295-0744

홈페이지 | <http://nara.kdi.re.kr>

e-mail | nara@kdi.re.kr

발행일 | 2008년 1월 2일(매월 1일 발행)

제19권 1호 (통권 206호)

등록일 | 1990년 11월 14일 (문화 라 04859호)

기사 문의 | 02-958-4667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2-958-4312

구독료 |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제작지원 | 중앙일보 시사미디어(주)

인쇄 | (주)삼화인쇄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집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엄마,
저 풀은 이름이 뭐예요?

땅 속에 묻어도 썩지 않는 쓰레기들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땅을 쓰레기만 자랄 수 있는 땅으로 만드시겠습니까.

“당신은 빛 선호형인가 빛 회피형 인가”

임기응변적인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책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는 빛내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빛내는 것을 습관처럼 즐기는 사람이다. 전자를 ‘빛 회피형’ 이라고 하고 후자를 ‘빛 선호형’ 이라고 하자. 2000년대 들어 저금리 시기는 빛 선호형들에게는 일생에 한번 찾아오기 힘든 큰 기회였다. 은행들이 쫓아다니며 “돈 쓰라”고 조르니 마음만 먹으면 대출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털고 은행 빚까지 내어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사기 힘든 아파트를 구입했다. 매달 은행이자로 수백만원을 내야 하지만 아파트 값이 수 억원 오르는데 대수겠느냐 했다.

반면 빛 회피형의 중산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빛을 무서워했고, 돈이 필요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도 조금 받으면 간을 졸였다. 하지만 빛 회피형들은 주위의 많은 빛 선호형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땅을 쳤고 자신의 무능과 용기 없음을 한탄했다.

그런 세월이 몇 년이 흘렀다. 이제 상황이 역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치솟기만 하던 아파트 값이 주춤해지고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은행 대출금리는 연일 치솟고, 은행 대출 문턱은 다시 높아졌다. 앞친 데 뺏친 격으로 중부세까지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두 부류로 나뉜다. 미국은 빛 선호형,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빛 회피형이다. 미국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고 자동차 사면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짊어지면, 중국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해서 달러를 벌여 미국의 적자를 메워주었다. 워렌 버핏은 미국 사람들을 ‘낭비마을(Squanderville) 사람들’ 이라고 불렀다.

미국은 빛 선호형,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빛 회피형이다. 미국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고 자동차 사면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짊어지면, 중국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해서 달러를 벌여 미국의 적자를 메워주었다.

그런데 이 역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낭비마을 사람들이 마구 찍어내는 달러의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 시작해 달러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또 분수 이상으로 빛을 얻어 집 산 미국 중하위 소득계층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빛을 갚기 어려워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촉발됐다.

빛 선호형과 빛 회피형 중 누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인지 정답은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빛 선호형은 이 자부담이 만만치 않고 세금이 늘어날 줄 뻔히 알면서도 아파트 값이 오르면 다 해결된다고 기대하고 부동산을 구입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엔 금리가 오르고 세금이 올라도 자기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당국이 우는 아이 젖주는 식의 온정적인 정책을 펼 경우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서브프라임 쇼크와 관련, 미국 정책당국이 내놓은

응급 대응책들이 비판 받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FRB)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로 모기지 금융기관과 투자은행들이 거액의 손실을 입고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여러 차례에 걸쳐 총 수십조원의 긴급 구제금융을 시장에 풀었으며, FRB는 정책금리를 낮추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원 대상이 된 이들 금융기관이야말로 고객의 신용도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돈을 마구 대출해 주고, 스스로도 위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매매한 책임이 있다.

그런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

을 보상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그 지원에 따른 비용 부담을 선량한 다른 국민들에게 지우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한층 더 키우는 일이다.

파 이번설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마틴 올프는 “어느 나라든 금융기관들은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 원인을 정부 등 공적 부문이 은행의 위험 감수 행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subsidize)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정부나 중앙은행 등은 금융기관의 공적 기능을 감안해 사실상 은행에 대해 보증을 서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서브프라임 쇼크를 계기로 과연 공적 부문이 은행의 위험 감수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보조해야 하는지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또 미 재무부가 최근 변동금리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해 5년간 금리 동결 조치를 취한 것은 한술 더 떠 반(反)시장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변동금리부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보통 가입 후 최초 2년간 고정금리부로 있다가 3년째부터 변동금리부로 바뀌게 돼 있다. 물론 대출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대출 약정을 맺었다.

그런데 미 정부의 금리 동결 조치는 사적(私的) 계약의 내용을 정부가 파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이라는 것이다. 또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행위를 보상했다는 점에서 모럴해저드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미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집을 무더기로 압류 당하고 주택금융시장이 붕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겠지만, 시장 원칙을 어기고 모럴해저드를 조장한 데 따른 사후의 손실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사람들은, 특히 빛 선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빛의 위험에 대해 쉽게 무더지고 망각한다. 하지만 위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과도한 빛을 얻어 쓰는 경우엔 사후에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

적으로도 큰 비용을 불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빛의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백마디 말보다 중요한 것이 실제 상황이다. 즉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예외 없이 집을 압류 당하고 파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정보이자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게도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큰 비용을 치른다는 점을 경험하는 것이 상으로 좋은 금융 규율 수단은 없을 것이다. 이번에 씨티은행이나 UBS은행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 및 아시아 국부(國富) 펀드에 주식 지분까지 내주면서 자금을 유지하는 수모를 당한 것도 다른 금융기관에는 좋은 교훈이 된다.

얼마 전 한국은행은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해당하는 저신용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매우 적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저(低)신용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약 34조원으로 전체 주택대출의 12~13%를 차지해 미국(14%)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연체율은 우리나라가 0.9%(2006년 말 기준)로 미국(5.1%)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회가 신용카드 대란을 학습한 뒤 위험 관리에 좀더 신중해진 데도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대로 위험관리 부서를 별도로 두고 독립성을 부여하는 등 조심하게 됐고, 정책당국도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해 시장의 규율을 적절히 강화해 왔다.

결국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 판단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하는 것이다. 미국 정책당국의 임기응변적인 서브프라임 대책들은 무엇보다 이런 교훈을 흐리게 한다는 점 때문에 비판 받고 있다.



글 이지훈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 jih@chosun.com





> 특 집 I | 2008년 한국경제 전망

올해 5%?

“경제성장, 불안 요인 많지 않다”

내로라 하는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이 올해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있어 경제성장에 변수가 되겠지만, 우리 경제의 강화된 기초 체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희망보고서. - 편집자 주 -

5%내외 성장을 보일 것

성장동력 확충, 통화정책 신뢰성 유지, 경제시스템 효율화해야

본 확실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특히 올해의 경제를 전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급속히 증가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망오차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2006년 상반기 이후 둔화되었던 경기가 2007년 1/4분기 성장률 4%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분기별 성장률이 5% 내외를 기록하는 등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물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산업생산 및 서비스생산 증가율도 소폭 둔화되었다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회복세를 보였다. 지출측면에서도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의 지표들이 완전히 개선되고 있다.

실제로 기업과 소비자들의 경기인식에 대한 시사지수도 개선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경기상황의 특징이라면, 경기하강의 범위와 정도가 제한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률 수준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들을 살펴볼 때,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면서 작년과 비슷한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전년과 비슷한 4%대의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도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의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부문도 토목건설과 상업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지난 2~3년간의 부진에 비해서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소폭 둔화되는 수준에서 멈춘다면, 수출도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낮겠지만 견실한 수준인 10%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의 물가상승률은 작년의 2.4%에서 3% 내외까지 확대될 것이다. 고유가가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최근처럼 내수경기 회복이 지속될 경우 서비스 물가에도 상승압력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작년 소폭 흑자에서 올해에는 소폭 적자(약 30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입 규모를 감안할 때 사실상 균형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나 내년 전망에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위협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세계경제는 2004년 이후 3% 후반대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호조세를 유지해왔다. 그동안 세계교역량도 연 7~10% 증가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2004년 이후 연속해서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 호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 사이의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이와 같은 국제적 불균형(global imbalance)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점점 증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경제의 둔화와 달러약세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과 관련된 부실규모는 올 상반기에야 완쾌이 잡힐 것으로 분석돼, 잔존한 위협요인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1층 로비에 있는 황소상.

이 현실화되면 미국경제가 예상보다 큰 충격을 겪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경제가 성장둔화에 그치지 않고 불황국면(recession)으로 빠질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美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 20% 가량 절하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교란되는 한편, 미국의 수입수요 급감으로 세계교역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은 1%대 중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성장률도 현재 전망치보다 상당 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의 경우 정책당국이 잠재된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하고 있

어 경기 급락 가능성을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그동안 세계경제 호황을 주도해온 신흥시장의 성장세가 올해에도 일정 수준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세계경제 둔화를 완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다수 국제기관들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작년(3.7%)보다는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3%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포함한 주택부문의 문제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1%대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 약세도 주요 통화화에 대해 현 수준에서 5%내외 절하되는 수준에 그친다면, 국제적 불균형이 큰 혼란 없이 완만히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6년에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던 유가가 최근 다시 급등하면서 추가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근의 유가급등이 장기간에 걸친 세계경제의 활황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세계경제가 둔화될 경우 유가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대외여건의 전개방향을 우선적으로 주시하면서 외부충격으로 경제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내부의 잠재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재정정책은 당초 계획된 중립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정부소비가 민간소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소비를 일정 정도 억제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높일뿐 아니라 국내 저축률을 높임

으로써 경상수지 악화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통화정책은 내수가 회복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inflationary expectation)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물가안정에 대한 통화당국의 의지가 일관성 있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환율의 신축성을 확보함으로써 대외여건의 변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업 및 가계부문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상태에서 자금 이동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국의 선제적인 감독대응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외환위기 후 10여년이 지난 오늘, 우리 경제는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성장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게 아난가하는 우려 또한 크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개방 확대 및 규제완화를 포함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정책들은 단기적인 경기대응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정택
KDI 원장
jthyun@kdi.re.kr

소비심리 회복, 내수 경기 살린다

설비투자 · 민간소비 회복세 지속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사회는 대외의 환경변화에 민감하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 올해 세계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확대로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대형 투자은행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은행의 금융 중개기능을 위축시킴으로써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 아일랜드 · 스페인 등의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경기 위축과 금융 불안을 몰고 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세계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FRB(미 연방준비은행)가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유기적 협조체제도 견고하다. 또한 중국 · 인도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선진국의 경기 둔화를 일정부분 상쇄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경제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의 영향으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연간 2%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일본경제는 개인소비의 완만한 회복세와 설비투자의 호조로 외부충격이 없을 경우 2%대 성장이 가능하나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지역은 유로화 강세,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성장세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우려에 따른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10%의 성장률이, 인도는 소비 및 투자의 확대로 8%대의 성장률이 각각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올해에도 글로벌 달러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경기하강에 따라 정책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유럽과 일본은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선진국 간 금리차가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신용경색이 재발할 경우,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원자재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국제공조 가능성 등이 달러 약세의 하방경직성(주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유가는 중동정세 불안, 신흥개도국 수요 증가 등으로 강세가 지속되었으나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OPEC의 증산 가능성 등으로 추가적 상승세는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대외 여건과는 달리 우리의 대내 여건은 다소 개선될 조짐이다. 지난해 최대 불안요인이었던 북핵 관련 불확실성이 6자회담의 순조로운 진행과 남북정상 회담 등으로 크게 완화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한 · 미 FTA 타결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EU 등 여타 지역과의 FTA 타결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소비 및 투자 등 내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의 주요 이슈가 '경제 살리기'였던 만큼 분배 위주 및 반기업정책보다는 성장 위주 및 친기업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부문도 확장기조가 예상된다. 지출예산은 257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9% 증가하는 것으로 책정되었다. 작년의 5.8%보다 2.1%p 높고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국내 펀더멘탈 및 정책 여건상 긴축기조가 예상된다. 소비 · 투자 등 주요 내수지표들의 호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잉 유동성과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경우 내년 중 콜금리 인하보다는 인상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에

2008년 경제전망

	2006년	2007년	2008년
GDP(전년비, %)	5.0	4.8	5.1
민간소비	4.2	4.5	4.6
건설투자	-0.4	1.9	3.2
설비·무형고정자산	7.8	7.5	8.2
수출(재화+서비스)	12.4	10.0	9.1
수입(재화+서비스)	11.3	9.8	10.1
소비자물가(전년비, %)	2.2	2.3	2.8
경상수지(억달러)	60.9	64.3	-19.8
환율(원/달러, 평균)	954.8	929.0	910.0
회사채수익률(% , 3년, AA-)	5.2	5.6	6.2



우리경제는 중국경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중국 천안문 앞 불꽃놀이.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대내외 여건을 바탕으로 볼 때 올해 GDP 성장률은 5.1%로 지난해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등 세계경제성장률 하락과 원화 절상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겠으나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 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출도 수출다변화, 제품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제한적인 둔화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고유가, 세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치증대, 주식시장 호황, 고용지표 개선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다.

금리상승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가계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 민간소비 회복세를 크게 저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경기 회복세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가 새 정부의 경기 활성화정책 추진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도 투자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율하락→수출둔화→설비투자 감소 효과보다는 환율하락→수입 자본재 가격→설비투자 증가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분양주

택 증가, 건설경기 선행지표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올해도 건설투자의 부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착공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공사 등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약 3%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경상수지는 1997년 이후 11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높아 상품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는데다 서비스부문의 낮은 경쟁력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내수 회복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시장금리는 경기회복, 물가상승, 한국은행의 긴축기조 스탠스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지속, 위안화의 절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 전환, 내국인의 외국 주식투자 확대,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규제 완화 등으로 달러 공급우위의 시장상황이 완화되면서 환율 하락 폭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올해 우리 경제는 내수회복으로 약 5% 내외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세계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는 올해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신용경색 사태와 채권수급 불균형 문제가 겹쳐서 나타난 최근의 금리 급등세도 심상치 않다.

해외자금조달 여건악화, 주가와 환율 급등락 등 위험요인들이 만만치 않다. 새 정부는 출범 초기에 유리한 거시경제 여건을 바탕으로 선부른 경기과열 논쟁에 말려 과거와 같은 정책판단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내수 회복세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의 개혁, 과감한 규제완화 등도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
jskim@keri.org

질풍지경초의 시기

疾風知勁草

인적 자원 확충 교육개혁 새로운 10년 준비해야

지난해 우리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 고유가 등 대외여건이 불안했으나, 성장 모멘텀이 작동하며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는 FRB(미 연방준비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한때 안정을 되찾는 듯했으나, 부실 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되며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WTI(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가격이 한때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하는 등 유가도 급등했다. 미국경제의 부진으로 달러화 약세와 세계 구석구석에 유입되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징후 등으로 외환시장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0%에서 3/4분기에는 5.2%

올해 우리 경제를 가능할 가장 큰 변수는 미국경제의 향방이다. 지난해 5월 미·중 경제전략대화를 마친 중국 측 수석단장 우이(吳儀) 부총리(왼쪽)와 미국 대표 헨리 폴슨 재무장관(오른쪽)이 백악관 인근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로 높아지는 등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졌다. 작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4.8%로 2006년(5.0%)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수출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였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 추세였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수출은 원화 가치 상승,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로 증가해 한국 기업들이 저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와 투자 등 그동안 부진했던 내수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증시 활황과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의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설비투자도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 7%의 성장세를 보이며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

올해 우리 경제가 맞이하는 대외여건은 그리 밝지 못하다. 세계경제는 지난 수년간의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호황의 끝자락에 서 있다. 서브프라임 부실 사

태와 이로 인한 금융 불안은 고속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부실과 과잉이 조정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조정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될 것이다.

미국의 취약한 경제상황과 금리인하로 달러화 약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 통화가 달러화에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원화만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금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외국자본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국내적 요인에 의한 원화환율의 하락 압력은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원화의 달러화에 대한 절상률은 주요 통화들에 비해 소폭인 3% 수준에 그치며 달러당 연평균 910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가 현상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수급 불균형, 달러 약세, 지정학적 불안 등이 단단한 삼중 고리를 형성하며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성장세 둔화가 원유 수요를 축소시키고, 유가 급등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우려한 산유국들의 증산 움직임은 유가 상승을 제한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 두바이 유가는 연 평균 배럴당 74달러로 작년의 69달러에 비해 5달러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단계 성숙되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경제주체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 기업들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경쟁력도 제고되었다. 그동안 원화강세, 고유가 등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국내기업들은 5~7%의 영업이익률을 달



성하였다. 2007년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에 국내기업이 14개사가 등재되었고, 부채비율도 100% 미만으로 하락했다. 또한 자산 규모 세계 100위 안에 드는 국내은행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전무하였으나, 2006년 말 현재 4개사가 포함되는 등 대형화에도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점에서 올해는 우리 경제가 대외적 불안을 이겨낼 정도로 내적 체질개선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받는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세찬바람이 불면 어떤 풀이 억센 풀인지를 알 수 있는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의 시기가 될 것이다.

올해 우리 경제를 가늠할 가장 큰 변수는 미국경제의 향방이다. 작년에는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사이의 경기흐름이 차별화되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전개되었다. 미국경제의 부진에도 중국, 인도, 중동 산유국 등 개도국 경기의 호조에 힘을 얻어 세계경제는 상대적으로 건실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올해에도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는 성장률이 작년의 2%에 이어 올해에도 1.9%에 그치는 부진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이 정도의 성장을 기록한다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성장이 미국경제의 부진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경제는 작년에 비해 소폭 둔화되나, 3%대 중반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올해 우리 경제는 연간 5.0%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서브프라임 부실 등 미국경제의 부진이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흐름을 되돌릴 만큼의 충격은 가해지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감속성

장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하는 한편, 내수회복세도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출은 올해에도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원화강세, 해외경기 감속성장의 우려는 있으나, 수출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지역 다변화, 수출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에 힘입어 2003년 이후의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고유가에 따른 수입확대와 만성적인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10년간의 흑자 기조를 마감하고 29억 달러의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해에는 내수회복이 작년에 비해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심리개선과 일자리 창출의 확대에 힘입어 4%대 중반의 증가가 예상된다. 내구재소비가 늘어나고 서비스지출도 확대되지만,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세가 크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금융불안이 상승세를 제한하여 소비가 자생력을 갖고 경기를 견인하는 힘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설비투자는 경제심리의 개선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연중 7%대의 증가가 예상된다. 올해 소비자물가도 전년보다 0.5% 포인트 높은 3.0%의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2006년 하반기 이후 급등한 원유 및 곡물 가격과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국내물가불안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도 3.2%로 작년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새롭게 늘어나는 일자리 수는 31만개 수준으로 작년의 29만개를 2만개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나 이제 'IMF시대'를 마감하고 'FTA시대'를 맞이하는 첫 해이다. IMF시대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시기로 외환위기 충격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급급한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기간이었다. 반면 FTA시대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FTA시대는 개방을 통해 글로벌화를 진전시키고 안팎의 경쟁 촉진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민간의 창의성이 살아나도록 하여야 한다. 법과 질서의 확립도 중요하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이익집단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또한 인적 자원 확충에 힘써야 한다. 교육개혁을 통해 국민의 교육수준과 역량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들도 FTA라는 치열한 경쟁 환경 아래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변신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미래 경영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경쟁력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소프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 발휘를 지원하고 다양한 창의성 요소를 경영성과로 연결시키는 조직 관리에도 주력해야 한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jungkh@seri.org

내수기업 투자 호조예상

대미 수출의존도 높은 고가소비재 수출 둔화될 수도

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는 수출회복을 내수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경기상승국면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저성장 추세 속에서 작은 부침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들어서는 내수경기가 완만하게나마 회복되면서 경기확장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능케 하였다. 오랫동안 부진했던 투자가 점차 회복되고, 카드사태 이후 위축되었던 소비심리도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취업자 증가수가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시장 상황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추세였다. 세계경제 여건만 나빠지지 않는다면 국내적으로는 경기의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도 평가해볼 수 있다. 올해 세계경제 여건은 지난해에 비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미국 경기이다. 부동산시장 불안에서 파급된 미국경기의 하향추세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보다 뚜렷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리인하, 모기지 대출에 대한 보증 확대 등 적극적인 정부대응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추세를 막지 못하는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과 소비기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중 미국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예측하는 전망도 늘 어가고 있다.

미국경제의 불안은 글로벌 자산가격의 동조화 및 금융부실의 전염 가능성, 교역수요의 둔화 등을 통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금융시장의 연관 정도가 낮은 중국 등 개도국이 내부 투자수요의 확대 등을 통

해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경기가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경기 불안과 더불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도 올해 세계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세계경제의 고성장 과정에서 공산품의 생산성 향상은 빠르게 이루어지는 반면 공급 확대가 쉽지 않은 일차산품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원유나 금속 원자재가격의 급등에 이어 최근엔 농산물 가격의 불안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이런 물가상승이 세계경제의 고성장에 기인한 만큼 인플레이압력이 세계경제를 급락시킬 만큼 크지는 않겠지만 이제까지와 같은 5% 내외의 높은 성장이 지속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세계경제 성장률은 작년 5.0%에서 올해에는 4.3%로 낮아질 전망이다. 더욱이 부동산 가격이나 유가 등 시장참

여자의 기대나 투기적 행동에 크게 의존하는 가격변수들이 세계경기의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불확실성은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세계경제 여건 악화는 국내경기의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올해 국내경기의 특징은 수요부문별로 볼 때 작년에 비해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다소 줄어드는 대신 내수의 기여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소비수요 감소로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자동차·휴대폰 등 고가소비재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성장이 지속되어 핵심부품이나 철강·기초화학 등 장치산업의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미국의 소비수요 감소로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등 고가소비재 수출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지난해 미국진출 21년 만에 500만대를 판매한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2008년형 현대차 트랜스폼.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수요둔화는 중국의 수출용 소재 및 부품 수요를 둔화시켜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올해 수출증가율은 10%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수부문 중에서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규제 강화 등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건설투자의 경우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거래 관련 부동산 정책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설비투자의 경우 세계경제 둔화, IT분야의 투자 일탈락 등이 둔화요인이지만 설비 가동률 상승에 따른 투자압력 증가, 기업수익성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 등으로 꾸준한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출둔화, 내수회복의 영향으로 제조업보다 비제조업, 수출기업보다 내수기업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는 작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자산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자산 효과에 따른 소비증가 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상승도 소비자들의 실질구

매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취업자 중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은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드는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소비기반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경기에 하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상반기 중에는 국내경기도 조정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소비자 및 기업의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악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산가격 상승의 제약,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성장의 속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올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불안요인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국내경기의 회복추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해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등 부정적 측면도 부각될 전망이다. 유가 및 국제농산물 가격 상승 등 비용측면의 영향과 내수경기의 상대적 호조라는 수요측면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중 3%를 넘어설 전망이다.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원화절상 추세 지속으로 여행수지 적

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국내 자금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자금부족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국내 금리도 지난해에 비해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달러화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화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달러화에 대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원화강세의 속도는 완화되어 위안화 및 유로, 엔화 등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거시경제정책의 초점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금융이나 실물 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 중인 주택가격의 가파른 조정양상이 전염되지 않도록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 규모와 시중금리 급등이 대출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응보다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강한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중장기적인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08년 국내경제 주요지표 전망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성장률(%)	5.0	4.5	5.2	4.9	4.9
민간소비	4.2	4.1	4.7	4.4	4.4
건설투자	-0.4	3.5	1.3	2.3	4.5
설비투자	7.6	11.4	2.8	7.0	6.7
수출(통관, %)	14.4	14.4	14.5	14.4	12.9
수입(통관, %)	18.4	14.0	15.9	15.0	15.8
경상수지(억달러)	61	-16	80	64	-43
소비자물가(%)	2.2	2.2	2.8	2.5	3.1
실업률(%)	3.5	3.4	3.2	3.3	3.2
원/달러 환율(평균)	955	934	923	929	905
원/엔 환율(평균)	821	778	802	790	830
회사채수익률(%)	5.2	5.4	6.0	5.7	6.5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jhk@geri.com

최저 4.1% 최고 5.2% 성장

한국은행, S&P, 모건스탠리 등 국내외 경제전문기관 전망

내일의 날씨를 슈퍼컴퓨터로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하물며 한 해의 경제를 전망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라.

많은 경제전문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를 대체로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T분야의 회복가능성에 따라 설비투자도 증가할 것이고, 건설투자도 지난해 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관들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세계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유동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경제전문기관들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08년 경제전망을 정리해 본다.

단, 각 기관마다 전망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들의 전망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수정치가 다 시 발표될 수 있음도 밝혀둔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4.7%로 전망한 한국은행의 이성태 총재(왼쪽)와 이보다 높은 5.2%로 전망한 OECD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기 관	GDP 성장률	소 비	투 자	수 출	기 타
한국은행(BOK)	4.7%(2007.12.5)	꾸준한 회복세	설비투자-증가세 둔화 건설투자-소폭개선	건설한 증가세 유지	대외여건 불확실성 증대가 리스크요인
산업연구원(Kiet)	5.0%(2007.11.29)	내수증가세 확대	설비투자-상승	증가세 지속	美 경기 등 해외부문의 변수
국회예산정책처(NABO)	4.8%(2007.10.9)	고용증가로 복세 이어져	건설투자 증가세 높아질 듯	건조한 증가세	상반기 중반 이후 경기 상승속도 증가
현대경제연구원	5.1%(2007.9.26)	미약한 회복	제한적 회복	하강국면	경상수지 적자반전 유지
금융연구원	5.1%(2007.10.31)	4.7% 증가로 성장을 견인	건설투자-4.1%성장 설비투자-6.6%성장	133억달러 흑자로 성장을 견인	세계경기의 둔화 가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2%(2007.10.16)	4.5%로 양호한 증가세	설비투자-7% 후반의 건설한 증가세 전망	호조세 유지 증가폭은 소폭 하락	하반기 성장모멘텀 악화로 上高下低
대신경제연구소	5.0%(2007.11.20)	소비자심리지수 개선으로 4.7% 증가	설비투자-6.0% 증가 건설투자-5.0% 증가	상승률 10.5% 예상	고용상황 개선으로 실업률은 3.2%
OECD	5.2%(2007.12.6)	상승 예상	상승 예상	호조세	주태공급 확대추진 필요
ADB	5.0%(2007.12.13)	점진적 증가	증가율 개선	건설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도 증가
S&P	4.8%(2007.12.12)	안정적 신용전망 유지. 공기업들의 신용등급은 A 원자재 비용 등 변동성 큰 외부 경제상황 우려는 남아			
IMF	4.6%(2007.10.18)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행복한 눈물(Happy Tears)’이 무엇이기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까? 2007년 말 한국에서 갑자기 유명세를 탄 미국의 팝 아티스트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1923~1997)의 작품 제목이다. 2002년에 삼성이 비지금으로 구입했다는 의혹때문이지만 이보다더 관심을 끄는 것은 715만9천 달러(당시 한화 86억 5천만원)씩이나 하는 그림 값이다. 그림을 보면 한 번 더 놀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같은 화가의 물리적 노고가 물씬 느껴지는 ‘숭고함’이나 ‘고상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만화 같은 그림이 수십억원을 훔가 한다는 사실이다.

그림값과 그림 값어치

현대 미술은 미의 기준을 달리 한다. 아름다워야 하는 관용 미추의 구분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깨달음’ 같은 것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리히텐슈타인과 더불어 동시대 미국 팝아트의 또 다른 대가 앤디워홀은 “비즈니스아말로 최고의 예술이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가 예술이라고? 미술이 사회적·정치적·시대적 삶 속에 뿌리내린 고도의 정신적 산물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시대를 표방하는 작품 또한 미술의 범주에 속한다. 미국이 산업사회의 특징으로 만든 대량생산이나 매스미디어·광고 등의 이미지를 순수미술의 문맥으로 끌어들이는 팝아트는 미술의 지평을 바꿔 놓았다.

앤디워홀의 대표작 중 하나인 ‘마릴린 먼로’의 반복되는 이미지는 스타로서 대중이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기 이전에 미디어에 비친 겉모습임을 보여주곤 했다. 이미지를 실크스크린으로 캔버스에 여러 장 찍어내는 방법으로 다량을 제작했던 일련의 작업들은 현대 대량 소비문화의 찬미이자 비판이었다. 리히텐슈타인의 작업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는 만화·신문·잡지에서 이미지를 차용해서 작가만의 조형 언어로 만들어 냈다.

즉 현대문명의 기술인 복제, 인쇄술은 수많은 망점으로 채워진 일종의 ‘눈속임’임을 보여주곤 했던 것이 작가의 의도였고 현실에 대한 풍자였다. 크리스티의 경매 자료에 의하면 워홀의 그림 값이 '98년 275만 달러였던 ‘오렌지 마릴린’이 2007년에는 2,750만 달러에 낙찰됐다는 기록이 있다.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1963년작. 지금 다시 이 작품을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 올리면 예상 낙찰가는 2002년 낙찰가보다 적어도 두 배 이상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좋은 작품의 ‘덕목’이 창의성·개성·역사성이려면 블루칩 작가의 조건 중 하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는 작가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낳은 세계적 아티스트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힘 있는 미국 미술시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소장하는 것은 워홀의 작품을 갖는 것만큼이나 미래 가치를 보장받는 길일 것이다.

글 이미란

필자소개

이미란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신동아 그룹 63갤러리에서 큐레이터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아트블루 국제부 전시기획실장 및 엠포리아 미술 아카데미 원장으로 있다. 주로 현대미술에 관련된 기획과 마케팅 그리고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saykoala@naver.com

김광림 세명대 총장/전 재정경제부 차관

인터뷰 : 김동률 KDI 연구위원
일시 : 2007년 12월 14일
장소 : 세명대 총장실

‘벼슬 속도’와 ‘내공 속도’ 서로 맞아야

김광림 세명대 총장은 2005년 6월, 재경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안동농림과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명문고·명문대 출신들로 가득한 재정부에서 차관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김동률: 처음 공직에 입문한 과정이 궁금하다.

김광림: 공직생활이 첫 사회생활은 아니었다. 1968년 안동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다가 영남대 야간부에 다니다가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해 재정부에 첫 발령이 났다.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 사무관으로 관직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진념 전 부총리께서 과장 자리에 있었다. 총괄 사무관이 강봉균 전 부총리, 옆자리에는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윤재 전 경제정책국장이다 같이 일했다. 진념 과장이 나를 그과에 배정했다고 하더라. 그때부터 정이 들어 그 인연이 평생 갔다. 1998년에 진념 전 부총리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날 재정기획국장으로 임명하셨다.

김동률: 세명대 총장을 맡은건 언제, 무슨 계기였나?

김광림: 2006년 9월에 5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우선 세명대를 설립하신 분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세명대는 권영우라는 안동 분이 설립했다. 14살에 혼자 서울로 올라와 고속버스 사업으로 성공을 거뒀다. 나중엔 국회의원으로 재선까지 했는데 3선에 도전하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평소 계획이던 교육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세명대, 세명고, 대원과학고, 세명컴퓨터고를 세웠다. 세명대는 10개 학과 40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43개 학과, 8,500명 규모까지 커졌다.

예산총괄과장 할 때 처음 만났는데 관직을 그만 둘 무렵 학교에 와서 일을 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런데 관직을 그만 두고 잠깐 미국에 가 있는 동안 그만 타계하셨다(2006년 4월). 말사위와 아들이 상을 마친 후 날 찾아왔다. 유언으로 세명대 총장으로 꼭 모셔오라는

말씀을 하셨다더라.

김동률: 최근 세명대에서 주력하는 일은 무엇인가?

김광림: 학부 졸업생이 언론계에 진출해 훌륭한 기자나 PD가 되도록 하는 저널리즘 스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직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실무자들을 교수로 모셨다. 지금 학생선발 최종면접 중인데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네 명, 연세대·고려대에서 네 명이 지원해서 매우 고무적이다.

김동률: 최근 청년취업난이 심각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광림: 세명대는 지난해 졸업생 중 93%가 취업에 성공했다. 전국 4년제 대학 중 1등이다. 청년실업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내 첫마디는 ‘청년실업은 없다’ 라는 것이다. 지금 현장에 가 보면 구인난이 심각하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나는 눈높이의 미스매치로 본다. 괜찮은 자리인데도 4년제 대학 나왔다고 안 가려 한다.

그다음 문제는 지역의 미스매치다. 일자리는 이전에 생겼는데 취업 희망 장소는 서울이다. 토목과 나온 학생에게 이전에 있는 회사가 2,500만원을 줄 테니 오라고 해도 서울에서 2,000만원 받는 곳을 찾는다.

이문제 해결엔 학생 대책보다 교수 대책이 더 필요하다. 교수들이 학생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 다른 대학 가 보면 면접 때 어떤 대답을 하고 옷은 무엇을 입고 하는 식으로만 가르친다. 우리는 교수들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학생이 어디에 원서를 내면 그 회사와 관련된 사람이 학교 내에 있는지 쫓살피본다. 그 회사에 전화해 일단 써 보고 일을 잘 하거든 기회를 주라고 설득한다.

교수들이 어느 정도로 열심이면 학생과 연락이 안 되면 어



학생이 머리에는 전문지식, 입에서는 영어, 손에는 기술, 가슴에는 덕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게 내 기본적인 교육관이다. 머리와 입은 더듬더듬이라도 좋다.



김광림 세명대 총장의 이력은 화려하다.

경제기획원 예산총괄과장, 재정경제부 공보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 비서관,

재경부 차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자타가 공인하는 '기획 예산통' 인 그를 만났다.

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연락이 가도록 한다. 학생의 신상을 함께 고민하는 교수가 필요하다.

김동률: 총장께서 대학을 지나치게 기능적으로만 보는 것 아닌가?

김광림: 학생이 머리에는 전문지식, 입에서는 영어, 손에는 기술, 가슴에는 덕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게 내 기본 교육관이다. 영어는 더듬더듬이라도 좋다.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에 봉사하는 가슴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인구가 줄 텐데 그렇게 되면 국민 각자가 정신 똑바로 박히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물론 1%의 서울대 학생들도 뛰어나야겠지만 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중·하위권 학생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기업인들 만나면 흔히 하소연을 한다. 서울 4년제 상위권 학생을 뽑아놓아도 나갈 궁리만 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는 아



경제기획원이 있었으면 IMF가 없었을 거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외환이 모자란 건 기본적으로 국제수지차 때문인데, 그걸 좀더 메꾸고 보충하는 건 경기에 달려 있는 일이었다.

침에 30분 일찍 출근하고, 영어는 국제전화 오면 받을 수 있는 정도면 되고, 굶은 일을 남보다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업무는 경제학원론 한 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미시·거시 같은 세부 분야는 교수될 사람이나 공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더라.

김동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김광림: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시장실패에 대해서만 규제해야 한다. 시장실패에서 나오되는 그룹이나 사람에 대해서만 사회안전망으로 받쳐주는 게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반시장적이라기보다, 시장적인 것이 있고 덜 시장적인 게 있었다. 과거보다 분배와 형평성에 더 중점을 둔 것뿐이다. 이는 과거 시장주의에서 나타났던 기업비리, 사회전체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서 그걸 바로잡을 필요 때문이었다.

김동률: 경제기획원이 없어지면서 정부 내 장기적인 경제정책을 계획

하는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기획원이 존속되었다면 IMF 외환위기가 없었을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

김광림: 그런 측면이 있다. 5년 후, 10년 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룹이 없어진 것은 아쉽다. 과거 경제기획원에서는 매일 하는 일이 5년, 10년 뒤를 고민하는 일이었다. 일하면서 ‘오늘 일이 끝났다’라고 마음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 5~10년 뒤 일이라 머리가 무거웠다. 다만 경제기획원이 있었으면 IMF가 없었을 거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외환이 모자란 건 기본적으로 국제수지차 때문인데, 그걸 좀더 메꾸고 보충하는 건 경기에 달린 일이었다.

김동률: 김 총장의 죄우명은 무엇인가?

김광림: 먼저 ‘신기독(慎其獨)이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다. 세명대에 와보니 학교 곳곳에 ‘듣지 않는 곳에서 삼가고 보지 않는 곳에서 진실되자’는 말이 써붙어 있더라. 창립자인 권영우씨도 학생들에게 늘 강조했다고 한다. 골프장에 가더라도 나는 보는 사람 없을 때 방뇨하는 것 같은 건 안 한다.(웃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으로 “어느 구름에서 비 내릴지 모른다.”라는 것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네트워크를 동굴계 잘 조직해야 한다는 말로 알아듣는다.

다음은 ‘성(聖)이다. 성인은 귀(耳)가 앞에 있고 입(口)이 뒤에 있다는 것이다. 남의 말은 먼저 듣고 말은 나중에 해야 한다. 최근 10~20년간 말 잘하는 사람이 출세했다.

이런 사람들이 말을 통해 심금을 울리고 표심을 모으는 사이 말 없이 물러섰던 사람은 보수로 물렸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굳건히 받쳐주는 힘은 남의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김동률: 후배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김광림: 최각규 부총리가 늘 강조했던 말이 있다. 공무원을 하면서 잘못되는 경우가 셋 있다. 긴장의 끈을 놓고 방심한 경우, 사심을 집어넣는 경우, 어려운 사람을 과하게 도와주는 경우다.

난 ‘공비총청(요직인 공보관, 비서관, 총무과장, 청와대 비서관)을 다 거쳤다. 후배들에게 늘 강조한 말은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뒷사람보다 반발짝 먼저 생각해서 보완하라는 것이다. 반발짝 늦게 하면 평생 남의 뒤만 따라간다.

공무원은 내공이 쌓이는 속도보다 벼슬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면 안 된다. 결국에는 낙마하거나 어렵게 된다. 아주 가까운 동료 중에도 보면 그렇다. 크게는 국민이 알고 작게는 관가 공무원들이 다 아는데 내공 속도가 못 따르면 결국 오래 갈 수가 없더라.



후식 식문화가 발달한 우리는 일과 후에 업무의 연장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멀건 대낮에 배부르게 먹고 마셔서 얼굴이 불과하게 된 상태에서 근무 하는 경우가 있음을 해외여행중에 종종 보셨을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밤에는 대개 가볍게 차 한 잔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비만의 관점에서 본다면 프랑스의 경우가 훨씬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야식증후군'을 이해하면 이 생각이 옳음을 알 수 있다. 요즘은 사회가 다변화되어 야간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대다수 생활 패턴은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밤이 되면 휴식을 취한다.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항진하게 되는 자율신경체계를 갖게 된다. 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저장한다. 즉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낮에 먹으면 덜 찌고 밤에 먹으면 더 찌는다.

대다수 사람들은 야식이나 야간음주를 하더라도 체중이 급격하는 늘지 않는다. 하지만 야식증후군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야식증후군에 대해 모르고 있다. 비만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의사들도 잘 모를 수 있다.

야식증후군 환자들은 흔히 우울증을 겪어 보았으며 일부는 만성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야식의 시작과 관련이 있으며 야식증후군을 지속시키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최근에 출산, 실직, 과다한 업무, 인간관계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야식증후군을 더욱 부채질하기도 한다.

또한 야식증후군에 대한 자신의 반응-밤에 과식한 것에 대한 때늦은 후회- 또한 스트레스를 지속시킬 수 있다. 야식과 우울증, 야식과 스트레스가 악순환처럼 돌고 돌아 체중증가를 불러오고 그로 인해 더 우울해지고 건강도 악화된다. 비만인 야식가들의 24시간은 보통사람의 하루와는 전혀 다르다.

일반인의 식습관과 야식가들의 식습관을 비교해 보면 일반인들은 하루 두 끼 내지는 세 끼를 비교적 규칙적으로 먹고 대개의 경우 저녁 7시를 기준으로 먹는 것을 마친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야식가라면 이러한 식습관이 낯설 것이다. 대개의 야식가들은 아침에는 거리가 식욕을 느끼지 못한다. 일부 야식가들은 정상적인 식이습관으로 길들이기 위해 무언가를 억지로라도 때가 되면 조금씩 먹는다.

야식증후군 환자는 크게 네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첫째 너무나도 참기 힘든 야식형, 둘째 불안하고 초조해서 먹는 야식형, 셋째 야식중독형, 넷째 잠을 자기 위해 먹는 야식형 등이다.

각 타입별로 그 처방은 조금씩 다르고 극복하기 힘든 질환이란 것을 알지만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는 방법은 있다. 그 첫 단계가 '무엇을 언제 먹느냐'이다. 일반 비만인은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가 관건이지만 당신이 비만인 야식가라면 '얼마만큼'보다는 '언제 먹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우울증과 스트레스, 夜食 부른다

멀티테라피.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체중조절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자리 늘리고 체감경기 살려달라

지난해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20대 새내기 유권자와 문화예술가, 40대 직장인, 기업인, 60대 퇴직자가 새 정부에 바라는 메시지를 『나라경제』에 담았다.



취업걱정 좀 덜어주세요

지난해 청년실업률 전체 실업률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나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했다. 새로 뽑힌 대통령은 온갖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현재 청년들에게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다. 대학 등록금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이다. 이 두 문제만큼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막막하게 하는 것도 없다. 그만큼 이 문제들이 오래도록 해결되지 못한 숙제이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물가인상률의 두 배를 기록하고 있다. 가뜰이나 학자금 대출의 이자도 너무나 비싸서 쉽게 이용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에서, 매년 살인적으로 오르는 대학 등록금은 청년들의 학업 의지를 꺾고 있다. 주위에는 스스로 등록금을 벌기 위해 졸업하기 전까지 네댓 번 휴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하는 선 후배도 여럿 있다. 또한 실제로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한 한 친구는 아예 대학에 지원할 때부터 전액 장학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성적보다 훨씬 낮은 대학에 하향 지원할 정도였다.

새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

금하다. 등록금 인상률 통제 방안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장학금 수혜자의 폭이 넓어지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 물론 대학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은 여러 집단의 이익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선부르게 결정할 사안 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들의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니만큼, 정부가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해 구체적인 고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나아가 주었으면 한다.

청년 실업 문제는 등록금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으나 청년실업 문제는 이 땅의 청년들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나마 취업한 사람들도 비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요즘 졸업을 앞둔 선배들은 곧바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대학원에 진

학하는 편을 선호하는데, 여기엔 경기가 풀려 취직이 쉬워질 때를 기다리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다.

청년 실업은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프랑스·독일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청년 실업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의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제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기에 그들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기를 주문하지는 않겠다. 다만 그들의 강력한 해결 의지만큼은 우리나라 정부도 배웠

“청년 실업 문제는 등록금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으나 청년실업 문제는 이 땅의 청년들 모두의 문제이다”

으면 한다.

이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막 시작한 이번 정부는 온 국민의 다양한 기대로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이번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 역사 속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부디 이 정부에 표를 던진 국민들의 소망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글 상은혜 고려대 정경학부 1학년
dikear@naver.com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첫 투표를 했다.

우리 문화를 세계에 내다 팔 전략을

롤링의 매혹적인 꿈, 톨킨의 원대한 상상력에 주목해야

영화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흥행했다는 것일 테고, 다음은 '재미있다'는 말일 것이다. 속되게 말하면 "잡, 돈 많이 벌었겠다"는 식이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영국'이다.

두 작품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 '영국의 문화적 수준'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같은 영어권이어도 세계를 주름잡는다고 큰소리치는 미국은 이런 작품을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에겐 영국만큼의 깊은 문화적 전통과 연륜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존 그리섬이 있고 마이클 크라이튼이 있지만, 롤링의 매혹적인 꿈과 톨킨의 원대한 상상력의 자양분이 되었던 그 심오한 문화적 바탕이 없기 때문이다.

작은 나라, 적은 인구, 좁은 땅에 사는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히 크고 원대한 문화적 깊이와 상상력에 있다. 향후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덩치 큰 미국이 덩치로는 작은 영국에 절대 못 미치는 것을 보면 틀림없다. 문화에 대한 정의나 우리나라 고유문화가 찬란했다는 식의 소모적인 말은 의미 없다.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문화 정책이 무엇인지 한 가지 말하고 싶다.

교육 정책을 외국어 위주에서 우리나라 문화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시류에 역행하는 말은 나도 잘 안다. 영어 열풍에 대해 다시 말하는 것은 입 아픈 것이다. 영어가 세계화의 중요한 방편이고 기초가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도달할 종점은 '낮은 수준의 세계화' 일 뿐이다.

진정한 세계화는 세계가 한국을 열망하는



것이지, 한국이 세계를 열망하는 것이 아니다. 영어를 통해 세계를 누비며 그들의 문물을 이해하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 것을 가져다가 파는 것도 영어가 없으면 안 될 일이다. 맞다. 분명 그렇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팔 것인가?' 자동차도 팔고 반도체도 팔아야 한다. 그런데 문화도 그렇게 팔 수 있을까? 우리의 경쟁력이 문화에 있다는 것에 동의하듯이 그런 방식으로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세계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야 한다. 그래서 '한국어'로 '한국 것'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 그런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나라'에서 '한국을 가르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높은 수준의 세계화'이다. 외국 유학생들은 자신들보다 어설플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듣고 싶어 이 땅에

외국관광객이 전통혼례복을 입고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한국 것'을 알고 싶어 왔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한국의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느끼게 해야 한다.

사회도 우리 문화의 장대함을 가꾸고 사랑하고 키우겠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긴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면한다. 가시적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한다. 열정적이고 애정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런 자들을 키워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 확인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문화가 경쟁력이라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시급히 말이다.

글 유광수 연세대 국문과 강사
ho1000@empal.com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를 허무는 중간문학의 부흥을 위해 제정된 '2007 조선일보 제1회 뉴웨이브 문학상'을 수상했다.

체감경기 살려 주머니 두둑하게 채워달라

규제철폐, 시장자유로 기업 투자 의욕 높여야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는 숱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투자 위축, 내수 침체, 청년 실업, 사회 양극화 등 어느 하나 간단하게 없다. 이런 문제야말로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주가가 오르고 몇몇 지표가 괜찮다고 해서 정말로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5천만이 안 되는 적은 인구와 지리적 한계를 가진 작은 시장이다 보니 조그만 충격에도 시장이 쉽게 왜곡될 수 있다. 단편적으로 보이는 각종 경제지표들은 이런 왜곡을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모자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간혹 정권 담당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방향도 모르고 우왕좌왕 했는데 가다 보니 우연히 지표들이 좋아져서 자신의 공인 양 자랑도 하고 흥분도 하는 경우를 본다. 하지만 국민들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달성해 가는 노력이 곳곳에서 느껴질 때, 지표가 아닌 체감경제가 좋아질 때 경제가 좋아졌다고 믿는다. 체감경기란 전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느끼는 경제상황이다. 그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도록 만드는 것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분리된 두 개의 가치가 아니다.

기업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으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쌓아 놓은 돈이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지으면 일자리가 생겨나서 고용이 늘고, 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월급도 올려 줘야 하고, 유능한 사람을 잡아두기 위해서 진급도 시켜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내수가 진작되고 바닷 경제가 살아난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돈은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다. 살아서 돌아다닐 때는 싱싱한 생명이지만, 고여 있으면 썩어서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쓰레기에 다름 아니다. 기업들이 보유한 유동자산이 국민들을 살리는 생명수일 수도 있고 그들을 괴롭히는 쓰레기일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쓰이느냐는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기업은 시장경제 원리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기에 시장이 실패하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해야 할 규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제는 규제 철폐와 시장 자유를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리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 경쟁국의 관료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는 잘 알려진 얘기다.

그에 비해 우리는 규제를 푸는데 인색할 뿐만 아니라, 관료가 기업 위에 군림하면서 한 건하려는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투자의욕을 살리고, 그 투자가 다시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고, 그 투자가 다시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해야 한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가려는 정부와 재계 간 긴밀한 파트너십이 형성돼야 가능하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글 김기현 (주)인트로 부장
sey9709@hanmail.net
평범한 중소기업의 부장이며 2녀를 둔 평범하되 열정 있는 샐러리 맨이다.

시장경제의 공정한 심판관이 되어주길

경제 밀바탕인 중소기업이 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소 위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는 화학 섬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면 아찔하다. 설마설마하던 유가 일백달러 시대가 눈앞에 닥쳤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기업군인 정유회사들은 엄청난 흑자를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과 그 협력·하청 업체들은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다.

내가 종사하는 화학 섬유업계는 주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정유회사들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화학 섬유 완제품 또는 반제품 제조자들 간에 공정거래 규칙이 여전히 결여된 것 같다. 비교적 하위그룹에 속하는 중소기업체들과 같이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러한 불공정한 환경은 비단 화학 섬유 업종만이 아닌 여타산업, 이를테면 요즘 잘 나간다는 IT 자동차 업종들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새 정부는 시장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심판관이 되길 바란다. 사진은 지난 2006년 8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위원회 회의 모습.

완제품의 원료가 되는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HDPE 또는 LDPE)의 구매 가격은 여러 정유 업체들로부터 가격과 기타 조건을 파악한 후 구매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의 단가를 고르는 것이 아닌, 일단 물량을 받았다가 당월 말에 정유사가 통지하는 가격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어 있다. 이는 정유사들 간의 가격담합 내지 무언의 협정을 의심케 하는 시장논리에 반한 거래 형태이다.

실제 최근 정유사들에게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 하여 정부로부터 불이익이 행해진 바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제조업체 및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경제 주체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될 때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논리가 현실화되기를 확고고대했다. 수십 년간 관행화된 불공정한 행태를 한꺼번에 고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다. 대다수 중소기업체의 사장들은 현장의 노동자와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단 한 사람의 인건비라도 절감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과연 그간의 정부가 이런

중소업체의 고통과 노력을 제대로 알고 지원정책을 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을 비롯해 언론계, 주요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 정치권 등이 선거철만 되면 하나 같이 “시장의 논리에 맡기자”고 한다. 여기서 ‘시장’의 개념은 결코 대기업이나 특정 산업군을 거론하는 것이 아닌,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비자 등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의미해야 한다. 대기업은 스스로 말하는 친시장적인 기업운영을 해왔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는 과연 진정으로 시장 경쟁에서 공정한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같은 직업군에서 일을 해도 대기업에서 일하는 하는 경영자, 관리자, 노동자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영자, 관리자, 노동자의 신분은 확연히 다르다. 대기업은 기회 있을 때마다 “현금 결제를 해준다” “협력 업체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한다”는 등의 상징적 제스처를 보여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종속된 관계로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

새 정부는 요란한 구호나 제스처보다는, 시장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심판관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중소기업체의 경영자, 관리자, 노동자도 대기업에 속해 있는 주체들만큼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공정하게 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만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경제의 밀바탕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영속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인중훈** 우정상사 대표
jonghoonin@yahoo.co.kr
서울 양재동에서 오피ساب을 운영하고 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취미생활도 하루이틀이지...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백수'가 된 지 3년째를 맞이하였다. 예전 같으면 환갑노인이라고 뒷방에서 손자들 재롱이나 보며 살았을 테지만, 요즘 60은 노약자 보호석에 앉기도 민망할 정도로 젊은 나이다. 퇴직 전엔 30년간이나 일을 했으니 조금 쉬면 어떠랴 싶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서성거리는 마당에 나 정도면 충분히 일했다고 자부하고 연금이 나오니 그다지도 후 걱정할 필요도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을 하고 나니 취미생활 즐기는 것도 하루이틀이고 뒷산을 오르는 것도 오전무렵이면 끝나고 만다. 돌 맞을 소리인지 몰라도, 물가가 너무 올라 연금만으로는 기대했던 것만큼 풍족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

소식적에야 해가 바뀌면 으레 뭔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는 했다. 대통령이 장기집권 하던 시대에 살다보니 정부에 무얼 기대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미래설계 정도였다. 그러나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올해는 새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책임지게 되니, 새 정부에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한다.

우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고 싶다. 박봉을 모아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

인 1979년만 해도 강남과 강북은 집값에 차이가 없었다. 직장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편리한 장소에 집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집과 강남 집값은 네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강남·북의 집값 차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집값이 너무 올라 성실하게 돈을 모아 집을 사는 일이 점점 더 어렵게 되었는데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빚 지지 말고 저축해서 집 사라고 했던 것이 후회스럽다. 차라리 빚을 지고 서라도 집을 장만 하라고 했더라면 최소한 아이들 집 걱정은 모면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싶다.

바라건대, 부디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한 젊은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집값의 상식 시대'를 열어주기 바란다. 지금은 분양가조차도 너무 비싸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을 지경이다. 또 한 가지는 내 나이와는 직접 관련이 없겠으나, 복지 차원에서 건의하고 싶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불임시술 권한던 사회가 불과 30년 전이다. 이제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각종 혜택을 주겠노라고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열을 올린다. 아이를 낳는 일은 국가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니 이를 나무랄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아이를 낳는 것에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불임부부에게도 지원책을 마련 해주었으면 한다. 인공수정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가정 이 많다. 결혼한 자식이 인공수정을 하며 육체적·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불임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새 정부가 모든 정책을 완벽하게 만들고 실천해 우리나라를 금방 세계 1등 국가로 만들 것이라는 망상은 하지 않겠다. 그저 조금씩이나마 희망을 움트게 하고 기운이 나게 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 서로가 믿고 격려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조금씩이나마 희망을 움트게 하고 기운이 나게 하는 정책으로 서로가 믿고 격려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 만 남
복거일 소설가·시사 평론가

대담: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일시: 2007년 11월28일
 장소: 문학과 지성사 회의실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걸 맡겨라

1946년 충남 아산 생
 대전상고 서울대
 중소기업은행 전주지점 예금계장
 한국과학연구원 부설 선박연구소 연구개발실장
 1987년 소설 '碑銘을 찾아서'로 등단
 문화미래포럼 대표

20년 전인 1987년, 한국문단에 제법 큰 이변이 있었다. 복거일이란 낯선 소설가의 등장이었다.

눈밝기로 소문난 문학 평론가 김현이 “여기 뛰어난 재능이 나타났다”라고 외쳤고 그 파장이 문단 안팎을 울렸다. 과연 그의 상상력과 서술력은 탁월했다. 에이츠의 시들을 절망적으로 사랑하며 공상과학 소설에 심취하고 글쓰기를 위해 생업을 놓아버렸다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소설가, 그의 가상역사소설 〈비명을 찾아서〉는 출판사 편집위원들의 열광과 경악이란 방식으로 우리 앞에 던져졌다. 스위프트적인 기지와 조지 오웰적인 암울함, 완벽한 소설적 상상력, 비판적 성찰과 풍자적 날카로움 등등의 찬란한 수식이 그에게 따라붙었다.

이후 20년이 흘렀다. 그 후 복거일은 소설가로서보다 보수 논객으로 더 큰 명성을 떨쳤다. 영어공용화론, 달리화 통용론, 과거사 청산 불가론 등의 튀는 주장들이 이 신문 저 신문의 논단을 달궜다. 특유의 휘날리는 흰 머리, 고집스러우면서 웃음띤 안경 속의 눈, 이마 위의 난삽하고 이지적인 주름, 대개 이런 것이 복거일이란 브랜드에 따라붙는 이미지였다. 그를 만났다. 장소는

문학과 지성사의 아래층 방. 적당히 구겨진 바바리코트의 복거일이 나타났다. 우리는 저물 녀까지 세 시간 반을 심없이 이야기했다.

자신을 사회적 소수라고 생각하나? (그의 블로그엔 ‘사람들이 사회를 이뤄 사는 한 소수는 늘 있을 것이고 소수에게 마음을 쓰는 사람도 끊임 없을 나을 것’이란 표제글이 있었다)

그렇다. 나는 소수다. 소수의견에 다수가 적대적인 건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 사회는 그게 유난히 심했다. 성리학이 받아들여진 고려중기 이후 양명학조차 허용이 안되는 이념 경직 사회였지 않았다. 주류와 다른 의견을 가지면 주류의 박해를 받는다. 80년대 말 이후 우리 사회는 마르크스주의로 뒤덮였다. 그게 주류 경제학이 돼 버렸다. 자유주의를 얘기하면 왕따 당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거기 휩쓸리지 않은 채 꾸준히 내 주장을 펼쳐 왔다. 그게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무한경쟁, 약육강식, 정경유착 같은 자본의 폐단을 고쳐보자는 움직임은 당연하지 않나? 성장보다 분배에 눈을 돌리자는 건 휴머니즘에 바



가치가 재화의 값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 사상은 사람의 직관에 딱 맞긴 한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좋아하게 돼 있다.

구성원끼리 약육강식하지 않는, 행복해질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는 세상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걸 꿈꾸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그 대답은 자연을 보면 알 수 있다. 자연은 언제나 평등의 반대 쪽으로 간다. 강제로 평등하게 만들면 유니크한 개체는 죽어버린다. 획일화는 생명의 뜻에 어긋난다.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내가 그를 만난 지점은 대선 이전이었다)가 ‘정글 자본주의’를 말하더라. 경쟁이 극심하고 힘센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잡아먹는 살벌한 사회를 편안하게 바로잡겠다고 하더라. 정치적으로 호소력이야 있겠지만 진실은 그럴 수가 없다.

왜, 무엇이 문제인가?

정글은 육지 생태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체계다. 우람한 나무들은 기생식물의 터전이 되고 수많은 식물들이 거기 서식하는 동물들을 먹여 살린다. 우림처럼 크고 다양한 세계는 무질서할 수 없다.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고 그 공생이다 시 환경을 풍요롭게 만든다. 거기엔 정연한 질서가 있다. 정글에 대한 통념이 잘못되었듯 자본주의에 대한 통념도 잘못되었다. 정글의 반대는 사막이다. 사막엔 극한조건들 때문에 생물이 살기 어렵다.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면 사막같은 환경이 돼 버린다. 생물의 종이 적어지고 개체가 살기 어려워진다.

복거일 선생은 스스로 늘 자유주의자와 시장경제론자라고 주장해왔다.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양대 이데올로기인 그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정글 예찬으로 요약된다고 봐도 좋은가.

그렇다. 정글은 수많은 종들과 개체로 이뤄졌지만 안정적인 질서를 지닌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사람들이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 정글에서 수많은 개체들이 협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듯 자본주의도 ‘보이지 않는 손’이란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 질서를 이루는 것이다. 인위적인 제한을 가하면 생명은 죽어버린다. 전체주의란 본질적으로 반자연적이라는 걸 깊이 공부하면 알게 된다.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자절로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 정부의 규제를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는 것이 가장 시장에 이롭고 시장에 이로운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사회주

탕한 ‘옳은’ 생각인 줄 아는데?

과거의 불의들이 쉽게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다. 사회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좌파가 될 수는 없다. 대표적인 예가 김남주씨 같은 분이다. 그 분은 치열하게 사셨지만 안타깝게도 ‘자본론’을 읽은 후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해 버렸더라. 복잡한 우주가 무슨 수로 책 한 권에 담기겠나. 지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

사회 변혁을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했던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 아닌가?

가장 인기없고 오해받기 쉬운 게 자본주의를 변호하는 일임을 나도 안다. 그런 비판은 언제나 씁쓸하다. 그러나 나는 회의론자에 경제학 전공자라 마르크스를 다른 경제 이론의 맥락 속에서 검토한다. 객관적 가치가 무엇이나를 놓고 고대로부터 철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씨름을 해왔다. 아담스미스는 세 가지 이론을 내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노동량 가치설이다. 리카도가 그 이론을 계승했고 리카도 제자들 중 한 무리가 좌파적 성향으로 그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그중 하나가 마르크스였다. 객관적

의 국가는 재산의 핵심인 노동까지도 국가가 관리하려고 한다. 경제활동의 양과 다양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 시장을 죽인다. 실험이 이미 끝나지 않았다.

복 선생은 늘 매우 민감하고 주목받는 이슈를 들고 나오는 것 같다. 이 건 이미 오래된 논의지만 세계화로 가는 방법론으로 영어공용화론과 달러화통용론을 말했는데? 영어가 공용어가 되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나? 고유한 역사는? 감수성은?

알다시피 영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이 21세기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개인의 생존과 복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경쟁력에 크게 작용한다. 영어 공용화 없이는 미래사회에서 황금을 얻을 수 없다. 실제 영어교육에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나? 그 비용을 줄여야 한다. 국제어를 쓰지 못해 보는 손해는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 동아시아 3국에서 누가 영어수용에 적극적이냐에 따라 미래 경제·사회·문화 판도가 바뀔 것이다.

지나친 힘의 논리 아닌가? 세계화를 위해 세계 제일이란 평을 듣는 우리말과 문자를 버려야 하나? 영어는 미국이란 힘센 나라의 언어일 뿐



강대국이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미래엔 중국어가 국제어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우리가 추구할 미래가치가 황금이 전부일 순 없지 않나. 언

정글에 대한 통념이 잘못되었듯 자본주의에 대한 통념도 잘못되었다. 정글의 반대는 사막이다. 사막엔 극한조건들 때문에 생물이 살기 어렵다.

어에 담겨 전해 내려온 그 많은 민족 정서는 어찌하라고?

늘 듣는 공격이다. 지금 김선생의 반론은 공용화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과 순서까지 똑같다. 굳이 우리 글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선택하게 하지는 것이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도구일 뿐이다. 모국어에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도구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걸 우상으로 떠받드는 건 비합리적이다. 정체성이니 민족이니를 들고 나오는 공용화 반대론자들은 대개 영어를 잘 하는 축들이다. 잉글리쉬 디바이드가 실제로 있지 않나. 영어를 공용화하면 서구문명의 그 무한한 보물창고를 누구나, 마음대로 여는 열쇠를 얻는 거다. 영어 공용화는 오히려 우리 전통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수단으로 더 필요하다. 중국어가 공용어가 될 활물은 거의 없다. 간자체가 보급됐지만 중국어는 여전히 배우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다.

민족이나 국가의 의미는 미래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 같나?

이제 생산도 시장도 문화도 국경 내에서만 이뤄지는 일은 거

의 없다. 민족주의는 이미 현실에서 유리되고 비적응적이 되어 간다. 언어가 그저 습관이라면 국가는 그저 태어난 위치 구분일 뿐이다. 과거에는 민족주의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과민반응해선 안된다. 이해득실을 냉정하게 따져 민족주의를 적절히 통제하는, 열린 민족주의로 다듬어내야 한다. 나는 달러화통용도 일관되게 주장했다. 더 나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환차손이 엄청나 경제가 흔들리는데 환율 방어 손실을 줄일 논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소설가로서가 아니라 사회평론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아쉬움은 없나?

지식인의 역할이 내 몫이다. 잘 읽히는 대중소설을 쓰는 데엔 자질이 없고 지식인과 지식 자체를 위한 과학과 종교와 사회와 문화를 아우르는 글을 쓰려 했다. 최인훈 선생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셨고 날이 길로 이끈 김현 선생도 그런 나를 나무라지 않으셨다. 30권의 책을 썼지만 남에게 서평을 부탁했던 적은 한번도 없다. 이젠 김현 선생에게 진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한다.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며 자랐나? 어릴 적부터 수재였나?

수재는 아니었다. 호기심 많고 궁금한 걸 참지 못했다. 아버지가 남로당 하부조직이셨다. 충청도 시골교사로 한국전쟁때 부역을 하셨던 모양이다. 그 때문에 고향을 떠나 파주 광탄 미군부대 근처에 자리잡고 자랐다. 5살 때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큰아버지를 죽인다고 죽창을 들고 달려오던 사람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난다.(이문열에 이어 복거일도 그의 성장에 아버지의 행적이 영향을 미쳤던가. 우리 역사가 아버지와 반대노선을 가는 아들들을 만들어낸다는 건 생각할 수

록 의미심장하다)

목성을 좋아하나? 김대중 정권을 비판한 '목성 잠언집'을 봤고 저번에 북핵문제를 풍자한 <그라운드 제로>도 무대가 목성이더라.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다. 이름도 슈퍼티어 아니냐. 스스로 위성까지 거느린 거대한 목성은 미래소설 무대로 제격이다. 띠가 있는 토성에도 관심이 있다. 자연과학적 지식에서 사회적 통찰을 얻는 걸 좋아한다. 경제학 이론에 진화론을 도입하면 문제가 한결 선명하게 풀린다.

무슨 책을 읽나?

그는 800페이지 분량의, 냉장고만한 생물학 책을 가방에서 꺼내 보여준다. 영어 책이라 들춰봐도 내용이 뭔지 나는 통알 수 없다. 그는 알기를 열망하는 자다. 그 열망으로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세상의 소수자'인 '지식인'이다.

글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사진 김준범 나라경제 기자

에너지 통장

년	월	일	직요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잔액	취급점
2005 에너지수입액						-₩63,426,000,000,000	
1			전기 플러그 뽑기	760,000,000,000			
2			TV시청 한시간 줄이기	312,000,000,000			
3			채널 수시로 바꾸지 않기	700,000,000			
4			냉장고 가족수에 맞게 사용	624,000,000,000			

우리가 가진 빛을 줄여 가는 간단한 방법, 더 많습니다

잔액란에 '-' 표시된 금액은 대출금 잔액임

우리가 가진 마이너스 통장
갚기 어려운 빛이 아닙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일하는 저소득층에 현금 지원

일할수록 채워주는 희망 살림 '근로장려세제'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80만원까지 현금 지원한다

○ 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가 시행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와 연계하여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현금(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며, 세금환급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함에도 "근로장려세제"라고 불리운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단순히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Welfare)과 달리 근로를 많이 해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Workfare)이다. 저소득 근로자가 일을 통하여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복지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근로장려세제를 주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외환위기 이후 일용직·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해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못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받지 못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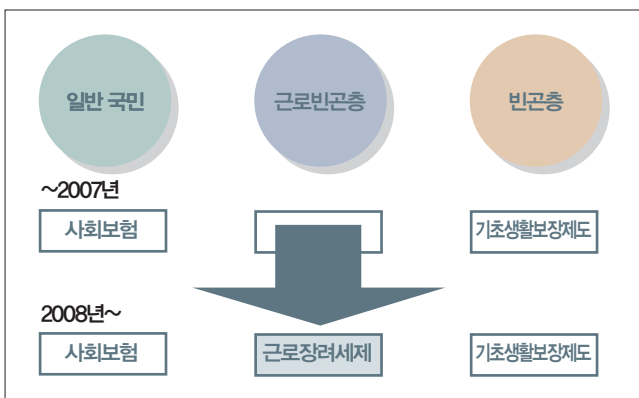
이에 정부는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21세기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파악을 기본전제로 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마련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그간 소득파악이 미흡했던 일용근로자의 경우, 2006년 한 해 동안 420만명분의 지급조서가 제출되는 등 소득파악률이 상당히 진척되었다. 지난해부터는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2%)가 부과됨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근로장려세제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세부 집행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전산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가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아직 낯선 제도임을 감안,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인지도를 높여 했다. 교수·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과 일반 국민으로 정책대상을 구분하고, 홍보매체를 다각화(TV·신문·인쇄물·온라인 등)해 정책대상에 적합한 전략적 홍보를 실시했다.

사회안전망 체계



이 직은 근로장려세제 시행 초기이므로 소득파악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최소한으로 해서 행동하도록 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며,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합계액의 10%, 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80만원, 1,200



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700만원에서 부부 합산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16%를 지급하게 된다.(표 참조)

최초의 근로장려금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2009년에 처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1~5.31)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는 행정자치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청자격을 심사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세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중랑구 보현정사 입구에서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

법 내용과 조세행정에 낯선 저소득 근로자들도 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소득과 약 수준, 재정여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제 막 걸음마를 댄 근로장려세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표 | 근로장려금 산정 예시

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계산근거
300만원	30만원	300 × 10%
500만원	50만원	500 × 10%
800만원	80만원	80만원(최대급여)
1,000만원	80만원	"
1,200만원	80만원	"
1,400만원	48만원	(1,700만원 - 1,400만원) × 16%
1,500만원	32만원	(1,700만원 - 1,500만원) × 16%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겸 ETC추진기획단장
happy@mof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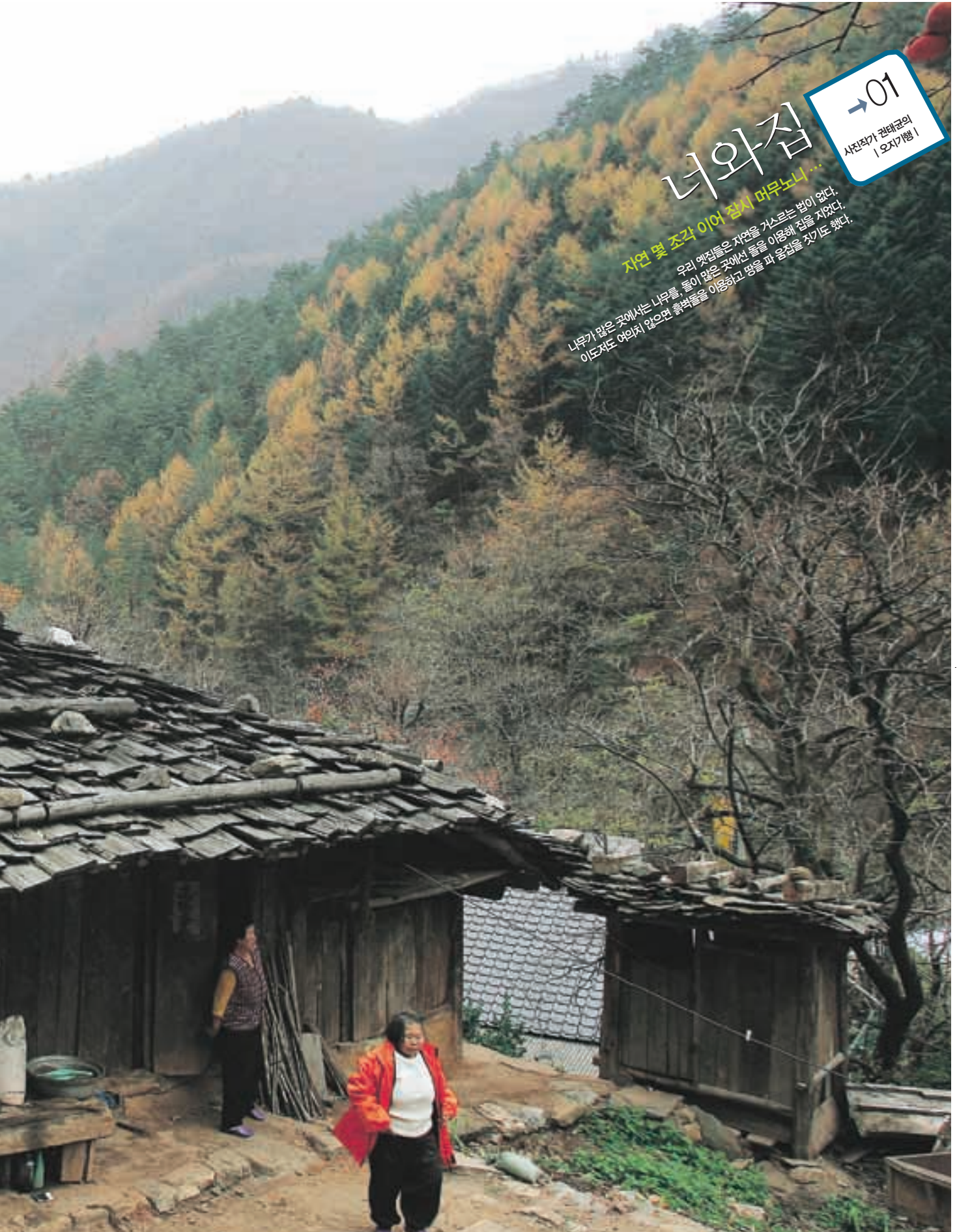
너와집

→ 01

사천(사)가 권태군의
1오지(가)행!

자연 몇 조각 이어 잠시 머무노니...

우리 옛집들은 자연을 거스르는 법이 없다.
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나무를, 돌이 많은 곳에서 돌을 이용해 집을 지었다.
이도저도 여의치 않으면 흙벽돌을 이용하고 땅을 파 움집을 짓기도 했다.





너와집은 기와대신
 적송이나 전나무 등을
 적당한 크기로 쪼개 올린 집이다.
 구멍이 송송 뚫려
 하늘이 그대로 보인다.

초가(草家)는 벼농사를 짓는 곳에서 벗짚을 이엉으로 엮은 집이지만, 때로는 갈대 등을 이어 엮기도 했다. 자연 그 자체인 까닭에 바뀌어가는 사계절의 색깔에 너무도 잘 어울린다. 초겨울 산행길에 들러봄직한 강원도 삼척 대이리의 너와집도 마찬가지다. 수목이 울창한 산간 지역에서 지천에 널린 나무를 베어 만든 판자를 겹겹이 포개 이은 다음 돌이나 통나무로 덩성덩성 둘러 놓았지만 서너 해는 거뜰히 버틸 수 있다. 그러다 나무마저 쉽게 구할 수 없으면 참나무나 떡갈나무 껍질을 벗겨 말린 후 지붕을 이어 굴피집을 만들기도 했다.

너와집은 적송이나 전나무 등을 적당한 크기로 쪼개 올



찾아가는 길

동해시에서 7번 국도를 타고 자동차로 삼척 방향으로 10분 정도 가면 태백으로 가는 38번 도로와 만난다. 이 국도를 따라 18km쯤 달리다 신동육교를 지나면 대이리로 우회전하는 길이 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너와집과 만난다.

린 만큼 말 그대로 구멍이 송송 뚫려 있다. 지붕 마구리에는 까치구멍까지 있어 외기와 내부의 공기가 연결돼 있다. 맑은 날이면 구들방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럼에도 비가 오면 나무가 습기를 머금어 틈새를 가리고, 눈이 오면 지붕에 쌓여 온기를 보존해주는 것이 신통할 따름이다. 냉기와 온기는 콘크리트로 두껍게 안팎을 차단한다고 해서 단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단열재를 넣어도 보온은 될지언정 어느 한쪽에 습기가 차게 마련이다. 어떻게 보온을 하기는 한다 해도 환기가 또한 문제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구멍 송송 뚫린 너와집의 기능을 대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너와집이나 굴피집의 미덕은 무엇보다 여유라고

할 수 있다. 허술한 듯하면서도 그 여유로움으로 환기와 보온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우리네 조상들이 살아온 모습이 본디 이와 같았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마저 염려할 일이 아니다. 지천으로 널린 자연 몇 조각을 이어붙여 잠시 머무를 곳으로 삼았다 떠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겨울이 깊어가는 요즈음 삼척 대이리와 신리에 남아 있는 너와집, 그마당과 토방에 도시인의 무거운 삶을 잠시 내려놓았다.

글 이향복

혼자 살아낼 수 있기에 슬픈

색, 계

리안 감독의 영화 '색 계'의 한 장면.

국내에서 예상을 넘어서는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크게 성공하고 있는 대만 출신 이안 감독의 영화 '색, 계'는 육체의 형형한 실존에 대한 영화입니다. 생(生)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치열한 길항 작용에 대한 영화이고, 지루한 세월이 폭발하는 찰나에 맞서 힘겹게 싸움을 벌이는 영화이지요. 시간은 불균질하고 공간은 윤회합니다. 그리고 삶은 '지금 여기'와 '기타 등등'으로 나뉩니다.

이 영화는 1938년 홍콩에서 시작합니다. 대학 연극반에 가입한 왕치아즈(탕웨이)는 대륙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에 맞서 애국적 저항 활동을 벌이려는 광위민(왕리홍)에게 매료됩니다. 광위민이 친일파 핵심 인물인 정보부대장이(양조위)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이에 동조한 왕치아즈는 신분을 위장하고 미인계를 써서 이의 아내(조안 쉐)에게 접근하지요. 처음 본 순간부터 이와 왕치아즈는 서로에게 강렬히 이끌리지만, 급작스레 이가 상하이로 발령이 나 옮기는 바람에 암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보고 나면 모두가 이야기하는 '색, 계'의 베드신은 과연 강렬합니다. 이 영화의 섹스신 연출은 과격적인 동작을 섬세하게 연결하는 일종의 '안무'라는 점에서 이안 감독의 전작 '와호장룡'의 무술 장면 연출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지요. 두 남녀가 침대에서 몸으로 만나는 세 차례의 장면은 폭력적이고 과시적이지만, 이야기 흐름이나 인물의 심리에 단단히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에로스는 침대 위에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왕치아즈가 커피를 마신 뒤 립스틱 자국을 잔에 남기거나 향수를 귀 밑에 슬쩍 뿌릴 때에도 이안은 카메라 뒤에서 큐피드의 화살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글거리는 내면의 불을 차갑고 강인한 외양 속에 감춘 연기의 품질도 좋지만, 이 영화의 양조위에게 정말로 감탄스러운 것은 바로 작품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탕웨이는 이 작품이 스크린 데뷔작이란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입체적이고 고혹적이군요.

상하이에서 다시 만난 이와 치아즈는 처음엔 의심과 증오를 밑바닥에 깔고 상대를 대하지만, 어느 순간 서로에게 격렬히 타닥타닥하면서 감정이 급변합니다. 결국 사랑에 빠진 이가 사랑에 빠진 치아즈에게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했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치아즈가 위로합니다. "많이 외로웠군요." 그러자 이가 조용히 내뱉습니다. "그덕에 살아있는 거지."

외로움이란 삶이 처하는 특정한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 아닌

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조건에 더 가깝지요.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만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할까요. 어쩌면 생명이란 고독을 견뎌내는 힘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랑은 스스로의 고독을 발견하고 당황하게 되는 자가 찾아나서는 미로 같은 것일 겁니다. 사랑을 추동하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약한 속내인 것이지요.

이와 치아즈는 강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도 속을 드러내지 않고 어디에서도 빈틈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사내입니다. 치아즈는 매국노 암살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신념과 의지가 강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고독이란 삶의 조건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이 두 장자는 상대를 만나고 스스로의 외로움을 인지하는 순간, 약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대가로 생(生)에 잠시 허락된 황홀한 혼란에 빠집니다.

이 영화는 제목에 등장하는 두 가지 요소인 '색' (色)과 '계' (戒)가 끝없이 맞물리면서 진행됩니다. 서로에게 빠져들기 전, 두 사람은 '계'의 경계 안에서 각각 위엄 있게 머뭙니다. 그러다 함께 '색'의 상태로 진입하면서 함께 마구 흔들립니다. 결국 한 사람은 '색'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벗어나 '계'의 세계로 복귀함으로써 삶을 이어가고, 다른 한 사람은 '색'의 경계 안에 머물기를 선택함으로써 삶을 끝냅니다.

'색'이란 단수인 '나'가 복수인 '우리'를 지향하는 상태입니다. 함께 있을 때의 충일감을 아교 삼아, 쓸쓸한 단수가 뜨거운 복수로 존재의 확장을 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교의 효력은 한시적이고, 삶은 결코 복수일 순 없습니다. 이 영화의 끝에서 계의 세계로 복귀한 이가 치아즈 없이도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따금씩 깊은 밤에 문득 깨어 외로움에 몸부림칠 겁니다.

가끔씩 헛헛한 속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오래오래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 감독 알렉산더 소쿠로프의 영화 '어머니와 아들'에서 병으로 죽어가는 어머니는 홀로 남을 것을 예감하며 안타까워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단다. 그것은 불행도 재앙도 아니야. 그저 너무도 슬픈 일이지."

삶이 슬픈 것은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은 결국 혼자 살아낼 수 있는 것이기에 슬프지요.

글 이동진 영화평론가

(이 글은 영화 전문 사이트 '이동진의 영화평론' (news.naver.com/moviescene)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물을 배운다 coffee mix

커피믹스 경제학

지금 당신은 커피를 마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커피믹스라고 부르는 인스턴트 커피입니까?
하루에 몇 잔을 마십니까?
인스턴트 커피의 기원과 시장규모 등을 취재해
우리 생활과 경제의 일부분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coffee

커피 12g 이야기

한국은 커피믹스 종주국, 연간 약 3천5백톤 수출

커피에 관한 최초 기록은 유길준의 서유견문
에 나온다. '우리가 승냥을 마시듯 서양 사
람들도 커피와 주스를 마신다' 고 소개하고 있다. 민
가에서는 커피를 '양탕(洋湯)국' 이라 부르기도 했
고, 다른 기록에는 고종황제께서 '가배차' 를 즐겨
마셨다고 전한다. 지난해 대형할인마트 최고 효자
상품은 단연 커피믹스였다. 이제 우리 생활에서 커피
믹스는 기호품이 아니라 생필품이 된 것 같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의 커피 소비량은 세계 11
위(단, 인스턴트커피는 세계 최고)이다. 평균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잔 정도(1년 347잔) 마시는 꼴
이다.

물론 커피콩은 100% 수입에 의존한다. 전 세계
무역량에서도 커피는 석유 다음으로 많다. 우리나
라 커피시장의 규모는 2006년을 기준으로 총 9,500
억원이었다. 인스턴트 커피가 약 7,452억원으로
78%를 차지하는데 이중 커피믹스가 차지하는 비
중은 약 6,047억원으로 전체 커피시장의 64%에 달
한다.

국내 인스턴트 커피시장의 73%를 장악하는 업
체는 동서식품이다. 한국네슬레가 25%대로 그 뒤
를 멀찍이서 쫓고 있고, 다른 군소업체들이 나머지



2%를 점유하는데 이 규모만도 만만치 않다.

커피믹스는 수출도 되고 있다. 동서식품은 매년
1천톤 가량의 커피(커피믹스 포함)를 해외로 수출
하고 있고, 한국네슬레도 요즘 중동지역을 개척 중
이다. 쓴 커피를 좋아하는 중동 사람들을 위해 설
탕이 적게 들어간 커피믹스를 별도로 개발해서 공
략하고 있다. 커피의 종주국은 잘 알려진대로 에티
오피아다. 그럼 커피믹스의 종주국은? 정답은 우리
나라다. 1976년 동서식품에서 커피 한스폰에 설탕
세 스푼, 크림 두 스푼의 표준커피인 커피믹스를 개
발했다. 뜨거운 물만 있으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커피의 개발, 당시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커피믹스는
우리나라 전체
커피시장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커피믹스 시장이 급격하게 커진 이유로는 편의성과 여성 인권의 신장, 그리고 정수기의 보급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무실에서 “미스 O, 커피한잔 부탁해!”가 사라진 것이 모두 커피믹스 덕분이다. 아니 거꾸로 여성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커피믹스 시장을 성장 시킨 요인일 수도 있다. 커피믹스 시장의 성장에 일조한 또 다른 공로자는 냉온정수기의 보급이다. 정수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직장인들은 커피를 취향에 맞게 직접 타마시게 됐다. 굳이 남의 손을 빌지 않아도 직장 남성들은 제손으로 직접 제 입에 맞는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정수기가 커피믹스 판매량 급신장에 일조한 건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꼭지를 누르면 뜨거운 물이 쏟아지니 커피한잔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은 10초면 충분해졌다. 우리들의 빨리 빨리 문화가 커피믹스 시장을 키운 큰 요인이 되었음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커피믹스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커피믹스 제조업체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러댔다. 그러나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이 경쟁 또한 날이 치열해졌다. 소비자들의 변덕스럽고 까다로운 입맛과 기호를 맞추기 위해 버려별 궁리와 모색을 하지 않으면 안됐다. 그래서 나온 커피믹스의 종류만도 지금은 열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정도다. 카페인을 뺀 디카페인, 커피·크림·설탕의 배합을 서로 달리한 오리지널이나 모카, 원두 자체를 달리한 거품을 넣은 카푸치노, 부드러운 맛의 마일드, 칼로리를 줄인 1/2, 무농약 공을 사용한 웰빙 등등.

요즘 커피믹스 회사들은 새로운 위험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그건 바로 대형할인 유통업체들에 의

한 PB(Private Brand, 유통업자 브랜드) 제품의 출현이다. 이마트 등 대형할인 유통업체들이 자사 브랜드로 매장에 커피믹스를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의 PB는 대형 할인마트들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저렴한 제품을 썼으나 요즘은 맛에서 큰 차이가 없는 커피를 20%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런 PB는 커피믹스 시장이 커진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형 제조업체들로서는 거대한 유통 브랜드가 새로운 경쟁상대가 되었으니 달갑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군소 제조업체들도 당장 납품 기회는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사 브랜드 인지도 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시장은 항상 새로운 위험과 기회가 도사리고 있다. 앞으로도 커피믹스 시장이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떻게 응전할 지 자못 기대가 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서식품 홍보실엔 커피믹스 봉투 끝에 붙어있는 번호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었다. 설탕의 농도냐, 커피의 양이나 혹은 당도의 조절이나. 어떤 이들은 뒷 번호일수록 달고 앞으로 갈수록 쓰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뒷 번호일수록 진한 맛을 내고 앞 번호 일수록 순한 맛을 낸다고 했다. 그러나 정답은 “번호는 커피믹스 맛과는 아무 상관 없다”이다. 제조공정에서 생산라인을 구분하기 위한 각 라인 인식번호일 뿐이다. 불량품이 생겼을 때 어느 라인이 고장인지 알아내기 위한 기능이라는 것이다.



교황의 세례 받은 ‘악마의 열매’

클레멘트 8세 시음 후 “커피는 크리스천들의 음료” 선포

커피나무는 서기 600년경 에티오피아의 양치기 소년에 의해 발견됐다. 평소엔 힘이 없던 양들이 붉은 빛의 열매를 먹으면 힘과 생기가 넘친다는 것을 발견한 목동 ‘칼디’는 이를 이상히 여겨 그 열매를 먹어보았다. 그리고는 곧 목동도 평소와 다른 강한 힘을 느꼈다. 이 사실은 근처 수도원장에게 보고됐고, 수도원장은 이상한 힘을 주는 커피를 악마의 열매로 여기고 불에 던졌는데 그 순간 수도원에는 향긋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퍼졌다.

그런데 밤을 새는 동안 곧잘 졸던 수도승들이 그날 밤엔 아무도 졸지

않았다. 독특한 향을 내는 커피가 잠을 쫓아주고 정신까지 맑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된 수도승들은 은밀히 이 열매를 즐기게 되었다.

커피를 전 세계에 전파시키고 원예학적으로 보급시킨 일등공신은 사라센 제국의 예멘이다. 사라센의 성직자들은 에티오피아의 야생 커피나무를 예멘으로 들여와 대량경작을 시작했다. 이때까지도 성직자들에게만 허락됐던 커피는 13세기 말 사라센 제국이 쇠락하면서 일반인에게도 허락됐다.

재정이 어려워진 이슬람 사원들이 신도와 일반인들에게 커피를 팔기 시작한 것이다. 열매를 으개서 잎과 함께 마시던 커피는 이때부터 과육을 제거한 후 원두를 볶아 끓여 마시는 방법으로 발전되면서

서 급속히 퍼졌다.

커피 무역이 비중 있는 사업이 되자 상인들은 커피 나무 종자를 확보하려 애썼다. 그러나 예멘의 수도승과 재배자들은 커피 품종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수출하는 모든 커피는 끓는 물에 담가 씩이 뜨는 것을 막았다. 또 커피열매의 껍질을 벗겨

내면 번식력이 없어진다는 것도 알아내는 등 커피 종자를 지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럽에 커피가 처음 들어온 것은 12세기 십자군 원정 때였다. 처음엔 커피를 이교도의 음료로 여겨 배척하다가 르네상스



1820년께 영국의 커피하우스에서 지식인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

시대에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르네상스의 자유로움이 교회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느껴 교황에게 예술인들이 즐기던 커피를 금지시켜달라고 청원을 올렸다. 청원을 접수한 로마 교황 클레멘트 8세는 판결에 앞서 문제의 커피를 시음했는데 그 독특하고 신비한 음료에 그만 반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부터 커피는 크리스천들의 음료”라고 선포하고 커피에게 세례까지 주었다. 이후 커피는 예술가들뿐 아니라 종교인들과 일반인들에게까지 사랑받는 음료로 정착됐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 최초의 커피 하우스 ‘보테자 델 카페(Bottega del caffè)’가 1645년 베네치아에서 문을 열었다.



커피군 프림양, 환상의 궁합 찾아라

아라비카종 동결건조 커피와 프림 배합비율이 관건

커피믹스를 구성하는 3대 성분은 커피, 설탕, 프림. 이중 커피믹스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성분은 당연히 커피다. ‘커피믹스에 쓰이는 커피, 그거다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커피믹스를 너무 알아 보셨다. 커피믹스에 담긴 커피는 제품별로 천차만별이다. 크게는 어떤 종(種)이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원산지마다의 특색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커피믹스 제조업자들은 품질 좋은 커피를 구하기 위해 전세계를 누빈다. 통상 벌크로 되어있는 인스턴트 커피 완제품을 수입한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커피의 품종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장 맛이 좋은 품종은 아라비카종으로 성장속도는 느리지만 향미가 풍부하고 카페인 함유량이 적다. 전 세계 산출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로부스타종은 병충해에 강하고 빠르게 성장하지만 자극적이고 거친 향을 낸다. 아라비카종에 비

해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으며 전 세계 산출량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인스턴트 커피로 만들기 위해 커피를 건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맛의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열풍건조법보다 동결건

조법이 많이 사용되며 동결건조된 커피의 맛이 더 우수하다.

커피 이외의 성분인 설탕은 잘 녹여지도록 알갱이가 작은 제품을 주로 사용한다. 프림은 대기업 제품이 주로 사용되는데 프림마다 미묘한 맛의 차이가 난다. 커피믹스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은 이처럼 다양한 특색을 가진 각각의 커피, 설탕, 프림을 어

떻게 조합하느냐에 대한 끝없는 실험의 연속이다. 커피와 프림이 섞였을 때 맛이 궁합을 잘 이루는 ‘환상의 짝꿍’ 을 찾아야 한다.

때로는 한 가지 종의 커피만 쓰지 않고 여러 제품을 섞기도 한다. 열풍건조된 커피와 동결건조된 커피가 어우러지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각각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개발할 때에는 맛의 차이를 정교하게 느끼기 위해 1/1000g 수준까지 정밀하게 테스트한다. 커피믹스는 판촉용으로든 제약회사에서 일반 커피믹스 포장지가 아닌 약 이름이 적혀있는 커피믹스 제품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런 제품은 짝퉁이 아니라 홍보를 목적으로 제약회사에서 판촉물로 기획한 제품이다.

커피믹스 제조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커피믹스 제조업체 ‘이레커피’ 를 방문했다. 이상물 상무이사는 제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각각의 원료를 매뉴얼대로 정확한 비율에 따라 섞는 것’ 을 꼽는다. 제 아무리 실험실에서 고생고생해 최고의 제품을 개발했다 해도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면 ‘도로아미타불’ 이다.

원료를 배합하는 곳은 공장의 2층. 섬세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기엔 원칙상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대신 1층 포장작업장을 둘러봤다. 작업장에는 총 13대의 포장기계가 있으며 3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2층에서 파이프를 통해 각각의 포장기계에 배합된 원료가 내려오면 포장지 안에 자동으로 원료가 담겨 완제품이 생산된다. 기계 하나당 한번에 커피믹스 10개씩 포장된다. 이런 식으로 분당 20번이 반복되어 1분에 200개가 만들어진다. 완제품이 나오는 곳에서 작업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를 모아 100개, 200개 들어 대형 비닐

롯데백화점 본점 야외광장에서 열린 동서식품 고급 원두커피 맥심 아라비카 100 시음회에서 외국인 모델들과 시음회장을 찾은 고객들이 홍보를 위해 만들어 놓은 모형 커피나무 아래서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기고 있다.



포장지에 담는 작업을 한다.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자는 옆에 있는 저울에 달아본다. 만약 기준치보다 가벼우면 이는 커피믹스에 들어가는 원료가 일부 빠졌다는 의미다. 작업장에는 커피 냄새가 가득하다. 분진만 빼면 작업과정에서 위험요소는 그다지 많지 않다. 공정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작업장 내 수분이 없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다. 식품을 생산하는 곳이기 위생 상태도 철저히 유지한다. 실제로 당국의 감독도 엄격하다. 작업장에 들어서려면 가운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에어 샤워를 받아야 한다.

이 상무이사는 “우리나라 커피믹스 제조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특히 핵심기술인 원료 블렌딩 기술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자랑한다. 우리나라에는 동서, 네슬레와 같은 대기업 말고도 100여개의 중소 커피믹스 제조기업이 있다. 이들은 대기업에 OEM으로 납품하기도 하고 자체 브랜드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도 한다. 한 예로, 중소기업 ‘히코코’는 고급 원료를 통한 소량 생산을 통해 고급 커피믹스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레커피’는 팔라메, 호박라떼 등 커피이외의 다양한 믹스 제품류를 출시하고 있다.



광고이야기 초기의 중후함에서 최근의 웰빙까지

동서식품은 1976년 커피믹스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영역)를 만들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동서식품의 커피믹스는 커피 하나, 크림 둘, 설탕 세 스푼이라는 표준커피를 믹스로 만든 것이다. 커피믹스는 단순하게 새로운 포장의 커피가 아니라 ‘편리’로 포장된 커피였다.

동서식품의 커피믹스 개발 의도는 당시 TV광고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낚시를 하다가 간편하게 한잔, 등산을 마치고 산의 정상에서 한잔,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기 커피믹스 광고는 이런 간편성·편리성을 강조했고, 이 광고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

1980년대 들어 광고 전략은 브랜드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맥심 커피믹스도 브랜드별로 광고를 진행하는데, 맥심 커피믹스는 설탕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내 맘대로 되는 게 또 있네!’라는 카피를 사용했다. 탤런트 송윤아, 김정은 등을 내세워 발랄하고 가벼운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했고, 탤런트 이미연을 내세워 고급스런 프리미엄 커피믹스를 소개하고 있다.

(주)한국네슬레는 네스카페 골드블렌드와 테이스터스 초이스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내세워 동서식품 맥심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로 인해 그동안 독주체제에 있던 우리나라의 커피시장은 양대 회사로 개편되기 시작한다. 커피믹스 시장 역시 두 회사의 뜨거운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주)한국네슬레는 네스카페 골드 블렌드와 테이스터스 초이스의 두 가지 브랜드를 중심으로 커피 시장을 공략 중이다. 광고 역시 이 두 브랜드가 축이 된다.

네스카페 골드 블렌드는 맥심과 비슷한 컨셉으로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주력했고 소설가 김주영, 가수 패티김 등이 광고 모델로 활약했다. 테이스터스 초이스는 디자이너, 아나운서, 뮤지컬 배우 등 전문직 여성들을 내세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소비자의 감성을 두드렸다. 얼마 후 배용준이 모델로 등장하면서 광고 컨셉도 부드러움, 일상의 여유 등으로 바뀌게 된다. 최근에는 다니엘 헤니를 모델로 웰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카페인 효과

커피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두뇌의 활성화다. 커피를 마시면 일반적으로 주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진다. 이것을 카페인 효과라고 하는데 뚱뚱한 사람보다는 마른 사람에게서 두드러진다.

카페인이 흡수되는 양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9명의 젊은이에게 커피 2잔 분량에 해당하는 250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한 후 혈액 내 카페인 수치를 측정한 결과, 1리터당 카페인 양은 최소 4.2mg에서 26mg까지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인체 내에서 카페인이 분해되는 시간도 각각각색이다. 카페인이 몸 속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도 사람에 따라 2시간에서 12시간까지의 차이가 났다. 나이가 들수록 커피의 효과가 오래 지속됐으며 임신부,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 간장질환자 등도 카페인의 분해 속도가 느린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인의 가장 큰 단점은 갈숨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남성보다 더 많은 양의 갈숨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간다. 때문에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뼈가 약해져 골절상을 입거나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

참조 : 한승환의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Cupping

커피 감별을 '커피(Cupping)'이라 한다. 커피 애호가라면 아래 기준으로 좋아하는 커피를 한번 '커피'해 볼 것.

1 느낌이 얼마나 풍부한가.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바디'라고 하는데, 연하지만 입안에 꽉 차는 느낌을 갖는 커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커피도 있다. 허전한 느낌이 들면 바디가 약한 것이고, 풍성한 느낌이 들면 바디가 강한 것이다. 정도는 로(약하다), 미디움(보통이다), 풀(풍성하다), 헤비(꽉 차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 '맛있다', '맛없다'를 표현하면 안 된다.

2 커피의 3대 맛(신맛, 단맛, 쓴맛)은 10단위의 %로 나타내는 편이 좋다.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된다. 특히 단맛이란 맛으로 직접 느낄 수도 있고 향기로 느낄 수도 있다. 물론 0%일 경우도 있다.

3 느낌은 향기(아로마), 맛과 향기의 절충(플레버), 맛(테이스트)으로 구별된다. 전문 미각 용어에서는 아로마와 테이스트 사이에 플레버가 존재한다. 플레버는 향기와 맛이 복합되어 느껴지는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원두 커피일수록 플레버가 강조되고 인스턴트일수록 테이스트가 강조된다.(테이스터스 초이스란 이름도 여기에서 나왔다)



블랙커피, 그리고 인연

내가 처음 맛 본 커피는 블랙이었다. 스무 살 무렵 시골에서 올라와 친구 따라 중양우체국 뒤편에 있는 다방으로 들어갔다. 어둑한 실내. 희뿌연 담배연기. 탁자 너머의 친구는 '커피는 이렇게 마시는 거야'라며 세련된 포즈로 잔을 받쳐 들었다. 뭘 모르는 나는 탕약 같은 시커먼 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그런데, 옛 뜨겁고 쓴맛.

외마디 소리를 냈지만 냄새만은 꽃향기보다 좋았다. 그날 익모초처럼 쓰기만 하던 커피는 이후 다양한 맛으로 나의 후각과 미각, 그리고 뇌세포를 자극하여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기호품이 되었다. 집안 행사가 있을 때 내 별명은 전 마담이다. 사람들의 혀는 재료의 비율 차이와 물의 온도, 분량을 신기하게도 미세하게 느껴낸다. 사람들은 내가 타 내는 커피는 다 맛있다고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커피 맛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되었다. 커피믹스가 등장한 것이다. 커피의 혁명이랄까. 언제 어디서나 뜨거운 물만 부으면 커피가 만들어진다. 나는 그동안 동서커피문화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맥심문화회 회장직을 맡으며 커피를 예찬해왔다. 스터디를 할 때건, 문학기행을 떠날 때건 우리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커피믹스다. 가장 간편하게, 가장 휴대하기 쉽게, 가장 대중적으로! 온갖 다양한 맛의 변주를 보여주는 커피믹스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그 유혹이 나를 심각한 커피믹스 중독자로 만들었다.

글 전 민 맥심문화회 회장



20대, 희망의 나침반을 찾아라

특별기획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20대 사장 한지현씨(왼쪽)와 김석중씨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펼쳐나가는
대한민국의 20대 젊은이들이다.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공부하고, 제일 똑똑하고,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첨단 전자제품도 레고블록 만지듯 다루는 세대야. 안 그래? 거의 모두 대학을 나왔고 토익 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막 없이도 할리우드 액션영화 정도는 볼 수 있고 타이핑도 분당 삼백 타는 우습고 평균 신장도 크지.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고... 독서량도 우리 윗세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아. 우리 부모 세대는 그중에 단 하나만 잘해도, 아니 비슷하게 하거나 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다 놀고 있는 거야? 왜 모두 실업자인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된 거지?”

(김영하의 소설 <퀴즈쇼> 중 일부)

20대, 희망의 나침반을 찾아라

그래, 도대체 무엇을 잘못된 걸까. 가장 활력있고 패기만만해야 할 우리의 20대가 어쩌다 이러한 절규를 내뿜어야만 하는 처지에 몰렸을까. X세대니 N세대니 하며 칭송 받던 20대는 어느새 스스로를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NG족(No Graduation · 실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졸업을 연기하는 대학생)'이라 부르며 고달프게 하루하루를 버틴다.

우리의 청춘 이대로 좋은가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80년대에 20대를 보낸 이들의 말이었다. 지금은 맞지 않는 제목이다. 잔치는 아예 없었다. 그게 20대가 직면한 냉엄한 현실이다. 통계를 보면 20대가 얼마나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올해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6.1%로, 2004년 49.2% 이후 4년 연속 내려갔다.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도 같은 기간 499만명에서 453만8천명으로 9.1% 줄었다. 이는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20대에겐 좀처럼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대는 직업을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수도 237만1천명으로 집계돼 30대 202만명, 40대 162만명, 50대 162만2천명을 앞질렀다.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88만원 세대’란 용어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20대가 구조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40·50대 정규직이 자신들이 움켜쥔 기득권을 놓지 않는 사이에 20대 대다수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울한 징후는 여러 문학 작품 속에서도 감지된

‘생존’에 허덕이는 20대의 고민을 기성세대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진) 서울 배화여대에서 열린 디지털 온라인 창업특강에 참가한 여대생들이 ‘청년실업을 떨치자’며 기왓장을 깨부수고 있다.





다. 김영하의 장편 '퀴즈쇼'에는 고학력 20대 백수가 등장한다. 편의점에서 해고당하고 고시원에 서도 쫓겨난 그에게 유일한 위안은 지적 쾌감을 누리는 '퀴즈방'이란 채팅 사이트다.

박민규의 단편 '고마워, 과연 너구리아'의 주인공은 홍보대행사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한다. 일곱 명의 경쟁자가 있어 6개월의 연수기간 후 한 명 발탁되는 정식사원에 뽑히기 위해 거의 매일 날밤을 새며 일한다. 급기야는 호모인 부장에게 사우나에서 몸을 바치는 상황에까지 처한다.

김애란의 단편 '기도'의 주인공은 화장품 회사의 홍보부에서 일하다 실수를 저질러 자의 반타의 반으로 사표를 썼다. 그 후 공사와 공무원 시험에서 연달아 낙방하며 영어과외, 눈술 침삭 등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간다.

청년 의식 사라지고 무한 생존투쟁

이들 작품 속 인물들의 공통된 정서는 쉽게 체념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니기에 체념할 이유가 없고, 사회적 약자가 되도록 만든 체제에 분노해봤자 쉽사리 체제가 변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분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거대 담론이나 청년 의식이 사라진 지금 그 자리를 메꾼 것은 생존을 위한 무한투쟁이다. '스펙'이란 단어를 모른다면 당신은 기성세대일 확률이 높다. 스펀이 아니라 스펙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질보다 일단 양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정작 스펙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스펙이 싸구려 음식으로 취급받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스펙도 한국 젊은이들에게만 통용된다. 스펙은 취업시장에서 화폐와 같은 교환가치의 위력을 지닌다. 소위 빵빵한 스펙은 좋은 직장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어버렸다. 스펙을 위해 대학생들은 토익, 학점, 각종 콘테스트에 목숨을 건다.

이전 같으면 사회과학 서적에 탐닉했겠지만 생존이 절박한 이들에게 마르크스니 베버니 하는 책

들은 사치다. 서점에는 20대를 겨냥한 각종 실용서적이 판을 친다. <부자는 20대에 결정된다>, <20대에 모든 인생의 승부가 결정난다>, <대한민국 20대, 펀드 투자에 미쳐라>. 이쯤 되면 전쟁이다. 20대 때부터 낙오되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매달리지 않고서는, 미치지 않고서는 안정된 생활을 꿈꿀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캠퍼스에서 1학년 때부터 학점관리에 신경 쓰는 대학생들도 많아졌다. 입학하자마자 아예 고시 공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학과도 경영학과 같이 취업에 유리할 것 같은 학과가 인기를 끌고 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하는 학과들은 신입생을 유치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IMF 이전, 대학 4학년 선배들이 술을 마시다가 시험공부 하러 간다는 친구의 머리를 탁 치며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냥 은행이나 가”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먼 옛날 설화처럼 전해온다.

10여년 전 인터넷이 등장하고 채팅사이트가 큰 인기를 끌었다. 얼굴을 모르는 낯선 이와 대화하고 교감하는 데 열중하고 환호했다. 이제 채팅사이트는 시들하다. 대신 '사이월드'와 같이 얼굴을 아는 지인들과의 교류를 중시하는, 즉 인맥을 관리하는 개념의 사이트가 대세가 됐다. 사회가 삭막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낯선 이를 새롭게 사귀기보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힘을 쏟는, 끼리끼리 문화가 널리 퍼졌다는 말 일 게다.

생존에 허덕이는 20대의 고민을 기성세대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컴퓨터를 잘 다루고 이기적이며 인내심 없는 아이들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야심도 없고 패기도 없다' 라며 이들을 깎아내리는 건 오만한 생각이라. 20대의 희망을 찾는 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청년의 에너지가 밖으로 불타오르지 못하고 가슴 속 억울한 심정으로 찌들어 새까만 채로 남아서는 안 된다.

스펙이란?

취업 준비생들이 출신 학교와 학점, 토익 점수와 자격증 소지 여부, 그리고 해외 연수나 인턴 경험 유무 등을 종합해 부르는 말. 대학 시절 동안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의 총체.

글 김준범 나라경제기자



최근 한국에 있는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얘기였지만 나름대로 한국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서울의 모습은 색달랐다.

‘한국형 노동모델’로 20대 숨통 튀워라

특히 일본 기자들은 한국의 최근 변화에 대해 서 같은 현상을 겪고 있다는 동질성과 함께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일본의 변화와 한국의 변화가 결합되면 동북아에 거대한 극우 파블록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일본 기자들이 동시에 지적한 부분이었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겪고 있는 20대 노동의 비정규직화, 즉 ‘20대 삶의 파편화’는 단순한 국내 경제의 일시적 문제를 넘어 지역 정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근본적이고도 뿌리 깊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생활에 새롭게 진출하는 20대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는 것은 스웨덴이나 스위스와 같이 4만달러를 넘어선 일부 유럽 모델을 제외하면 선진국 내에서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정도와 깊이, 특히 속도 차이가 비교를 불허하는 지경이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유럽이나 일본이 나름대로 이 문제를 제어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한다면, 한국이 얼마나 국민경제의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제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줄져 ‘88만원 세대’를 출간한 이후에 짧은 기간 중에도 중대한 변화들이 생겨났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편의점과 같은 소위 ‘알바 시장’에 대한 외국인 개방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편의상 노동시장을 A시장, B시장, C시장으로 구분한다면 일본 노동시장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A노동시장은 우리가 소위 ‘우아한 직업(decent job)’이라고 부르는 정규직 노동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C시장은 우리가 흔히 3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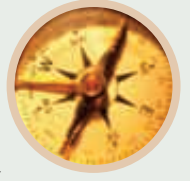
업종이라고 부르는 중소기업에서 ‘블루 칼라’를 이하는 일로, 일본에서는 특히 이런 직종에는 외국인들이 투입된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와 기본 구조가 많이 다르지 않은데 B시장이라고 부르는, 약간 특수한 분류를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다. 내국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 알바 같은 것들이 이 분류에 해당하는데, 억지로 기준을 찾자면 ‘내국인용 서비스 업종’과 같은 분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규직 70% 수준의 프리터 시장형성

일본의 경우, 직접 일본인을 접대해야 하는 노동에는 내국인들을 고용하고, 이러한 분야에서는 그 유명한 ‘프리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경제적 조건을 만들어내는 정규직 70% 수준의 ‘질 좋은 알바’ 시장이 형성된다. 한마디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일본 국민들은 비정규직 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셈이다. 물론 이런 시장 구조가 일본이라고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편의점 알바 시장을 허용하면, 국내의 알바 시장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들에게 잠식당할 것이다.





라는 보장은 없고, 동시에 이 같은 외국인과 자국 청소년 노동 사이의 분할 균형 상황이 최선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사실상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시장인 C시장과 분할된 별도의 B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편의점 알바 등에 대해 외국인이 개방되면, 일종의 ‘비공식 노동과정’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열악했던 국내의 알바 시장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들에게 잠식당하게 될 것이다. 비록 노동으로서의 질은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미약하게나마 열려 있던 이런 노동의 마지막 안전판이 닫히고 나면 한국 사회 그리고 그 속의 20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찔하지 않은가?

유럽 사회에서 현대적 의미의 극우파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90년대 초중반, 20대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와의 본격적인 경쟁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한 이후의 일인데, 당시 동구의 붕괴와 함께 쏟아져 들어온 동구 난민들과 함께 유럽에서도 극우파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현대적 극우파의 등장은 한국 사회에서도 아주 먼 시기의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든 일단 발생하면 매우 빠른 역동성을 가지게 되는 한국의 특성상 20대를 둘러싼 노동과정의 재구성에 대해서 한국 경제학자들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경제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현재의 노동담론은 약간 무책임하다. 잠재성장률이 5% 가까이 운용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불거진 이 문제가 성장률을 억지로 1~2% 높인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는 아니다. 게다가 건설업을 중심으로 케인즈식 경기부양을 한다고 해도, 이미 건설 현장에는 60%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로 전환된 현 상황에서 20대 노동의 문제가 해소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88만원 세대’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과정은 물론 수출 위주로 구성된 현재의 산업구조에 이르기까지, 본문에 기술한 것보다 많은 고민을 했다. 내가 내린 잠정적 결론은 기계적인 성장론보다 한국경제의 근본 체질에 관련된 고민들이 있

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나에게 답을 내 보라면, 결국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면서 소위 A시장의 비율을 높이고 이때 주로 정규직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숙련도’의 향상으로 생산성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한 가지 장치와 중소기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경제정책과 연결시키는 장치들을 통해서 ‘한국형 노동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동과정’을 디자인하겠다.

한국경제 근본 체질 고민 있어야

‘일자리 나누기’라는 방식은,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연결될 때 비로소 효율적인 장치가 되는데, 20대의 노동과정에 대한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있을 때 이런 정책들이 작동할 공간이 생겨날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한 번에 새로운 모델이 정착되는 일은 없고, 많은 시행착오와 시범사업들을 거쳐서 결국 자리를 잡게 된다. A시장에 해당하는 정규직과 B시장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및 알바 시장 사이에 여러 형태의 노동과정과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결국에는 폭발 직전의 20대 노동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 한국 경제에 던져진 가장 큰 과제이다.

2007년 비정규직으로 출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5~6% 정도의 비율이다. 두 개의 노동 시장은 이미 한국에서도 확연히 분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법이 필요한데, 기존에 노동경제학에서 사용하던 단순한 임금 위주의 모델만으로는 좋은 사회적 해법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보인다.

21세기 한국, 우리는 기존 모델로 찾기 어려운 전혀 새로운 문제에 부딪힌 상황이다. 상상력과 대화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면 너무 무책임한 말일까? 그러나 지금의 20대의 노동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의 폐해가 장기적으로 너무 명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글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honortomeadows@gmail.com

20대, 희망의 나침반을 찾아라 - 세대갈등

세대 갈등은 세대 내 갈등과 세대 간 갈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세대 갈등이라고 하면 보통 세대간 갈등을 가리킨다.

세대는 쉽게 말해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이며, 예로부터 30년을 기준으로 세대를 나눴다.

세대 갈등 속에서 희망은 자란다

그러나 '30년'이라는 기준은 이제는 너무나 길다. 사실 '30년'을 '비슷한 연령층'으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도대체 어떻게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의 세대라는 사회적 단위로 묶을 수 있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세대의 사회적 차원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은 단순히 생물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생물적 능력의 변화와 사회적 경험의 변화를 동시에 겪는다. 따라서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은 생물적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 많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감하기 쉬운 상태에 있게 된다. 변화의 속도가 느린 사회에서는 '30년'이 세대의 기준일 수 있다. 이는 대체로 아기가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시간이다.

변화의 속도가 느린 사회에서 세대는 크게 자식세대, 부모세대, 노인세대의 세 세대로 나뉜다. 그러나 변화의 단계가 계층적으로 제도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현대 사회에서 세대는 크게 유년·소년·청년·장년·노년 등 다섯 세대로 나뉘며, 나이가 고령화에 따라 노년도 고령(65세 이상)과 초고령(80세 이상)으로 나뉜다. 이젠 10대라고 해서 다 같은 10대가 아니며, 노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노인이 아니다. 사실 고령화 사회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노인으로 살아가는 희한한 사회이다.

또한 한 세대 안에서도 특별한 사건이나 정책을 경험한 특정 인구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세대와는 분명히 다른 이러한 특정 인구집단에 대해서도 언론이나 기업에서 흔히 '00세대'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세대 개념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었다. 보릿고개세대, 박정희세대, 통기타세대, 청년문화세대, 긴급조치세대, 광주항쟁세대, 6월항쟁

세대, 386세대, 서태지세대, 월드컵세대, 촛불시위세대, 88만원세대 등이 그것이다. 사실 '00세대'는 무수히 많다.

무엇보다 기업이 판촉전략으로 쉽게 온갖 '00세대'를 생산하고 있다. 세대는 나이를 기준으로 나눈 인구집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대의 단계를 차례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대단히 복잡한 생물적·사회적 변화의 경험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별한 경험의 기억은 다소 변할지라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

따라서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특정 인구집단은 나이가 들어서 세대가 바뀌더라도 계속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예전의 젊은 서태지세대가 오늘의 늙은 서태지세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대 갈등은 고대에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고대 이집트의 문서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한탄하는 노인의 글이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세대 갈등을 특별한 문제로 다루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그것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현상에 더 가깝다. 왜 그런가?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생물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대체로 청년일수록 강하고 노년일수록 약하다. 이러한 생물적 차이가 바로 세대 갈등의 원천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생물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변화도 경험한다.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대체로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자식이 부모가 되는 것은 그 대표적 예이다. 피



한국에서 세대 갈등이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02년의 16대 대선 직후였다. 당시 50대 이상 장·노년층에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면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다.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과 대학생들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



할 수 없는 생물적 약화와 함께 이러한 사회적 경험의 차이가 부모를 자식보다 부드럽고 너그럽게 만든다. 그렇지만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부모가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자식을 이해하기가 크게 어려워진다. 제임스 딘이 주연한 '이유없는 반항'(1955년) 같은 영화가 만들어진 것은 이 때문이었다.



세대 갈등은 흔히 사회 문제로 다루어진다. 아니, 사실 갈등 자체를 문제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갈등은 문제 이전에 앞서 현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어떤 현상을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문제는 부정적 현상이자 심지어 치유해야 할 잘못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

문제는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식이다. 갈등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여기는 곳에서는 문제가 걸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도 사람도 속으로 병들어서 결국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에서 세대 갈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02년의 16대 대선 직후였다. 당시 50대 이상 장노년층에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면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다. 이 현상을 두고 일부에서 청년층을 극렬하게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을 격렬히 조장하고자 했다.

심지어 자식이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식의 주장까지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여러 생물적·사회적 이유로 세대 사이에 투표성향이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세대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잘못된 해석으로 세

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더욱 더 큰 잘못이다.

세대 갈등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일반적으로 매도될 현상도 아니다. 오히려 세대 갈등은 사회발전의 원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장년층 이상은 그 생물적·사회적 상황에서 보수적이지만, 이에 비해 청년층 이하는 자유롭고 강건하기 때문에 진취적이다.

20대의 순응, 사회 정체로 이어질 위험

청년층 이하기가 순응적이기만 하다면 사회발전의 전망이 밝을 리 없다. 청년층은 장노년층이 당연하게 여기는 기성질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해명하고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컨대 청년층이 투기와 부패의 기성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피해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결국 장·노년층에게도 돌아가게 된다.

지금의 20대는 무한경쟁의 뒷에 걸려서 너무나 순응적이고 수동적으로 되었다고 한다. 세대 갈등을 조장해서 청년층을 길들이고 싶어했던 일부 장·노년 기득권 세력은 이 상태에 크게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20대의 순응은 사회의 정체로 이어질 위험을 크게 안고 있다. 20대가 그 세대에 걸맞은 진취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사회를 적극 개혁해야 한다.

20대를 무한경쟁의 뒷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20대의 해방은 이 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한 핵심적 요청이다. 우리는 고성장과 민주화의 성과위에서 '생태적 복지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20대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보수화해서는 안 된다. 20대가 투기와 부패의 기성질서에 순응한다면, 이 사회는 참담한 난민사회가 되거나 붕괴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20대는 '진정한 선진화'를 주도할 주체로 자신을 정립해야 한다. 기성질서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20대가 촉발하는 세대 갈등 속에서 희망이 자란다.

글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rayhope@chol.com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다.

현상을 기뻐하는 데 동원되는 수사로서의 쓰임새를 벗어나 이젠 그 자체로 하나의 대명사가 되기에 이르렀다.

하수상한 시절이다 보니 이젠 거의 선전 문구처럼 느껴질 정도로 입맛이 낡고 닳은 것도 사실이다.

잃어버린 20대의 목소리를 찾아라

대 선주자들은 왼쪽과 오른쪽, CEO 출신과 정치인 출신, 아이큐 430을 가리지 않고 저마다 ‘88만원 세대’,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라는 단어를 입에 물어 자기 이야기를 하는 데 바빴다. 야당은 88만원 세대를 만들어낸 주체로 잃어버린 10 운운하며 여당을 겁박했고, 여당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첩병, IMF 경제사범의 혐의를 들어 야당을 공격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의제다. 그것이 매력적인 이유는, 거기 드러마가 있기 때문이다. 사연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데 그 원인과 배경이 문자로 설명되는 해소감마저 갖췄다. 울림이 없을 리 없다. 세대를 둘러싼 공기가 그저 현상으로만 존재했을 때와는 달리, 88만원 세대라는 이름이 붙여지자마자 갈지자 사방팔방에서 예상치 못한 위로와 박수가 쏟아졌다.

그 시선의 대부분이 뜨겁다. 불타오른다. 하지만 그저 뜨겁기만 해서 문제다. 정의와 도덕의 대의명분 안에서 촛불을 쳐들 뿐, 도무지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 솔하게 많은 말 속에서 20대는 그저 완벽한 연민의 대상일 뿐이다. 나와 다른 저들이고 그들이고 타자일 뿐이다.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개인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장황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과 논거로서 88만원 세대를 가져온다. 앞서 언급한 정치인들과 다를 게 없다. 그렇다면 이 의제 안에서 가장 주체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야 할 20대는 어떨까. 아니나 다를까 요즘 말로 ‘안습’(편집자 주: ‘안구에 습기, 즉 눈물을 말함’)이다. 88만원 세대라는 말 안에 묶일 수 있는 건 IMF와 함께 대학에 진학한 지금의 30대 초반까지다. 그 대다수가 88만원 세대라는 말 앞에 또 다른 자기연민을 느끼고 있다.

끝없는 좌절과 절망에 직면한다. 저자는 남탓이라도 할 수 있는 배짱과 용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내 탓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회 탓이라니, 이제는 더 막막하단다. 차라리 내 등의 짝이라면 죽어라 영어공부라도 하겠는데, 구조 문제를 내가 어찌할 수 있느냐는 소리다.

그에 대해 저자는 “20대여, 짱돌을 들라”고 했다. 20대 귀에는 그저 구호로만 들린다. 그 짱돌이 어디서 파는 얼마짜리 아무개인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사실 그 짱돌은 어디서 팔거나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저항하라는 이야기다. 저항이 꼭 눈에 보이는 바리케이드를 쌓고 피를 두르고 울대 세워 소리 질러야 가능한 건 아니다.

88만원 세대에 위로와 박수 쏟아져

연대가 어려운 게 아니다. 연대라는 말이 케케묵어 보이고 죽은 언어 같으면 아예 안 쓰면 된다. 요는, 구조에 저항할 수 있는 코드 아래 동세대가 공히 모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그렇게 세대의 목소리를 찾고 힘을 싣고 주체성을 갖춰야 한다는 거다. 아무도 우습게 볼 수 없이 말이다.

역시 구호로만 들릴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동세대가 모일 수 있는 코드’라는 게 대단치 않다. 가까이에 있다. 요컨대, 해법은 대중문화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부러 의식을 갖고 대의명분을 점유하고 서슬 퍼런 구호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찾아가 모일 수 있는 코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중문화 안에서 20대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실 88만원 세대에는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게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하다. 시장 안에서 20대는 단지 거대하고 기계적인 소비 집단일 뿐이다. 집중된 자본이 추천하고 유행시킨 상품을 적극



사진은 세대의 언어로 세대의 이야기를 전한 독립영화 윤성호 감독의 <은하해방전선>



공멸을 의미한다. 88만원 세대가 소비 시장에서 주체성을 되찾고, 나아가 사회에서 존재감을 얻으려면 세대를 관통하는 언어와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구심으로 (전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이른바 세대의식을 형성해야 한다.

다시, 출발은 대중문화다. 88만원 세대를 연민의 대상으로, 그리고 상위 5%를 위한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건 신자유주의 거대자본의 무한경쟁 이데올로기다. 그렇다면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중문화 코드 아래 모이는 행동이야말로 매우 통쾌한 저항의 방식이 될 수 있다.

그같은 맥락 위에서 독립영화는 꽤 흥미로운 선택이다. 최근 개봉한 양해훈 감독의 <저수지에서 걷진 치타>와 윤성호 감독의 <은하해방전선>은 공히 세대의 언어로 세대의 이야기를 전한 독립영화다.

당장 취업하기 바빠 죽겠는데

많은 독립영화가 세대를 다루고 있다. 자유롭게 세대를 표현하는 이들 영화의 강점을 기능케 한 건 그 팔 할이 독립영화라는 정체성, 거대 자본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맥락에서 기인한다.

대다수 관객들이 독립영화·인디영화·독립자본 등의 언어를 ‘재미없는 것’ ‘어려운 것’ 과 등가로 싸잡아 인식한다. 하지만 한국의 독립영화는 이미 ‘봐줘야 하는’ 굴레를 벗어 던진 지 오래다. 요즘 봐줘야 하는 영화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당위성만 가지고 무얼 유혹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영화들은 재미나 만들새 면에서 웬만한 충무로 상업영화를 뛰어넘는다. 이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88만원 세대는 ‘세대에 의한 세대의 이야기’ 를 보는 것, 그리고 ‘거대자본에 대한 저항’ 이라는 의식을 점유할 수 있는 거다. 20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짝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거기부터 시작이다.

적으로 구매하는, 다루기 쉬운 그룹이다. 좀 더 많은 스크린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구찌백을 사 챙겨 들어야 직성이 풀린다.

그걸 문화생활이라고 부른다. 주체성을 가진 20대의 존재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실종됐다. 이유가 있다. 세대를 관통하는 자신들만의 언어가 없고 패션이 없고 이야기가 없고, 그것이 간혹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관심과 애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진’ 거다. 기껏해야 전 세대를 흉내낼 뿐이다. 그 흉내가 정교할수록 세련됐다는 상찬을 듣는다. 그러는 동안 TV와 영화와 문학에선 20대가 사라졌다.

물론 20대 배우와 가수와 캐릭터는 넘쳐난다. 하지만 조금도 20대 같지 않다. 그저 모든 기성매체가 그들의 젊고 땀방한 몸뚱이를 전시하고 팔아치우는 데 열중해 있다. 이 역시 근본적으로 88만원 세대의 화두에서 비롯된 문제다. 전 세대의 언어와 규율과 법칙, 그리고 그들이 구축해놓은 세계의 풍경이 인류의 숙명적 굴레인 양 알아서 받아들이고 다라쥐 쳇바퀴 속으로 압전히 들어가 버린 탓이다.

해법은 가장 깊은 좌절감의 근원, 즉 ‘동세대의 언어로 만들어진 동세대의 이야기가 없다’ 는 데서 출발돼야 마땅하다. 왜 없는지는 알겠다. 아무도 20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취업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야기는 무슨. 그래서 자신들만의 언어를 개발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어가 없으면 이 세대는 영원히 목소리를 찾기 힘들다. 그건 이 사회의

세련된 외모, 착한 몸매, 번듯한 커리어의 골드미스는 어느새 잘 나가는 젊은 여성의 전형이 되어가는 듯하다. 미디어의 과장일 수 있겠으나 아이들 뒷바라지에, 남편의 외도 걱정,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자아를 잃어가는 비운의 주부보다는 화려한 커리어 우먼이 훨씬 자유롭고 멋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결혼? 에이~ 서둘 거 뭐 있나

그렇다고 해서 골드미스들이 계속 싱글로 남아있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 흔한 드라마 스토리를 보면, 꽃미남이면서도 탄탄한 근육을 지녔고, 능력이 출중한 사업가이면서도 시간 많은, 터프하면서도 자상한 현대판 왕자님이 어느샌가 나타나 이들 골드미스를 구원해 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대하기 때문일까.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24.6세에서 2005년 27.9세로 늦어졌다. 40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도 전체 여성의 10%에 육박한다. 결혼을 했다가도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싱글 상태가 되는 '돌싱(돌아온 싱글)'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 1천명당 결혼 건수를 나타내는 혼인율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줄었다. 쌍춘년을 이유로 일시적인 결혼 러시가 있기도 했지만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려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계조사에 의하면 20~30대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고 미루는 이유로 '싱글로서 화려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와 '결혼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싱글 친구들과끼리 화려하게 연말파티를 즐길 수 있는 호텔의 마케팅 전략이 성공하고, '당신도 상류층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내세우는 결혼정보회사의 사업은 어느 때보다도 성업 중이다. 이러한 예를 보면 위의 두 가지 이유가 결혼을 미루는 현상에 대해 신빙성 있는 답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사회현상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 경제학은 '사랑'과 '편익'을 결혼의 주요 요소로 꼽는다. 여기서 두 남녀간의 '사랑'은 커플의 궁합(match quality)과 같이 확률에 좌우되는 것이다. 두 사람의 만남이 찌릿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국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운명이란 말이다. 과거나 현재나 '사랑'이라는 화학적 반응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를 혼인율 감소의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못난 놈 만나니 혼자 사는 게 낫지”

결혼의 '편익'은 혼인율 감소에 대해 좀더 경제학다운 설명을 제시한다. 결혼도 다른 경제적 선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주식투자에 대한 편익을 계산한다고 하자. 주가가 오를 가능성으로 인한 미래가치, 같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두었을 때의 이윤, 현재 주식에 투자할 때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결혼이 주는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혼한 후에 얻게 될 효용,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로 남았을 때의 효용, 결혼을 위한 비용 등을 알아야 한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게리 베커(Gary Becker)는 결혼 후에 얻게 될 효용을 설명하기 위해 결혼이 교역(trade)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각 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에 특화해 거래하면 모두가 이익을 얻듯이 비교우위가 다른 여성과 남성이 만나 서로 잘하는 일에 특화하면 양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집안일 하는데 전념하고 남성은 돈을 벌어가족을 부양하면 결혼이 주는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설명이다.



화려한 커리어 우먼이 선행의 대상이 되면서 결혼을 미루는 골드미스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베커의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점이 많은 남녀가 혼인하면 특화와 교환에 따르는 편익이 증가해 결혼 생활에서 더 많은 행복감을 얻게 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고학력의 능력 있는 여성이 많아져 사회적 관습과 통념이 기대하는 남녀의 역할이 비교우위와 다르거나 남녀의 비교우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이 주는 효용은 불분명하다.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과 같이 시장을 통해 혹은 세탁기·청소기 등 가전제품의 기술 발달에 의해 가사부담이 줄어 경제활동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집안일과 바깥일로 양분해 비교우위와 특화를 논하는 것은 예전과 같은 의미를 갖기도 어렵다. 결국 예전에 비해 결혼이 주는 효용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싱글로 남아 있을 때의 효용은 어떠할까. 20대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싱글로 남아 있을 때의 효용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25~29세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991년 92%에서 2005년 81%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일한 연령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991년 43%에서 2005년 66%로 급증했다. 남성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도 이 기간 동안 56%에서 66%로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로 미루어 짐작컨대 여성 혼자서 자신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쉬워졌으며, 괜히 못난 남자와 결혼하는 것보다는 싱글로 남아있는 것이 과거보다는 더 유리해 보인다.

게다가 상당수의 20대가 싱글로 남아 동료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시각도 바뀌고 있다. 그 결과 현재의 20대는 예전만큼 결혼하라는 압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겨냥한 각종 문화·레저·여행상품 등의 혜택으로 즐거운 생활이 가능하니, '화려한 싱글'이라는 말이 요즘의 20대보다 더 잘 어울리는 때가 없었던 듯하다.

마지막으로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결혼을 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고려해 보자. 이러한 비용은 단순히 결혼식 자체에 필요한 비용이나 예단·혼수 등의 비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당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 지불해야 할 시간적·물리적 비용을 모두 포괄한다.



결혼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적당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결혼할 만한' 사람을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다. 만약 여성이 자신과 비교하여 적어도 비슷한 소득이거나 더 높은 소득을 가진 남성만을 '결혼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면, 여성 소득 수준의 향상은 그만큼 '결혼할 만한' 배우자 후보의 수를 줄여 혼인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일과 가정 양립할 환경 마련돼야

실제로 한 연구는 결혼할 만한 배우자 후보가 많은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각 여성이 속한 결혼시장에서 만나게 될 취업 남성의 수를 고려했다. 즉 여성이 비슷한 교육 수준을 지니며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배우자를 고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육 수준 및 지역별로 여성 한 명당 취업남성의 수를 계산해서 분석한 결과 취업남성의 수가 적을수록 혼인율이 낮음을 발견했다.

위의 모든 요인을 고려해도 결혼이 주는 수익률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다만 확실한 것은 결혼의 수익률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싱글로서 화려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한 응답은 높아진 경제력과 싱글이 주는 효용에 비해 결혼이 주는 편익이 과거만큼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결혼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라는 응답은 결혼이 주는 편익이 싱글로 남아 있는 편익을 초과할 만큼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만한 배우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전통적 가치를 존중할 줄 모르는, 눈 높아진' 젊은 여성의 문제라기보다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향상되고, 자녀 양육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만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결혼 건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계속될 것 같다.

글 조윤영 KDI 연구위원
yooncho2000@kdi.re.kr

20대, 희망의 나침반을 찾아라

2002년 대학 원서를 쓸 때 일이다.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 분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은행원으로 일하다 IMF 당시 직장을 잃으신 이 분은 대학 원서 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내 말에 '무조건 교대'를 주장하셨다.

대한민국 20대는 안정만을 추구하는가

여자 직업으로 그만한 게 없다는 것이다. 야근이 없어 여가 시간 많고, 방학도 있고, 무엇보다 '잘릴' 걱정이 없으니 좋다고 하셨다.

어머니의 친구 분은 물론 당신의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충고를 들려주시는 것이겠지만, 당시 나는 그 충고가 무척 싫었다. 오로지 안정을 위해 야망과 꿈을 모두 저버리고 마음에도 없는 직장을 택하라는 말로 들렸다. 당시 내 주위에는 교대에 갈 것을 결심한 친구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녀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 내 눈에 그 친구는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지닌 친구였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는 그 친구의 적성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최근에 한 살 위의 남자 선배들이 군대에 다녀와서 무엇을 하나 알아보았더니, 경영학 전공자에서 공학 전공자에 이르기까지 전공을 막론하고 대다수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5년 전 어머니의 친구가 나에게 그토록 강조하시던 '안정'을 위해서 말이다. 고시를 준비하는 한 선배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하시는 아버지의 말을 인용했다. 선배의 아버지는 당신은 정말 운이 좋아오 늘까지 기업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아들인 네게도 그런 운이 따를지는 알 수 없으니 공무원이 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다고 한다.

20대는 왜 다들 이렇게 겁이 많은 존재가 되어버렸을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꿈 많은 스무 살 나이에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하는 '직업학교' (친구는 교대를 이렇게 불렀다)를 선택하게 만들고, 혹은 다시 4년이 지나 사회에 진출할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만든 것일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20대들의 안정지향적 선택의 책임이 그들 자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0대는 IMF 한

파를 몸으로 겪은 부모님 세대에게서 늘 '안정적인 직업'의 중요성을 강조받고 자랐다. 내게 교대에 원서 쓸 것을 권유하던 어머니의 친구, 똑똑한 딸을 교대에 보내신 친구의 부모님, 공무원 시험을 권유하시던 선배의 아버님 등. 결국 오늘날 20대의 순응적인 모습은 20대 자신과 그들 부모님 세대의 합작인 셈이다.

며칠 전 나에게 교대 입학에 권유하셨던 어머니 친구 분이 다시 전화를 하셨다. 대학 입학 후 곧 학업을 그만 두고 3년 동안 세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그분 딸이 드디어 합격을 했다는 통보였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아직도 구직자인 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는 아무렇지 않다.

곧 원하는 직장에 취업해서 내 포부를 펼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안정을 좇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말이다. 만약 이 글을 읽는 기성세대가 나의 이런 희망이 근거없는 것이라 비난하고 싶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20대의 순응적인 태도와 나태함에 대해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 기성세대여, 20대에게 '안정'의 가치만을 내세우지 말라. 희망이 있다고 격려해 달라.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20대 젊은층이 늘어나면서 최근 공무원 시험 접수창구에는 수많은 지원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글 김다혜 연세대 국문과 4학년
luikilan@hotmail.com

“한참 전에 전부 마감 됐죠” 직원은 한심하다는 투로 딱딱하게 대답한다. 방학 중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려고 나름대로 부지런을 떨어서 일주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건만. 다시 한번 나의 게으름을 한탄해야 할 상황이다.

삶의 목적은 ‘행복’ 아닙니까?

같이 알아보던 여자 후배 역시 한숨을 쉰다. “와, 진짜 너무들 빠르네. 웬지 억울하다” 그렇다. 나 역시 억울한 기분이 든다. “야. 성격 느긋한 게 잘못도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찌 살라는 거야. 헐헐 위로랍시고 농담처럼 맞장구쳐 보지만 말은 가벼워도 마음은 무겁다. 지금이 순간의 일이 어떤 상징처럼 느껴진다. 잘못된 건 없다. 다들 필사적이니까. 더 필사적인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는 것이 공평하다. 하지만 그 필사적인 모습이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내 보기엔 모두들 숨이 차 보인다. 그나마 이런 생각은 20대 초·중반을 겁도 없이 털어버리게 살아왔던 나니까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학점, 자격증, 영어공부에 신경 쓰는 대신에 난 흥미가 느껴지는 분야의 책들을 읽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스트리트 미술 동영상에 감탄해서 미술 자료를 모으고 연습하고, 흑인 음악동아리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나아가 진짜 뮤지션이 되기를 꿈꿨다. 음악을 연구하고 시를 공부하고, 언더그라운드 무대에 서면서 대학 생활의 반 이상을 보냈다.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무조건 얌전히 공부해야 했던 중·고등학교 시절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 그 시절을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는데 바치는 게 옳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늦게나마 내가 평생 매달려도 좋을 일을 찾고 싶었다.

미래를 위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스펙’들을 키우려고 착실히 노력하던 친구들은 그런 날더러 부럽다는 듯 “넌 피터팬이니까”라고 말하곤 했다. 그렇지만 그 말안에는 “너 어떻게 먹고살래?”라는 걱정이나 “철 좀 들어라”라는 충고가 엉성하게 숨

겨져 있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이제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나는 과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력서는 빈칸 투성이다. 모두가 필사적인 이 상황에서는 남보다 한층 더 노력한다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 난 내 시간을 잘못 보낸 걸까.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난 우리 모두가 일정기간 나와 같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전략적이진 않더라도 그게 더 자연스럽고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말은, 내일을 위해 지금 전략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곤란해진다는 위협을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20대라는 시기는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모색할 때다. 감수성의 절대치를 동원해 문화와 세상을 감각하기에 가장 알맞은 때다.

토익, 자격증, 전공서적 등에 문혀 이 때를 놓쳐 버리면, 나중에 그걸 따라잡는 게 오히려 훨씬 손해보는 일 아닐까. 취업으로 상징되는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는 괴물과 싸울 때 우리를 숫자로 증명해주는 스펙들은 일시적 무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힘이 있다. 그 힘이 결국은 삶에 더 큰 승리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살아가는 근본 목적이 ‘취직’이 아니라 ‘행복’이라면!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대학 재학시절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연세대 힙합 동아리.

글 김광일 중앙대 일문과 4학년

필자 소개

학교내 흑인 음악동아리 DA-C SIDE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언더그라운드 힙합 그룹인 'MONSTER IN THE CITY'의 리더이다. 최근 제9회 금호타이어 광고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리비아, 인프라 구축에 팔 걷어붙였다

2009년 혁명 40주년 앞두고 트리폴리 신 공항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추진



외국 기업들이 리비아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리비아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리비아 정부는 오는 2009년 혁명 40주년에 맞춰 트리폴리 신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트리폴리 시내 전경.

리비아의 사회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2006년 80억달러에 달했던 리비아 정부의 개발투자 예산은 지난해 외환보유고 증가에 힘입어 120억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리비아의 외환보유고는 6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금액은 리비아의 5년간 수입액과 맞먹는다.

리비아 정부는 막대한 석유가스 수입원을 앞세워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를 대거 추진하고 있다. 2009년 9월 1일은 리비아 혁명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리비아는 이러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리비아 혁명 40주년에 맞춰 주요 프로젝트 추진을 완공해 달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가 트리폴리 국제공항 건설이다.

트리폴리 신 공항은 활주로 건설에만 3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총 14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9백만 명의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트리폴리 신 공항 건설에는 프랑스 Vinci, 브라질 Odebrecht, 터키 TAV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트리폴리 시내 모습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중이다. 주요 지역에는 잔디녹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규 공원 조성계획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이 잔디녹화 사업으로 시내는 종전의 황량한 모습은 사라지고 시 전체가 녹색화 되고 있다. 남은 건

물도 절거되고 주요 간선도로가 보수되거나 새로 건설되고 있다. 은행에서는 개인주택 건축에 저리로 용자를 제공하고 있어 3년 전부터는 주택 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수입 자유화, 낮은 관세 등에 힘입어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제의 활성화에는 많은 양의 전기가 소비되는데, 리비아 정부는 전기수요 증가에 대비해 발전소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두 개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미수라타 발전소는 우리나라의 대우건설이 수주하여 추진 중이고, 트리폴리 서부발전소 건설에도 우리 기업의 추가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전화선 확장 공사 역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7,000km에 달하는 광케이블 부설 프로젝트도 힘차게 추진 중에 있다. 프랑스·미국 합작회사 Alcatel Lucent와 이태리 Sirti사가 수주하여 진행 중인데, 소요 예산이 2억 2,4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외에도 3개 담수화공장 건설을 프랑스 Sidem 그룹이 3억 2,200만 달러에 공사를 수주하여 추진 중이며, 방산분야 현대화 프로젝트도 4억 2,000만 달러를 들여 유럽 EADS사와 추진하고 있다.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적극 추진에 따라 국제적 컨설팅 회사의 리비아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석유 분야에 Cera, 담수 분야에 Booz Allen Hamilton과 Monitor 그룹의 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Monitor 그룹은 리

이는 리비아가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경영기법과 노하우 전수, 숙련공 육성 등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0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사르코지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손가락으로 기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리비아신 경제전략' 추진을 위해 트리폴리 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했으며, 지난해 2월 리비아 개혁을 이끌고 있는 리비아 경제개발 위원회(Libyan Economic Development Board) 창설에도 참여하였다. 이러한 영미계 컨설턴트 회사의 리비아 진출 외에도 미국·영국 기업의 석유가스 분야 참여가 크게 눈에 띄고 있다.

지난해 4월 미국 Dow Chemical사는 리비아 석유공사와 1억 달러에 달하는 Ras Lanouf 석유화학 단지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 Colony Capital 투자회사는 리비아 정부 소유의 석유 유통회사 Tamoil사를 54억 달러에 매입하기도 하였다. 특히 33년간 리비아 석유가스 시장을 떠나있던 영국 BP사는 지난해 6월 두 개의 석유광구 개발권을 획득하여 리비아 시장에 다시 진출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리비아의 석유가스 분야에 외국인 투자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리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제4차국제

광구 입찰에 35개사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조만간 최종 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4차 국제광구 입찰은 시장 개방 후 리비아 정부가 가스전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최초 국제광구 입찰이다.

리비아는 은행 민영화 작업도 추진 중이다. 프랑스 BNP Parisbas 은행은 2억 달러를 투자하여 리비아 Sahara Bank 주식을 19%나 취득하였으며, 경영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Sahara Bank는 리비아의 대표적인 은행으로 금융 분야 시장 점유율은 대부에서 17%, 예금에서 22%를 차지하고 있다. Sahara Bank의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Sahara Bank와 BNP Parisbas의 거래는 리비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정책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리비아의 은행들은 국가 통제 하에 있으며 경영이 후진적이어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리비아 정부는 1993년에 민간은행 설립을 허용한데 이어 2005년 1월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국은행의 리비아 영업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 중이다. 리비아 은행의 개혁은 자

본시장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신규 사업에 대한 대부 촉진을 통한 리비아 기업 정신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분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들어 리비아의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한 분야는 발전소, 주택건설 등이며, 수주한 금액은 3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향후 호텔, 발전소, 담수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리비아 정부는 2011년까지 주택, 도로 건설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총 4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 투자 금액을 보면 주택 건설에 130억 달러, 사회 인프라 구축에 105억 달러, 낙후 지역 개발에 38억 달러, 그리고 교육 훈련에 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호텔 건설, 시멘트 제조, 제철,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우리 기업의 유망 진출 분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주택 건설, 전력, 상수도 공사 등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할 외국 기업들은 반드시 리비아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리비아 시장 진출 시에는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리비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외국인과의 협업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 기법과 노하우 전수, 숙련공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선근
KOTRA 트리폴리 무역관장
184222@kotra.or.kr

직업, 넌 누구니?

청소년 위한 '행복한' 경제교육



“진로교육 교재가 실무자들이 활용하기 쉽게 구성돼 있어요. 현장에서 청소년의 경제생활을 지도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소정화 1318 Happy Zone 서대문 교사)

“이번 금융교육을 통해 경제교육의 관점을 새롭게 정립했어요. 지역의 한국은행 지점에 부탁해 1318세대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겠어요.”(이은영 1318 Happy Zone 초록세상(강원 흥천) 교사)

지난해 12월 6일 경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와 '1318 Happy Zone 사업단'은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에서 전국 1318 Happy Zone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경제교육협의회 참여기관의 공동사업으로 KDI 경제교육협의회 사무국(이하 협의회 사무국)이 주관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복지사를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1318 Happy Zone은 지역사회에서 빈곤·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학습 및 교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 문화·복지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1318세대 전용 지역아동센터다.

이번 교육은 생활복지사들의 교육요구가 높은 진로교육과 금융교육으로 구성됐다. 진로교육은 2007년 협의회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중학생을 위한 창의적 재량활동 교재인 '직업 넌 누구니?'를 중심으로 실시됐고 강의는 교재 개발에 직접 참여한 허은영 (백석중) 교사가 맡았다. 금융교육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금융교육 교재와 홈페이지 활용 방법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은행 오진석 과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앞으로도 협의회 참여기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경제교육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거품 낀 큐빅보다 흙 묻은 진주를 찾아라

자산투자(Asset Investing)와 자산배분(Asset Allocation)은 문자 그대로 각각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와 자산을 배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렇만, 이들 사이의 철학적인 차이는 단순히 '투자'와 '배분'이라는 두 글자 이상의 차이를 가진다. 더구나 일반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해의 정도가 더욱 심한데, 이것은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배분'이라는 말을 '특정 자산에서의 선택'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주식 투자자라면 자신의 자산을 한 종목에 모두 투자하기보다,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것으로서 '자산배분'을 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자산 배분의 본래적 의미는 각각 방향성이 다른(속성이 다른) 자산에 나누어서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 즉 이것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속성이 다른 종목에 자산을 배분하게 되면 결국 수익률이 저하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투자를 통한 이익을 내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이럴테면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보유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대방향의 옵션을 매수했다면, 결국 주가가 올랐을 때는 옵션 매수분만큼의 손실을 입고,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도 결국에는 현물 주식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럴 비에야 아예 주식을 사지도 팔지도 않는 것이 정답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견 생각하기에는 일리가 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주가강세에 비중을 더 두고 있다는 의미인데-설마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적인 헤지 목적으로 옵션을 매수하느니, 차라리 주식을 털 사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자산을 주식에 투자한 다음, 가격하락에 대비해서 풋 옵션을 10만원어치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주가가 10% 올라도 사실은 이익이 나지 않게 된다. 결국 이 사람은 10% 이상의 수익이 났을 경우에만 10%를 공제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이고, 그 이하의 수익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락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하락의 폭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는 하락분의 전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이익을 챙길 수도 있다. 물론 합성선물과 같은 극단적 헤지가 아닌, 지수선물의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개념은 결국 같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대형 연기금들의 자산배분전략에 대한 연구중에서 가장 유명한 Brinson, Hood, Beebower의 연구를 살펴보자. 이들은 1977년부터 10년간 미국에서 약 80개의 대형 연기금들의 운영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각 기금들 사이에서 운용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이들은 연구에서 연기금의 투자행위를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을 결정하는 '자산배분활동'과 주식의 종목을 고르는 '증권선택활동'으로 분류했다. 자산배분활동은 다시 장기적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면 포트폴리오의 변경이 적은 '소극적 자산배분'과, 단기적으로 시황을 예측하고 매매타이밍을 고려하



여 자주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적극적 자산배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증권선택활동'은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와 같은) '소극적인 선택활동'과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를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적극적인 선택활동'으로 구분했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 결과는 자산배분활동은 소극적으로 하고(잡은 변경을 피하고), '증권선택활동'은 적극적으로 한 것이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오므로써 일반의 예상을 뒤집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바로 이것이었다.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주식이 좋을 것인지, 부동산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금값이 나올 것인지, 혹은 내년 시장이 상승장일지 하락장일지를 고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자산을 배분한다음 그 배분된 자산에서 최대한 기업을 분석하고, 노력해서 좋은 주식을 사려는 수고를 한다면 그것은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자산배분의 힘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변동성 위험으로부터 회피가 자산투자자의 본질'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에는 유명한 마코비츠의 이론을 다시 들어보면 자산배분의 이점은 바로 이렇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자산 A와 자산 B 둘 중 하나에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A의 수익률은 100%고 B의 수익률은 50%였다면 그는 둘 중 전자를 고름으로써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지만, 신이 항상 주사위를 던지는 자의 편에만 서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가 만약 A와 B 둘을 공평하게 반반씩 나누어서 투자를 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는 75%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이때 그는 25%의 초과수익에 대한 미련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지불한 보험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다.

그는 자산의 수익률만 보았지 사실 그 뒤에 잠복해 있었던 위험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이때 두 자산의 위험도

(변동성과 비례)를 전자는 40, 후자는 20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때 그가 지는 위험도의 조합은 단일 투자만 했을 경우에는 100%의 이익 뒤에 숨은 40의 위험도, 혹은 50%의 이익에 숨은 20%의 위험도를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두 자산을 공평하게 반반 투자하고 있었다면, 수익은 75%가 맞지만 위험도는 30%가 아니라 25% 수준이 된다.

이 무슨 황당한 계산일까? 바로 여기에 변동성의 마술이 있다. 자산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동성 때문이다. 때문에 수익은 자산배분에 의해 산술평균에 수렴하지만, 위험도는 자산배분이 잘될수록, 즉 여러 자산에 나누어서 투자할수록 산술평균 이하로 낮아지게 된다.

같은 관점에서 앞서 예를 든 주식보유자가 선물 매도포지션을 보유한다던지 혹은 합성 선물로 헤지를 하고서도 이익이 나는 구조를

설명할 수 있고, 자산배분이 갖는 장기적 이익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대이익이 낮아지고(특정 자산의 운동에너지가 분산되고), 자산의 위험도가 커지는 시점(변동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특정 자산에 대한 지나친 편중보다는 자산배분이, 자산배분 중에서도 적극적 배분보다는 소극적 배분이 유리하고, 일단 배분된 자산의 범주에서는 최대한 투자대상을 분석하고 이해해서 거품이 잔뜩 낀 큐빅보다는 지금은 진흙이 묻어 자갈처럼 보이지만 진흙만 털어내면 언제라도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는 보석을 고르는 노력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새해에는 기존의 주식일변도의 편중보다는 자산 배분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주식에 투자할 때는 소문이나 유행보다는 최대한 노력해서 스스로 좋은 주식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주식일변도의 편중보다는 자산배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식에 투자할 때는 소문이나 유행보다 스스로 좋은 주식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박경철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경제방송 진행자인, 증권사에서 투자를 가르키는 애널리스트, 방문객 2백만을 넘어선 블로그 운영자. 안동 신세계연합병원의 외과의사이다. 최근 네번째 에세이집 <착한 인생, 당신에게 배웁니다>를 출간했다.

경제성장을 높으면 평균 신장도 크다?

임진왜란시 조선군의 평균신장 155.5센티미터

한 사회구성원들의 평균 신장은 그 사회의 소득수준이 결정한다. 인간은 대략 20대 중반까지 키가 자라는데, 이 기간 동안 영양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서 영양분이 부족하면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신장과 영양 섭취 혹은 생활수준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의학적·통계적 사실에 근거해서 경제사학자들은 인류의 물질적 삶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해 왔다. 경제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과거의 경우, 그 시대 사람들의 신장은 당시의 생활수준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신장 변화에는 크게 세 국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단계는 원시시대로부터 산업혁명 이전까지의 수천 년에 걸친 기간이다. 고고학자·인류학자·경제사학자들이 유골을 이용해서 장기적인 생활수준 변화를 추정하는 대형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류의 신장은 원시시대로부터 산업화가 본격화되는 18세기 중엽까지 꾸준히 감소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매우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인구가 증가해 왔는데,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고, 이

것이 신장 감소를 야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평균 신장이 정체 혹은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된 곳은 미국이다. 군인들의 평균 신장 추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화가 본격화되는 1830년경부터 1880년대까지 평균 신장이 약 3cm 가량 감소하고,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180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인데, 일차적으로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생활환경의 악화가 주범으로 지목된다.

마지막은 산업혁명 이후 시기인데, 산업화를 경험한 나라 국민들의 신장은 급속도로 상승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산업혁명 직전인 18세기 중엽 성인 남자의 평균 신장은 166cm였는데, 1990년대에 와서는 178cm까지 커졌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혁명이 물질적 생활수준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 리 조상들의 키가 얼마나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 키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담은 가장 오래된 사료는 임진왜란 직전인 1590년의 병적(兵籍)이다. 군사를 뽑을 경우에는 신체조건이 중요했기 때문에 키를 비롯한 신체적 특징을 조사하고 기록해 둔 것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 군인들의 평균 신장이 약 7.3척이었다. 한 척이 나타내는 길이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이 값을 현재 단위로 추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



장 오래된 사료는 임진왜란 직전인 1590년의 병적(兵籍)이다. 군사를 뽑을 경우에는 신체조건이 중요했기 때문에 키를 비롯한 신체적 특징을 조사하고 기록해 둔 것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 군인들의 평균 신장이 약 7.3척이었다. 한 척이 나타내는 길이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이 값을 현재 단위로 추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

사회 구성원들의 평균 신장은 그 사회의 소득수준이 결정한다. 한 시대의 신장은 당시의 생활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만, 군인들의 평균 신장은 대략 155.5cm 였다고 추정된다. 이외에도 조선 중기 후기의 병적자료가 서너 건 더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자료들을 종합해 장기적 신장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제시대의 신장 자료는 식민지기 생활수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생활수준의 장기적 추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구가 진척되지는 못하고 단편적인 사실만이 확인되고 있다. 일제 말 징병조사자료에 따르면 1938년 20세 남성의 평균 신장은 대략 161.7cm 였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식민지기 서대문형무소 수형자 자료를 보면 23~40세 남자 1,500여 명의 평균 신장은 164.1cm이다. 교도소 수형자들의 키가 징병대상자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이 수형자들 중 상당수가 부유한 집안 출신의 사상범들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진척된다음에야 확인될 듯하다.

건국 이후엔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료가 남아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1970년대 이후 산업화의 영향으로 평균 신장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24세 남성의 신장은 1979년 167.7cm 였던 것이, 25년이 지난 2004년에는 173.8cm로, 약 6cm 증가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인의 경우 평균 신장이 12cm 증가하는데 200년이 걸린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국민들의 키는 경제성장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북한의 상황은 열악하다. 탈북자들의 신체조건에 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4세 남성의 평균 신장은 164cm로, 같은 나이 남한 남성보다 거의 10cm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실상 해방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북한 사람들의 신장은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성장의 성과와 대비되어 더욱 암울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국민들의 평균 신장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 간의 키의 편차도 커지고, 키로 인한 불평등과 차별도 심화됐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이 늘고 있으며, 심지어는 키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하다. 신문·잡지 등에 빈번히 등장하는 키 관련 클리닉이나 키를 자라게 하는 수술 등에 대한 광고는 키 작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영하는 사례이다.

키에 따른 차별은 큰 키가 힘의 우위 혹은 육체적 우월성을 반영한다는 원초적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소득수준과 신장 간에 존재하는 양의 상관관계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 하지만 외모와 관련된 차별들이 내포한 공통적 문제점은 외모라는 단편적인 정보가 한 인간의 무궁무진한 잠재능력을 판단하는 근거로는 너무도 미약하고 왜곡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키와 관련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몰아내는 것은 단순히 소수자에 대한 배려 차원을 넘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996년 신년호에 'Heightism'이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키 때문에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차별을 열거하고 이것을 철폐하지는 운동을 선언했다. 2008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영국의 경우 산업혁명 직전인 18세기 중엽 성인 남자의 평균 신장은 166cm였는데, 1990년대에 와서는 178cm까지 커졌다.



김두열 KDI 연구위원 duolkim@kdi.re.kr
서울대 경제학과
미 UCLA 경제학 박사

소리의 풍경, 마음의 자화상

인류는 소리를 재발견하면서 문화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음소들을 조합하여 언어를 발명했고, 소리의 높낮이와 리듬으로 음악이라는 엄청난 우주를 열었다. 그리고 목소리 말고도 도구를 이용해 다양한 소리를 창조해왔다. 악기야말로 다른 동물들이 넘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그러한 음성적 표상들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서로 안에 숨어 있는 마음들을 찾아준다.

언어와 음악 이외에도 교회나 사찰의 종소리처럼 소리 그 자체가 공동체의 중심점이 되어주는 경우도 있다. 전통사회에서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상징에 의해 매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청각 신호는 중요한 한 가지 장르였다. 종각의 종소리를 한양의 사대문안 어디서든 들을 수 있었고, 예전의 경주에서도 에밀레종을 울리면 모든 곳에 소리가 미쳤다고 한다. 자연의 음향이 퍼져나가는 범위는 얼추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일 것이고 그것은 곧 인간다운 교섭이 가능한 도시의 적정한 규모가 아닐까 한다.

근대화는 소리의 풍경(soundscape)을 급격하게 바꿔갔다. 무엇보다도 테크놀로지의 혁신에 따라 예전에 없었던 소리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뿜어내는 기차의 기적 소리, 생활공간 곳곳을 파고드는 자동차들의 부릉부릉과 뚝뚝뚝, 공장에서 요란하게 울려나오는 기계음들은 그 자체로 새로운 시대의 전령(傳令)이었다.

그리고 미디어의 출현을 빼놓을 수 없는데, 라디오나 축음기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재생되는 소리 앞에 사람들은 마술에 홀린 듯 빨려 들어갔다. 다른 한편 근대국가가 확립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술하게 일어난 국가 간 전면전은 국민에게 경계태세 속에 늘 긴장을 유지하면서 동원 명령에 신속하게 응하도록 종용했는데 이는 사이렌이라는 장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실현되었다.

근대가 소리의 풍경을 급격하게 바꿔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다.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오랫동안 잔존한 토속적인 소리들은 많았다. 쌀 까부는 소리, 빨래 방망이 두들기는 소리, 옛장사 아저씨의 가위 소리, 겨울 밤 골목을 울리던 찹쌀떡 장수의 구성진 외침, 동네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함성... 이 모든 소리는 그 시절을 살았던 이들의 애뜻한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리게 하는 단서들이다. 흘러간 옛 노래들만큼이나 강인하게 마음 속에 각인된 그 코드들은 그것이 발생한 공간의 풍경과 함께 어우러져서 자아의 유기적인 지속을 보장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근대화, 거리의 풍경을 바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생활에서 그런 소리들은 하나둘씩 소멸되어갔다. 그 대신 늘어난 것은 짜증을 유발하는 소음이다.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엔진 소리가 기준치를 넘어섰고 히스테리성 경적 소리가 기승을 부리며, 그것도 모자라 폭주족들이 등장해 난리를 피운다. 대학의 캠퍼스는 그나마 조용하고 느긋한 공간 가운데 하나인데, 요즘에는 학생들의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점점 침해당하고 있다.



명상중인 틱낫한 스님. 틱낫한 스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자기 마음 깊은 곳에 깃들어 있는 슬픔, 두려움, 분노 등을 보지 않으려 텔레비전에 매달린다고 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대형 고층 빌딩이 늘어나고 지하공간이 확대되면서 에어컨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기계에서도 엄청난 양이 발생한다. 저주파 소음은 귀로는 별로 불쾌감을 못 느끼지만 실제로는 몸과 두뇌에 지극히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집안에서도 각종 전자제품에서 저주파가 나온다. 거기에 장기간 노출되면 스트레스가 쌓여 위궤양, 고혈압, 당뇨,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각종 소음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휴대폰 벨소리와 통화음성은 근대적 공공윤리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통신기기 혁명이 일어나면서 빚어낸 불균형의 산물이다. 그 외에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음성 신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시내버스에서 상업광고가 방송되는데, 버스가 어느 구간을 지날 때마다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도 기사 마음대로 틀어놓는 라디오 소음이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가세하는 버스 전용 상업광고는 목소리가 훨씬 날카롭고 자극적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공공 교통에 그런 음성 상업 광고를 허용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어수선함을 피해 어디론가 여행을 가기 위해 나서면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 의자들 앞에 모두 텔레비전이 켜 있고 버스를 타도 모니터에서 계속 시끄러운 방송이 나온다. 해변을 찾아가서 파도소리와 갈매기의 울음소리를 조용하게 경청하는 대신 여기저기에서 쏘아대는 폭죽 소리에 시달려야 한다.

잠시도 조용하고 심심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틱낫한 스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말하길 현대인들이 자기 마음 깊은 곳에 깃들어 있는 슬픔, 두려움, 분노 등을 보지 않으려 텔레비전에 매달린다고 한다. 어수선하고 들뜬 일상 속에서 내면은 자꾸만 알뜩해진다. 고요함에 편안하게 머물지 못한다. 자기를 조용하게 응시하기가 너무나 괴롭기 때문이다.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靜勝躁 (...). 淸靜爲天下正' (고요함은 조급함을 이기고(...). 맑고 고요함이 천하의 으뜸이다). 사람에게는 고요함 속에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매일 일정한 만큼 있어야 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진정한 자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평온함에서 마음의 질서를 세우고 몰입(flow)을 통한 최적의 경험(optimal experience)

에 이를 수 있다.

지식 정보사회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 그것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회적·개인적인 생산성이 결정된다. 그 집중력은 고요함 속에서 자라난다. 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심심함을 견디는 마음의 힘이다. 외적인 자극이나 사물에 의존하지 않고 시간의 여백을 채울 수 있는 내면의 풍부한 울동이다. “위대한 일은 조용하고 단조로운 생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버트란트 러셀의 이 말은 오늘 새삼 다시 들린다.

생명의 힘을 일으켜내는 공간

고요함이 소중한 또 다른 까닭은 그 속에서 소리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음미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숙한 시공간은 우리의 무디어진 감각과 의식의 축수를 일깨워준다. 산사(山寺)에서 참선을 하는 구도자에게 종소리는 단순히 쇠에서 나오는 물리적 파동이 아니고, 뽐뽐한 업무에 치여 살다가 모처럼 휴가를 떠난 도시인에게 숲의 새 소리는 그냥 어떤 동물의 지저귀음이 아니다.

텅 비어 있는 소리 풍경 위에 마음의 여백이 펼쳐지면서 그 소리들은 나와 타자를 신비롭게 묶어주는 매체가 된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이르지 못했던 대상의 깊은 본질, 그 심원한 세계에 다가가는 통로가 거기에서 열리기 시작한다. 귀 있는 자는 들리라. 성서에 자주 나오는 말이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려주는 통로가 청각 신호로 설정되고 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나이다.’ 신의 계시는 말씀의 형식으로 전달되고 반드시 귀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해도 그렇게 체감되듯이 비유된다. ‘복음’이라는 표현도 그런 맥락에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그런데 단순한 비유만은 아니리라. 우리는 기도나 명상을 할 때 또는 깊은 생각에 잠길 때 눈을 감는다.

그리고 들려오는 성가나 독경 소리에 주의를 집중한다. 음악에 심취할 때도 자연스럽게 눈을 감는다. 소리에 몰입하기 위해서다. 그 오묘한 결을 느끼기 위해서다. 소리는 이미지보다 입체적이고 내밀한 그 무엇을 함축하고 있다. 음악이 미술과는 다른 차원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엄청난 증폭 효과를 갖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마음의 균형을 도모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인과 바깥이 순조롭게 조용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결을 이뤄내는 시간, 깊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 생명의 힘을 일으켜내는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듯이 말과 말 사이 그 은은한 침묵으로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다. 고요함을 통해 우리는 자아를 명징하게 비춰보게 된다. 그 온전한 무(無)를 향해 정진하는 가운데 뜻 소리들은 정갈한 빛깔로 재생된다. 평온한 울림으로 퍼져간다.

글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chan-ho7@hanmail.net
김찬호는 우리 삶 속에 자리잡은 문화의 의미를 정교하게 탐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시어머니? 아니죠, 친정 어머니죠!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기획예산처로부터 1년간의 혁신성과를 평가받는다. 그 결과에 따라 기관의 대외적 평가와 인센티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에겐 초미의 관심사. 이 실무를 담당하는 혁신관리팀은 공공기관별로 한해 혁신농사의 풍·흉년을 판단해 1단계에서 6단계까지 혁신 수준을 평가한다. 혁신 수준이 높은 기관에겐 표창과 인센티브로 포상하고 낮은 기관에겐 공동 학습그룹, 컨설팅,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통해 조직 안에 잠재된 혁신의 동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혁신관리팀은 혁신 수준이 높은 59개 기관을 공동 학습의 운영기관으로 정해 12개 그룹을 구성하고, 140여개 기관이 자유롭게 원하는 그룹에 가입해 혁신 스터디를 하도록 했다. 우수한 혁신의 사례를 함께 나누고 기관별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해답은 함께 찾을 수 있는 모임인 셈이다.

이와 함께 혁신관리팀은 올 8월 온라인 상에 ‘이노카페’를 열었다.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 이노카페의 탄생으로 공공기관간의 정보공유가 활발해졌고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혁신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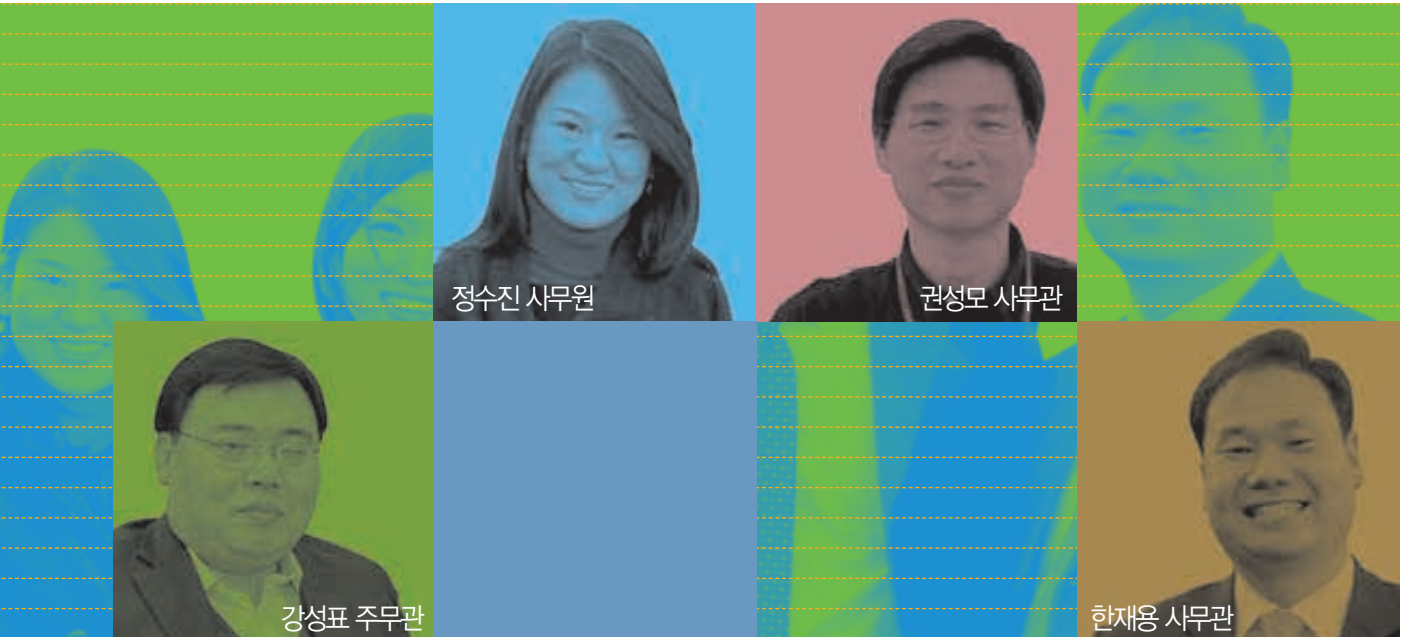
혁신관리팀은 공공기관들의 혁신을 무조건 재촉하기 보다는 기관 특성에 맞는 변화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나아가 길을 제시하는 조력자 역할을 자청한다. 이를 위해 혁신관리팀은 혁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막연하게 거부감을 가진 기관들도 혁신을 이해하고, 혁신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들에게 혁신 컨설팅을 실시해오고 있다.

“단계 기관, 4단계 기관, 6단계 기관”

혁신관리팀이 요즘 추진하고 있는 일은 혁신포털(구 알리오 시시템)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웹 상에서 스스로의 혁신수준을 진단해볼 수 있는 ‘혁신수준 자가진단시스템’의 개발. 이 시스템은 올해 초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들은 스스로의 혁신수준을 상위 기관과 비교해 볼 수 있고, 비교를 원하는 기관의 주요한 혁신활동 현황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많은 업무를 국민 중심으로 바꿨지만 아직도 변화의 흐름에서 비켜서 있는 기관들이 있다. 이 같은 일명 혁신부진기관에게 혁신관리팀이 내린

혁신관리팀은 공공기관들의 혁신을 무조건 재촉하기보다 기관 특성에 맞는 변화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조력자 역할을 자청한다.



처방은 바로 멘토링(Mentoring). 선도기관이 부진기관에게 혁신을 전인하도록 1:1 과외수업을 시켜주는 것이다. 부진기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주고 단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혁신에 이를 수 있도록 일종의 특별 과외를 시키는 것이다.

혁신관리팀이 공공기관 혁신에 있어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고객만족경영’과 ‘투명윤리경영’. 혁신관리팀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고객중심경영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들이 핵심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이행 표준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해 6월에는 고객현장과 서비스 이행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핵심서비스 이행표준에 대한 작성원칙과 사례를 제시했다.

이행표준의 4대 원칙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핵심서비스를 국민이 알기 쉽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화할 것과 고객만족 수준의 서비스를 약속하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투명윤리경영은 대단히 중요

하다. 혁신관리팀은 기관들의 직무청렴계약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는 공기업 임원의 청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제재를 받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소통 시스템 ‘이노카페’

물론 부정을 저지르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처벌받지만, 이것은 자기와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자발적인 윤리경영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혁신관리팀에게 지난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이다. 처음으로 개최된 이 대회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들의 큰 관심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불렀다. 그 결과 화력발전소의 골칫덩어리였던 폐냉각수를 수력발전소에 활용해 7천5백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외화까지 벌어들인 남동발전(주)와 시범사업 이후 표류하던 톨게이트 무정차(Hi-pass)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고객에게 시간과 돈을 돌려준 한국도로공사가 수상했다.

IMF 이후 공공기관들은 ‘하드웨어 개혁’으로 민영화,



인력 조정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참여정부는 여기에 '소프트웨어 혁신'을 더해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고객만족경영 서비스로 변화관리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관리는 이제 기관장뿐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혁신 문화를 형성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비판만 받던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기획예산처 혁신관리팀이 수행하고 있다.

다이나믹하고 전문적인 업무 영역인 만큼 혁신관리팀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팀의 수장인 한상록 팀장은 '아이디어뱅크'라는 별명과 함께 팀 구성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로 화목한 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한 팀장은 J.D.Power Korea의 컨설팅 팀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의 경영전략본부장 등 민간기업 및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담당했던 '컨설턴트 출신'이다.

2006년 11월 개방직으로 기획예산처에 합류해 합리적인 판단과 빠른 추진력, 경영혁신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혁신관리팀을 이끌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실시한 각종 혁신기법(워크아웃, 6시그마, 성과관리 등)을 변화관리 방법과 접목하여 공공기관에도 도입, 확산하는 데 주력하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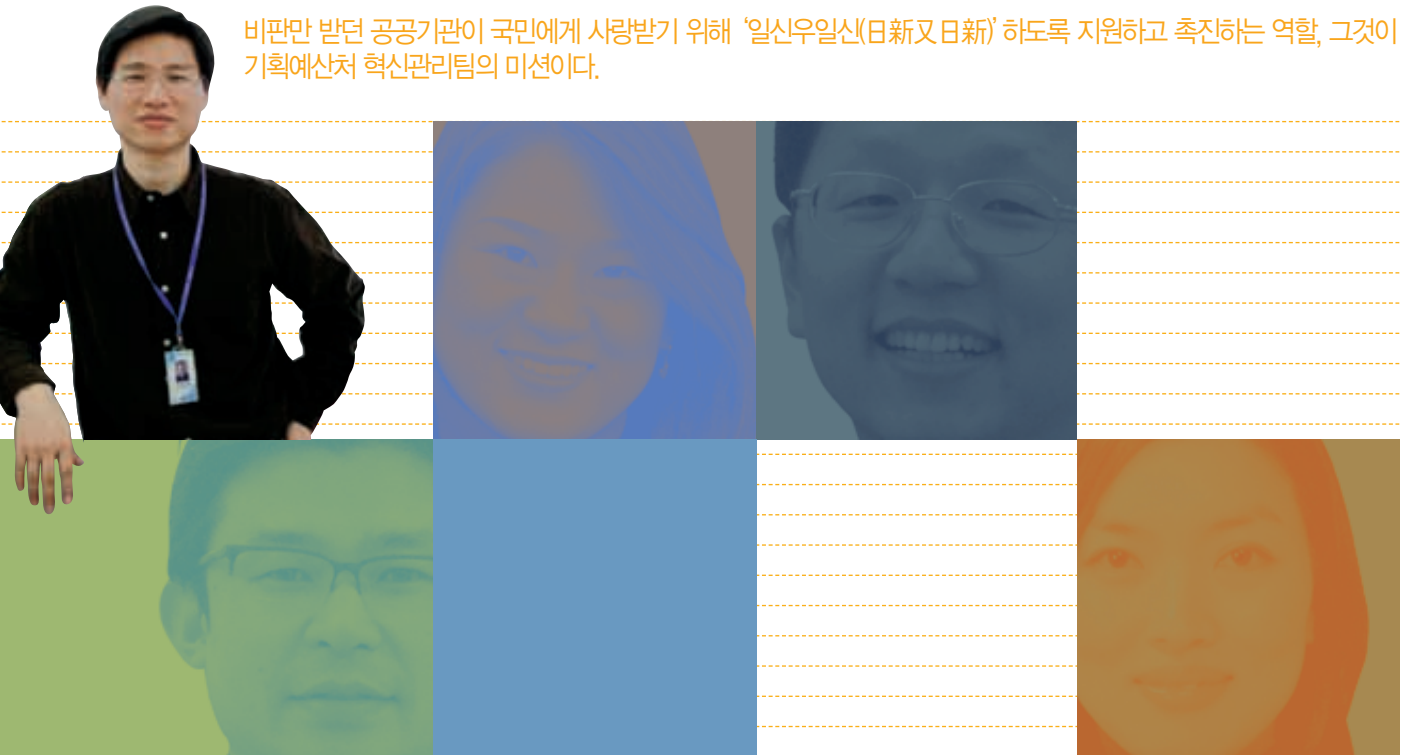
한재용 총괄사무관은 공공기관 혁신추진 계획 수립, 변화관리 운영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주무사무관이다. 덩치에 맞게 '무게'가 있지만, 무게와 달리 미소만은 한없이 순수하다. 특허청 서비스표 심사관 출신으로 2006년 1월 기획예산처에 합류했다.

자발적 윤리경영 문화 조성에 일조

고객만족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권성모 사무관은 업무 성격과는 다른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가 인상적이다. 감사원 공채 출신으로 2000년 10월 기획예산처에 전입했다. 업무가 업무인지라 많은 스트레스로 생긴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심이 많다는 권 사무관이지만 그래도 사무실에서 웃음소리는 제일 큰 낭만파다.

이흥권 사무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전문기관인 KISTEP에서 11년 넘게 근무한 공공기관 출신이다. 2006년 8월 기획예산처 파견 근무로 첫 인연을 맺었고 지난해 4월에는 기획예산처에 정식으로 입사했다. 다양한 업무경력만큼 전공도 다채롭다. 회계학·환경정책학·도시행정학을 공부해 사무실에서는 'Multi 흥권'으로 통한다.

비판만 받던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 그것이 기획예산처 혁신관리팀의 미션이다.



강성표 주무관은 김 사무관과 함께 혁신평가라인을 구성한다. 주로 평가위원 DB관리, 대외연락 등을 맡고 있다. 또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족친화경영을 공공기관에 확산시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강 주무관은 과내에서 '호통 성표'로 불리는데 이는 과내에서 연장자임이 이용(?), 업무수행에 피를 부리는 직원에게 한방씩 업무 독려 멘트를 날리기 때문에 나온 별칭이다. 지위 불문하고 직원들 중 호통을 안 당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강 주무관은 퇴근하면 FIFA-온라인이란 컴퓨터 게임에 열심인데 현재 전국 430위 랭킹으로 초고수의 대접을 받고 있다.

심지에 주무관은 '새침 지애'란 별명처럼 처음 보기엔 다소 냉랭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수줍음이 많은 새댁이다. 여성가족부 출신으로 올해 초 전입 올 때 걱정이 많았다 한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에서 기획예산처의 남성 중심적이고 업무 중심적인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해서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느 조직보다도 서로를 존중해주고 여성을 배려해주는 팀 분위기에 100% 만족하고 있다. 활기차고 배려 깊은 팀원들 덕분에 태교를 잘하고 있어 올 봄엔 예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을 거라며 기뻐하고 있다.

정수진 사무원은 내무부장관 역할로 팀의 1년 살림과 함께 외부행사 업무지원 및 팀 내 각종 업무를 챙기는 서무를 담당한다. 근무기간이 11년이 넘는 서무업무의 베테랑이다. 스키와 인라인스케이트 등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하고 노래 또한 수준급이어서 어디에서도 노는 데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소신이 있다. 최근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고 기질을 숨기고 있지만 팀원들은 머잖아 기질이 들끓날 거라 예상하고 있다.

다양한 출신의 팀원이 모여 환상의 팀워크를 보이고 있는 혁신관리팀 팀원들은 오늘도 옆 사무실 사람들이 놀랄 만큼 큰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새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2008년 일출을 향해 혁신 방아쇠를 당긴 혁신관리팀. 새해 우리 팀의 활약이 어떠한지 한껏 기대를 해도 좋다.

글 김의택 사무관 기획예산처 혁신관리팀

필자소개 김의택 사무관은 '관계 의탁(네트워크 의탁)'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기획능력뿐 아니라 대외 업무에 밝아 평가위원, 주무부처, 공공기관 혁신담당자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업무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관세청 광양세관에서 통관지원과정을 맡아 쌓은 현장 혁신과 행정부 혁신컨설팅단에서의 정부혁신 경험을 살려 공공기관 혁신을 맡고 있는 혁신 전문가다. 또한 수준급 강의 실력으로 각 공공기관과 수습사무관들에게 심도 깊은 혁신 강의를 펼치곤 한다.



2012 여수엑스포
집중분석

→ 01

이제는 준비다

스페인 · 포르투갈 성공사례 벤치마킹할 계획

“우리가 이겼다!”

2007년 11월 27일 새벽 제14차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장에서 울려 퍼진 유치 승전보! 그동안 박람회 유치를 위해 밤낮없이 숨가쁘게 달려온 500여일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제 우리나라가 BIE회원국들에게 약속했던 세계박람회 역사에 길이 남는, 인류에게 가치 있는 유산을 남기기 위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라는 또 다른 과제가 우리 앞에 커다랗게 놓여져 있었다.

비록 4년여의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지만 유치활동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민·관의 협력이 다시 합쳐진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을 것이다.

우선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현 박람회 유치체제를 신속히 박람회 준비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T/F팀을 중심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구성 및 정부의 지원내용을 담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법」을 신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법 제정에는 관계부처와 국회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협조를 감안할 때 법 제정도 협의가 잘 될 것으

로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는 박람회장 건립 문제이다. 파리의 에펠탑이 1883년 파리에서 개최된 박람회의 산물인 것처럼 우리도 후손들에게 길이 남을 멋진 상징타워를 만들 계획이다. 박람회 개최 이후에도 여수를 찾았을 때 2012년에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각계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모아볼 생각이다.

전시시설 · 아쿠아리움 · 마리나 등의 건설도 스페인의 세비아나 포르투갈 리스본 등의 성공사례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



파리의 에펠탑이 1883년 파리에서 개최된 박람회의 산물인 것처럼 우리도 후손들에게 길이 남을 멋진 상징타워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여수가 확정되자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회시설들을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여수 지역을 미래형 관광·레저 항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 아닐 수 없다.

박람회장 시설 건립과 더불어 여수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철도·항공 등의 SOC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할 것이다. 각종 관광시설과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여수 지역을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이를 남해안권 전역으로 파급하여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의 메카로 만

들어 나갈 구상도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박람회에 보다 많은 BIE회원국들이 참가하여 형식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알찬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하려 한다. 박람회 유치활동에서 회원국들의 관심을 주목 시킨바 있는 '여수프로젝트'(개도국들이 당면한 해양관련 사항에 대해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연구·조사·교육하는 프로그램) 또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구성될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유치과정에서 보

여 주었던 국민들과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 보다 알찬 결실을 이룰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저력과 열정으로 일궈낸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다시 한번 온 국민의 성원과 관심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이룩하여 전세계에 코리아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김준석 해양수산부 여수세계박람회유치팀장
junskim@momaf.go.kr

2012 여수엑스포
집중분석
→ 02

숨 가쁜 10년간의 긴 여정

5년전 '모나코의 눈물'이 보약됐다

은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했다. 개표시간이 계속 연기되면서 가슴 졸이며 밤을 하얗게 새웠다. 11월 27일 새벽(한국시간) 드디어 여수가 2012세계박람회 개최지로 결정되자 여수시민뿐 아니라 온 국민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여수엑스포 유치 활동의 최일선에서 일해 온 필자에게 그 간의 유치활동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사실 여수엑스포 유치활동은 10년 전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었다. 한번의 쓰라린 실패를 맞본 뒤 얻은 성과라 더욱 값지고 감회가 깊었다.

'해양입국'의 기치 아래 해양수산부가 발족한 이듬해인

1997년, 우리 부는 해양강국 진입의 초석 마련을 위해 부흥 기대를 안고 바다를 주제로 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안고 신청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2월 모나코에서 열린 제132차 BIE 총회에서 중국 상하이와 4차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아깝게 패하고 말았다.

당시 처음으로 대형 국제행사 유치 실무를 담당한 사무관으로서 그때의 패배는 필자에게 너무나 뼈아픈 기억으로 각인되었다. 따라서 이번 유치전에서는 모로코의 탕헤르, 폴란드의 보로츠와프보다 다소 앞서간다는 자체 분석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긴장을 놓

을 수 없었다. 어찌 보면 5년 전 '모나코의 눈물'이 이번 유치전에 보약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2002년 당시 패배의 주요 이유는 경쟁 상대국인 중국·러시아에 비해 우리의 외교력이 떨어지고 개최 후보지의 규모나 인구, 국제적 인지도 등이 낮다는 것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9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세계박람회기구(BIE) 심사단 환영 만찬에서 한덕수 총리와 심사단원들이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엘자 카스트로(브라질),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카르맹 실뱅(캐나다) BIE위원장, 한덕수 총리, 빈센테 곤살레스 로세르텔레스(스페인) BIE 사무총장, 김재철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라슬로 글러츠(헝가리).

상하이에 진출해 있는 250여개 주요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적절히 활용했으나 우리나라는 그럴 만한 기반이 없다는 취약점도 있었다.

2002년 상하이에 세계박람회 개최를 빼앗긴 후 우리나라는 낙담해 있지 않고 곧바로 그다음해인 2003년 1월부터 2012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재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패배의 주요 원인들을 꼼꼼히 분석해 다시 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전하기로 했다. 한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재도전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되어 갔다. 2004년 1월 전라남도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하도록 건의했으며 그 해 4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유치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시작됐다.

6월에는 '2012 세계인정박람회 로드맵'이 국무회의에 보고됐으며 12월에 국무조정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행사심사위원

회의의 심사를 거쳐 박람회규모와 재원 조달방안 등을 결정하는 사전 행정절차를 의결했다. 2006년은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본격 준비단계였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22일 세계박람회기구(BIE)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첫 번째로 신청하면서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이때부터 2012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500일간의 행보가 숨가쁘게 진행됐다.

같은 달 30일에는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을 유치위원장으로 하고 정·관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인사 80여명을 유치위원으로 위촉한 중앙유치위원회를 창립하며 본격적인 유치활동 개시를 선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18일 BIE 사무총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여수엑스포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강력한 개최 의지를 전달하며 힘을 보태 줬다.

11월 22일에는 2012세계박람회 유치 심

우지엔민 BIE 총회의장은 여수엑스포의 주제가 BIE가 추구하는 가치인 인류 문명의 발자취와 맥을 같이하고 있어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박람회 유치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지와 지역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청국으로 한국·모로코·폴란드 등 3개국 이 확정됐으며 12월 7일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의유치 지지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우리나라는 2012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한 출발선에 섰다.

또한 12월 18~19일 제140차 BIE총회에서 신청국들의 박람회 준비상황을 설명하는 1차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며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개시했다. 2007년은 본격적인 유치 활동 단계라 할 수 있다. 2월 8~9일 30여개국 BIE대표와 해외인사 50여명을 포함해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다와 연안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와 중요성'이란 주제로 1차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여수세계박람회를 홍보하고 여수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우지엔민 BIE 총회의장은 여수엑스포의 주제가 BIE가 추구하는 가치인 인류 문명의 발자취와 맥을 같이하고 있어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박람회 유치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지 및 지역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고 밝혀 유치 성공에 대한 좋은 예감을 갖게 했다.

우리는 3월 9일 BIE에 여수박람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4월 9~14일에는 BIE 실사단이 방한해 여수의 입지와 실사 준비 상황에 대해 'Excellent' 라는 평가를 내렸다. 4월 22일부터는 유치 외교전을 본격화했다.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장관, 유치위원장, 국회의원 등이 세계 각국을 돌며 여수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8월 22일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회장이 여수세계박람회 명예유치위원장에 위촉되며 힘을 보탤다. 정 회장은 슬로바키아·체코·터키 등 세계 각국을 돌며 여

수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 회장이 반 년간 출장 다닌 거리만 지구 세 바퀴에 해당할 정도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도 투표일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까지도 유럽·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을 돌며 유치 외교전을 활발히 펼쳤다. 강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 유치사절단으로 19개국을 다니며 유치 외교전을 펼쳤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과 12월 두 차례 총회에 수석대표로 프리젠테이션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주한 외교사절, 파리 주재 BIE대표들과 오·만찬 및 릴레이 면담을 실시하는 등 유치활동에 적극 나섰다. 6월에는 지휘자 정명훈, 8월에는 디자이너 앙드레킴과 명창 안숙선 등을 여수엑스포 홍보대사로 임명하며 세계 각국에 여수엑스포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시의 적절한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선정한 우리가 당초 폴란드와 모로코 등을 앞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유치전 초반에 접어들면서 국왕의 강력한 의지 아래 거의 모든 회원국에 특사를 파견하고, 이슬람권과 아프리카 국가들에 지지를 호소한 모로코의 맹렬한 추격이 우리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상반기만 해도 98개국이던 BIE 회원국이 투표 직전에는 140개국으로 늘어나면서 막판까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혼전 양상이 전개됐다. 이러한 상황 아래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북한이 130번째 BIE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세계박람회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드디어 대망의 27일 새벽(한국시간), 2012 여수엑스포를 결정하는 결전의 날이 밝았다. 멀리 프랑스 파리까지 원정 응원을 와 준 여수시민들의 농악 응원 속에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는 전자투표기를 일일이 각 회원국 대표들에게 나눠주면서 3시간 이상 지연돼 더욱 기승 줄이게 만들었다.

1차 투표 결과 발표에서 우리나라 68표, 모로코 59표, 폴란드 13표를 얻자 우리代表团에는 일순 긴장감이 돌았다.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득표수에서 이탈 표가 생긴 것. 2차 투표는 손에 땀을 쥐게 치러졌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2차 투표에서 우리나라 여수는 77표로 63표를 얻은 모로코 탕헤르를 제치고 2012 세계 박람회 개최지로 결정됐다. 2차 투표까지 갈 것을 미리 예상하고 폴란드 지지 국가에 대한 2차 투표에서의 지지를 이끌어낸 전략이 주효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500여 일간 민·관 및 경제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뚝뚝 뭉쳐 이뤄낸 결과였다. 유치위원회도 팀장의 경우 6개월간 새벽 퇴근을 밥 먹듯이 하며 과로를 한 탓에 치아가 여러 개 빠져버린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이렇듯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며 유치업무에 매진한 숨은 일꾼들과 국민들의 정성어린 성원이 있었기에 여수엑스포 유치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부는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 2012 여수엑스포의 주무 부처로서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댈 것을 다짐한다.

글 김윤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유치1팀장 mdp21@momaf.go.kr

2012 여수엑스포
 집중분석
 → 03

왜 '여수엑스포' 인가? 바다와 연안 보호 인류 공동노력

‘엑스포’라는 말은 원래 상품의 매매교환, 문화와 정보의 교환을 뜻하는 것으로 BIE 협약 1조에 따르면, ‘엑스포는 인류의 노력으로 성취된 발전 모습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계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시’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엑스포는 시대별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자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전시회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엑스포는 주최국 또는 주최도시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다. 1889년 파리엑스포는 프랑스혁명 100주년, 1988년 호주 브리스베인엑스포는 유

럽인 호주 정착 200주년, 1992년 스페인 세비아엑스포는 콜럼버스의 미국대륙 발견 500주년, 1998년 리스본엑스포는 바스코다가마 인도항로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다.

최근에는 엑스포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정치·외교적,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성과와 중요성을 인식한 많은 국가들이 BIE에 개최 신청을 하고 있어 개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세계박람회 개최국들이 엑스포를 국가 및 개최지역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엑스포와 가장 관련이 깊은 곳은 프랑스 파리이다. 파리는 모두 여덟

차례나 엑스포를 개최하였으며, 1855년부터 1900년까지 다섯 차례의 세계박람회를 개최하여 파리가 세계적인 관광·예술·패션·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은 1889년 세계박람회를 위해 세워진 임시구조물이었다는 점에서 엑스포가 개최도시의 발



2012년 여수엑스포가 열릴 주 무대인 여수 오동도 주변

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아시아 최초의 엑스포인 일본 오사카엑스포(1970년)는 당시 세계 성장산업의 하나였던 전자산업의 발전상을 보여 주었던 엑스포로 6천여만명이 관람한 대규모 행사였다. 일본은 오사카엑스포에서 하이테크 전자산업의 발전상과 기술, 그리고 첨단제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하여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명예를 벗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오사카엑스포 이후 일본은 전기·전자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발전하였다.

우리는 여수엑스포의 주제로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선택하였다. 우리가 이

러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바다는 지구에서 생성되는 열의 수급과 이동을 조절하여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지구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75%, 육지 담수의 36%가 바다로부터 생성되며, 인류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50%를 바다가 정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지구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연안은 바다와 육지의 인접부로서 세계인구의 40%가 연안 지역에 살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중심지이자 관광과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휴양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아울러 연안의 특징인 갯벌은 각종 연체동물·갑

각류·어류·조류 등이 무리지어 사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인류는 자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여 문명의 진보라는 커다란 혜택을 누렸으나 동시에 자연환경 파괴로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류의 적극적인 산업활동으로 이족자원이 감소되었고 환경이 오염되었다. 학자들은 인류의 지나친 산업활동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켰고 그 때문에 태풍·허리케인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극지방의 만년설이 녹아 해마다 전 세계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후조절 매커니즘의 변동은 전 세계적

여수엑스포는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 해양비즈니스 모델에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이다. 해양정책의 목표로 내세운 '세계 5위 해양강국(OCEAN G5)'의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이벤트로 활용해야 한다.

으로기름·태풍·한파등의이상기후로나타나고 있으며, 2005년 미국을 강타한 카트리나의 경우 약 2천억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그 피해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다와 연안의 기능과 중요성, 그리고 현재 치해 있는 위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바다와 연안이 인류공동의 자산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계몽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수엑스포가 바다와 연안의 보호를 위한 인류의 공동노력을 이끌어내는 데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엑스포는 바다와 연안에 관련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집결해 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며, 이를 전 인류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로써 해양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인류사회의 지식과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2여수엑스포 개최로 인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자. 전국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 10조 29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 118억원, 고용창출효과 8만 8,946명으로 올림픽·월드컵과 맞먹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개최지인 여수를 포함한 전남 지역은 생산유발효과 5조 5,68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5,006억원, 고용창출효과 5만 4,782명으로 전남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접 지역인 경남은 생산유발효과 7,84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687억원, 고용창출효과 8,041명의 파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엑스포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개최지인 전남 지역과 인접지인 경남 지역에 집중될 것이다

여수엑스포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무형적 가치창출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무형적이고 경제외적인 효과는 첫째, 여수엑스포 개최를 지지한 북한의 참가가 남북간 경제협력 및 교류증진, 평화관계 구축 및 그에 따른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수엑스포에 북한이 참가할 경우, 남북간 평화관계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남북한간 상호방문을 통하여 인적·문화·학술 교류, 이산가족 재회 등과 같은 남북교류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여수엑스포를 통해 우리나라는 우수한 문화와 첨단기술, 역사 등을 전시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문화·사회·기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 세계적 현안문제인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대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위그선 등 첨단 운송수단, 해양물질, 심해저광물, 심층수 등 해양자원 개발, 해상보안 및 안전, IT, 조선, 정밀기계 및 신소재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이다. 여수엑스포는 통해 우리의 첨단기술을 전시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이며 외국의 많은 참가자들이 우리의 발전된 첨단기술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동서 중간지역에 위치한 여수에서 엑스포를 개최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미개발된 전남 및 경남 서부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집중시켜 국민간 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여수엑스포 개최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은 국민복지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어 국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엑스포를 통해 우리나라는 해양산업 발전을 국가 중점과제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수엑스포는 산업의 관점에서 첨단기술의 공유와 공동개발을 통해 해양과학기술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성공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것이다.

여수엑스포를 통해 우리나라는 여수를 포함한 남해안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미래형 해양레저 관광도시 개발, 대한민국·일본·중국을 잇는 해양 크루즈 관광산업 발전, 국민들의 해양에 대한 인식제고와 해양인력 확대, 해양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마련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성장은 해운업·항만산업·조선산업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반면 고부가가치의 해양관광,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해양정책은 환경과 삶의 질, 과학기술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진적 해양비즈니스 모델에 기초하여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수엑스포는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 해양비즈니스 모델에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해양정책의 목표로 내세운 '세계 5위 해양강국(OCEAN G5)'의 달성을 위해 여수엑스포를 전략적 이벤트로 활용해야 한다.

글 전형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chun@kmi.re.kr

도시계획정보를 한눈에

도면 통계자료 등 각종 도시계획정보를 전산화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도시계획행정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신도시의 성장과 수도권 인구증가로 과학적인 도시계획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구획 현황 등의 도시계획정보에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도시계획 수립이나 정책결정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의사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요청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 도시계획정보 시스템(UPIIS: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인프라를 이용하여 변화된 도시계획행정 환경에 발맞추려는 시도이다.

도시계획정보 마음껏 이용하세요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은 도시계획정보를 온라인으로 국민들에게 손쉽게 제공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

스템이다.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은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도면, 대장, 조서, 통계자료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자료(기초자료, 현황자료, 이력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여 수집·유지·관리·갱신하는 집합체로서 전국 202개 기초지자체, 15개 광역시도, 중앙정부가 보유한 도시계획 자료를 대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광역성, 복잡성, 과거와 연계성 등의 특성을 갖는 도시계획정보의 활용성과 연계성을 높이고 전국민에게 일관된 형태의 도시계획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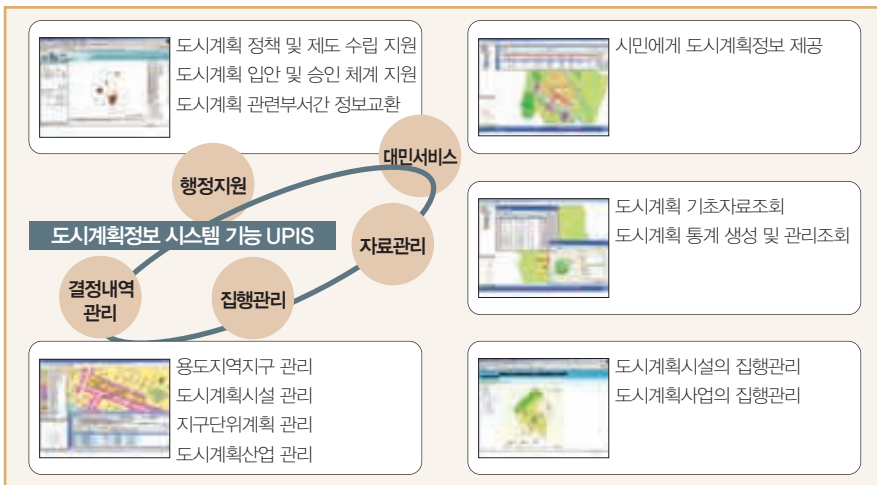
응용 시스템은 도시계획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자료 검토가 요구되는 도시계획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행정 시스템, 신속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사결정 시스템, 각종 통계 처리 및 데이터를 가공하는 분석 시스템, 온라인을 통

해 국민과 소통하는 대민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칭한다. 응용 시스템은 운영되는 위치에 따라 기초지자체 시스템, 광역시도 시스템, 중앙정부 시스템으로 세분류된다.

각 응용 시스템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기초지자체, 광역시도, 중앙정부의 도시계획 업무를 지원하며, 다른 응용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업무연계체계를 형성하고 도시계획정보를 공유한다.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은 전국 202개 기초지자체, 15개 광역시도, 중앙정부에서 독립적으로 구축된다. 각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계획 자료를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특징과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며, 해당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도, 조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지원체계를 구비함으로써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까지 총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초지자체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경기 화성시와 경북 영주시에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하였다. 올해 안에 인천 강화군, 부산 서구, 강원 정선군,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군,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전남 영암군, 경북 안동시, 경남 창원군 등 10개 기초지자체에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광역시도 및 중앙정부 응용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2012년까지 전국 202개의 기초지자체, 15개 광역시도 및 중앙정부에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을 확산 구축하기 위하여 집행될 예산은 총 312억원에 달한다.

도시계획정보(UPIIS)의 기능



정부가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관련 표준체계를 정립하기 위함이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응용 시스템 개발에 따른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하며 상이한 정보 체계와 시스템 구조로 인하여 도시계획정보의 호환이나 응용 시스템 간 연계가 어려워진다. 실제로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을 자체 구축한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와의 연계 문제는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확산 구축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도시행정의 생방향 의사소통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기초자료, 현황자료, 이력자료 등이 전산화되어 체계적으로 관리·조회됨으로써 도시계획업무 절차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 관련 문서 관리와 검토에 필요한 공간과 노력이 절약되며 고시문, 대장, 조서, 고시도면 등 영구보존 문서의 훼손과 분실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공무원은 도시계획 수립시 계획되는 도로나 기타 도시 시설 등이 인접한 시군구의 도시계획과 일관되는지 또는 균형있게 분포하는지 여부를 표준화된 도시계획정보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접한 시군구의 공무원이나 중앙 공무원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업무 협의가 가능해진다. 일반 국민들은 시·군·구청에 가지 않아도 전산화된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손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자기 땅에 도로가 개설될 경우 실제 개설 여부나 개설시기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고 관련 도면을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러한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 도로 개설에 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의 구축 효과는 도시계획 과정의 개선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확인된다. 도시계획결정 과정의 도로를 개설할 경우 보통, 기초조사→주민의견 청취→도시계획 입안→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및 집행 등의 과정을 거친다. 기초조사 단계에서는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통행량 조사결과, 인구 및 사업체 통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객관적인 사업계획 분석이 가능하며, 의견 청취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도시 계획안을 공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행정기관 공무원은 도시계획의 수립, 계획의 결정 고시, 계획의 집행 및 관리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의 지

시·군·구청에 가지 않아도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 사진은 휴대전화로 토지대장 발급을 신청한 뒤 편의점 프린터에서 받아보는 기술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원을 받아 수행하며, 주민들은 인터넷으로 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민원처리시간 절감과 도시계획 업무 효율성 향상 등으로 인해 연간 34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가적인 효과로는 개발정보를 미끼로 부동산 매매 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필지 단위의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설치현황 등 국토 관리를 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화면



글 **문성요**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장
munsy@moct.go.kr

일시
2007년12월12일 오전 10시~12시
참석자
조병구 KDI 연구위원
정진하 KISDI 우정경영연구소장
임채성 건국대 경영대 교수

『나라경제』는 신년호부터 좌담(대담) 코너를 신설한다. 이 코너는 국내외의 주요 아젠다를 선정,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다. 첫 번째 의제는 ‘국가경쟁력’으로, 국가경쟁력이란 무엇인지, 국가경쟁력을 왜 높여야하는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들어보았다.

기업이 돈 잘 벌 수 있게 해라

조병구 KDI 연구위원 :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11위에 올랐다. 상당히 높은 순위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경쟁력이 무엇인지, 국가경쟁력과 행복지수의 연관관계,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얘기해보자.

정진하 KISDI 우정경영연구소장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나 WEF(World Economic Forum)는 경쟁력의 포커스를 두는 방향이 다르다. IMD는 기업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WEF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요소에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기업능력, 정부효율성, 제도적 기반, 기술 등은 고루 좋아졌으나 거시경제 지표는 나빠졌다. 거시경제지표가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WEF는 1/12, IMD 1/4이다. 그래서 WEF와 IMD의 등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임채성 건국대 교수 : WEF, IMD에서 너무 많은 지표들을 비교해 혼란스럽다. 포터는 1990년대 국가경쟁력을 논의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기업이 돈 버는 능력, 기업의 상호작용·경쟁력·환경에 중점을 두었다.

조병구 : 국가경쟁력이란 건 한마디로 기업으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주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 규제 혁파, 기술 발전, 거시경제 안정이 필요하다. 기업만 잘하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건지 생각해보자. 기업이 잘된다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삼성이 잘안되니까롭살



조병구 KDI 연구위원
서울대 사회학과
미 일리노이대 사회학 박사

임채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서강대 경영학과
영 서섹스대 기술혁신경영학 박사

롱이 휘청거린다고 하더라(웃음). 핀란드는 노키아가 전부다. 노키아에 몰아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없다.

정진하: 노키아가 내는 세금도 엄청나다. 심지어 자녀 교육, 신기술 개발도 노키아가 다 해준다. 우리나라는 한 기업이 너무 커버리면 부작용을 염려해서인지 견제를 심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키우는 게 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임채성: 먼저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한다. 우선 기업지상주의·경제지상주의에 대한 오해를 정리해야 한다. 경제논리에 집중해서 경쟁력 강화를 설명하는 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일례로 핀란드에서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며 내건 캐치프레이즈에는 경제성장이니 뭐니 하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다. ‘지식중심의 사회’, ‘지식경영의 사회’가 그들의 캐치프레이즈였다.

정진하: 국가경쟁력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힘이라고 하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국가가 부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선봉의 역할은 아무래도 기업의 몫이다.

조병구: ‘부’라는 데서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잘사는 게 돈이 전부인가? 경쟁심화에서 오는 사회적 피로감을 줄여주고 그러면서도 보람있는 일을 하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나라가 부

유한 나라라고 한다면, 경쟁력을 키우면서 생기는 부산물이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정진하: 맞는 말이다. 아프리카 밀림지역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을 수도 있다. 돈이 다가 아니고, 생활이 편리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다. 주관적인 행복, 자기 삶의 질을 어떻게 객관

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가? 국가경쟁력을 행복지수와 비교하지 말자. 물질적 풍요, 계층 간 갈등이 없는 사회 정도로 상정을 하고 국가경쟁력을 논의하자.

임채성: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기업경쟁력이라고 가정한다면, 많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고자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건 삶의 질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교육·복지가 충분치 않고 계층 간 갈등, 그룹 간 반목이 심한 나라에서 누가 기업활동을 하겠는가?

조병구: 한 국가의 능력이란 걸 모든 사람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본다면 의미가 좀더 명확해지겠다.

정진하: 교육·의료·문화공간이 다 갖춰져야 살고 싶어 거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기업이 생산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할까?

조병구: 반에서 60등 하는 학생이 10등으로 올리려면 혼자서 죽도록 공부하거나, 과외선생을 붙이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선택을 해야 한다. 전과목을 다 공부할 건가 아니면 전략과목만을 파

“노키아가 내는 세금도 엄청나다. 심지어 자녀 교육, 신기술 개발도 노키아가 다 해준다. 우리나라는 한 기업이 너무 커버리면 부작용을 염려해서인지 견제를 심하게 한다”

정진하 KISDI 우정경영연구소장
서울대 경제학과
미 코넬대 경제학 박사





조병구 KDI 연구위원

고 들 것인가도 따져야 한다. 못하는 애는 한꺼번에 다 하려다 결국 다 못한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략이 있다. 우리나라도 '60년대에 고속도로부터 깔고 시작했다. 고속도로 덕분에 기간산업이 생겨나고 지금은 먹고살게 됐다.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올랐지만 더 잘살기 위해선 전략적으로 무얼 시작하면 좋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경제규모는 어느 정도 일궈냈지만 전략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려면 외국기업·외국인이 섞여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그런 면에선 뺑점이다

정진하 : 아니, 3~40점은 될 거다(웃음) 경영학에서 말하는 KFS(Key Factor for Company Success)을 적용해 보자. 우선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으로 산업통찰력(Industry Insight)이 필요하다. 미래 산업, 미래 기술에 대한 통찰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한다. 열정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도 전략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실행이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한 관리능력' (Change Management)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전략도 수정해야 한다. 바뀌는 세상에 한 가지 전략을 적용하면 결국 망한다. 심지어 비전 자체도 변할 수 있다.

임채성 : KFS 이론에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싶다. 바로 'Plan, Do, See' 다. 즉 계획하고, 실행하고,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자는 것이다. 경쟁력이 높은 국가를 보면 늘 더듬이이를 세우고 점검을 한다. 전략을 실행하다 피드백을 한다. 점검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조병구 : 갈등 해결, 열정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적 리더십(Political Leadership)이다. 핀란드는 의회 안에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정당·종파가 함께 모여 토론하고 비전을 만들어간다. 비전을 만들면서 이해 갈등도 조정하고 사람들의 열정도 불러일으킨다. 잘되는 나라들 보면 그러한 통로가 있다. 비전에 대해 합의가 되었기에 플랜에 대해서도 갈등이 없다. 그래서 전략 실행이 무리 없이 행해진다.

정진하 : 핀란드 경제는 노키아 하나로 먹고 살 만한 규모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아주 크지도 아

주 작지도 않다. 핀란드처럼 IT만 해서 먹고 살 수도 없고, 미국·일본처럼 모든 산업을 다 가지고 가기도 어렵다. 규모 면에서도, 중간에 낀 상태다. 강소국이 우리의 모델은 아니다. 그 나라들이 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없다. 비저너리 리더(visionary leader)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정치개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조병구 : 지도자 개인의 비전만으론 안 된다. 지도자가 가진 비전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비전을 주입시키기보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끌어들이어 합의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장기집권이 아닌 바에야 한 사람의 비전이 이어지기는 힘들다. 세부적인 것은 바뀌어도 큰 축은 변하지 않는 비전을 만드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

임채성 : 박정희 정권은 KFS가 잘 실현된 케이스다. 문민화 이후, 외환위기 이후에는 Political Economic Leadership이 실종됐다. 5년 단임제, 경쟁력을 소화하지 못하는 국회는 제약조건이다. 이런 제약조건하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대신 잇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조병구 : 서베이를 해보니 정부기구 중 국민의 신뢰를 가장 못받는 데가 국회더라. 상대가 안 된다.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신뢰가 높다. 정치에서 못하면 행정부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행정부는 관성으로 해오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각 부처들도 영점 조준을 다시 해야 한다. 그 안의 디테일은 달라도 큰 축은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임채성 : 잇몸 리더십은 행정부가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2년 리더십', 즉 담당자가 2년 만에 새로 학습하고 끝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 상태에선 국회가 제 기능을 할 때까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미국의 CoC가 우리가 벤치마킹 할 모델이다. 민간 주도지만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전략을 만들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조병구 : 민간이 주체가 되어 아젠다를 개발하고, 정치적으로 푸시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전경련에서 총리와 함께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진하 : 산·학·연·관이 함께 경쟁력과 관련된 조직을 만드는



정진하 KISDI 우정경영연구소장

것은 효과가 클 것이다. 다만 정부의 역할이 문제이다. 정부가 조율하지 않고 관리하려 든다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미국 CoC는 오피니언 리더가 끌고 간다. 관은 애초부터 끼들지 않았다. 그래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강요하여 꺾 맞추려 든다면 어려워진다

임채성: 좋은 지적이다. 정부는 서포트 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조직 안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조병구: 그것도 정통적인 정부의 역할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 정립이다. 그게 그냥 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

정진하: 정부도 많이 바뀌었다. 20년간 정부와 일해왔다. 20년 전엔 내 역할은 딱 들러리였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치츨 변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외부 자문을 받는 횟수도 많아졌고 자문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졌다. 내 얘기가 좀 먹히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다.

임채성: 정 박사가 언급한 KFS는 '잇몸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하다. 잇몸 리더십이 성공하려면 감동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감동을 받으려면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근거가 명쾌하게 정리되고 수렴돼야 한다. 경쟁력에 대해 이해하려는 프레임 워크, 그 틀을 개발하고 이것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은 실무자와 연구자가 같이 고민해야 할 과제다. '생각연습' 상에서 보면 감동을 주는 잇몸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조병구: 지도자가 군림하지 않고 옆의 사람을 끌어안고 가야 감동한다. 똑똑한 지도자들이 자꾸 군림을 하려 한다. 다른 사람은 쫓아오던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 80점 이론,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80점이라도 맞도록 노력하자. 그럼 목표를 80점 잡아도 함께 포용하고 타협하면서 90~100점 맞을 수도 있다.

임채성: 핀란드 사례에 특히 참고할 점이 많다. 핀란드는 '90년대 초반만 해도 절망 가운데 있었다. 갈등도 심했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을 구상하고 의회에 상정, 행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포터의 경쟁력 프로젝트의 프레임을 들고 와 얘기하니 잘 먹혀들었다. 정치적 노선이나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그 프레임만이 살 길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게 된 것이다.

조병구: 헬싱키 대학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수학 더 교육시키라고 주민들에게 사인을 받으러 다니더라. 외국인인 나에게도 사인을 하라고 했다. 대학생인데 좀 놀아도 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는 공부해서 실력을 쌓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다고 하더라. 젊은이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회는 뭐냐, 우리 공부 좀 덜 해보려고 하지 않느냐?(웃음)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실력을 쌓겠다고 하는데 그들을 이끌 자가 누구겠는가?

임채성: 교육문제는 늘 어렵다. 기술·제조·환경 모두 사람이 만드는 거다. 결국은 인적 자본이다. 사람이 자산인 것이다.

조병구: 우리는 미국에서 버린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미국은 전혀 딱딱하지 않은 체제다. 항상 수정이 가능한 나라다. 전략도 비전도 계속 수정한다. 미국은 교육시스템을 계속 바꾸어 나간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화석'이다.

정진하: 학생들이 밤샘 공부하는 게 경쟁력으로 연결돼야 하지 않는다. 공부는 많이 시키지만 창의력은 없다. 이래서 빌게이즈, 스티브잡스가 나오겠냐. 교육시스템이 대대로 가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없다. 교육시스템을 확 뜯어 고쳐야 한다.

임채성: 교육에서도 KFS가 실종된 것 아닌가? 교육에서도 점점 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교육 없앤다면 계속되고 있다. 철저히



임채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미국은 전혀 딱딱하지 않은 체제다. 항상 수정이 가능한 나라다. 전략도 비전도 계속 수정한다. 교육 시스템도 계속 바꾸어 나간다”

한 점검,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조병구: 뭐가 문제인지를 정의하고 고치려는 능력, 그게 '사회능력'이다. 인적자원 양성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동의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다. 문제를 안다 해도 기득권을 포기할 여유가 있느냐?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아는 사회가 리더 말을 듣는 사회가 된다. 기득권을 나눠줄 수 있어야 사회는 변한다. IMF가 기여한 점은 기득권을 깨뜨려 줬다는 것이다.

정진하: 최고교육기관인 대학이 비전에 맞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서울대만 고집하지 않는다. 대학이 전략적인 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커리큘럼도 그에 맞게 개발하고 그래야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키우지 않겠냐?

조병구: 교육시스템도 1~20년 안에 엄청나게 바뀔 것이다. 지식의 개념도 바뀔 것이다. 지식은 무엇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는 것을 활용해서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같은 얘기를 들어도 무언가를 끌어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화석화된 시스템이 적은 편이다. 유연성을 바탕으로 전략적·체계적으로 움직인다면 국가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정리 이정미 나라경제 기자

한옥이 양옥을 만났을 때





제비울 미술관은 과천 청계산 기슭 안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2002년 3월, 경기도 과천에서 14대째 살고 있는 신창건설 김영수 대표가 미술의 대중화와 청소년에 대한 예술교육을 목표로 설립했다. '제비울'은 제비가 많은 집이거나 제비집처럼 생겨서 붙여진 줄 알았더니 이곳의 지명이었다. 작은 골짜기라는 뜻의 '좁이울'이 변해 '제비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제비울미술관은 7천여 평의 공간에 미술관, 도서관, 식물원, 산책로 등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굳이 미술품 관람 목적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와서 쉬었다 가기 좋다. 미술관 첫인상은 단아하면서 웅장하다. 3층으로 이뤄진 전시관의 아래 두 층은 석조, 위층은 한옥의 형식으로 이뤄졌고, 건물 위에는 기와를 얹었다. 웅장하게 내려앉은 기와지붕은 아래층의 석조 때문인지 고궁이나 한옥마을에서 보던 것과는 또다른 느낌이다.

한옥과 양옥이 한 집에서 만난 풍경은 조금 어색하고 낯설지만 미래 한옥에 대한 한가지 제안이 될 수 있겠다. 미술관 입구와 산책로를 따라 심어진 소나무이 제비울미술관의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미술관 외부 계단을 따라 3층에 이르면 아래층에서 보던 웅장함은 간데없고 흙벽과 나무기둥, 그리고 창호지를 곱게 바른 방문들이 문고리를 가지런히 달고 손님을 맞는다. 난간을 따라 걷다보면 미술관을 둘러싸고 있는 경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미술관에서 내려와 오른쪽으로 나있는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곳곳에 젊은 작가들의 특이한 조각품들이 나타난다. 이 조각품들은 미술관 개관 때 공모한 작품들로, 상설전이 없

는 제비울미술관의 훌륭한 볼거리가 되어준다. **제비울미술관은 기획전과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기획전은 왕성하게 활동중인 한국 현대미술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출판미술로 본 한국 근·현대목판화, 1883~2007' 전이 오는 2월28일까지 열린다. 작품들은 'Ⅰ부 계몽과 저항의 근대 목판화 / 1883~1945', 'Ⅱ부 새로운 시대를 향한 환의와 고통 / 1945~1969', 'Ⅲ부 소통을 위한 목판화의 현대성과 민중성 / 1970~2007' 로 나뉘어 전시돼 있다. 개화기 아동 교과서에 실린 목판 삽화부터 윤보 김기창의 작품, 1980년대 저항 현장에 걸렸던 최병수의 걸개그림까지 다양한 근·현대 한국 목판화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제비울미술관의 또 다른 큰 특징은 미술교육 프로그램이다. 기획전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여름·겨울방학 별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미술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풍부하게 만든다. 다양한 색채체험과 손작업을 통해 무언가 만드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미술관을 표방한 제비울미술관은 과천·의왕·군포·안양의 젊은 작가 발굴을 위해 해마다 '우리동네 현대미술 청년작가전'을 개최한다. 봄·가을에는 야외음악회와 결혼식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미술관 바로 옆에는 제비울쌈밥집이 있고, 근처에는 염색체험장도 있다. 방학맞은 아이 손을 잡고 근교로 모처럼 가벼운 미술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제비울미술관에 가려면



▶ 관람시간

여름 : 10:30~18:00

겨울 : 10:30~17:00

휴관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전시준비기간

₩ 관람요금

무료

➡ 위치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산 38-1



찾아가는 길

대중교통 :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 4호선 인덕원역 혹은 과천정부청사역에서 버스를 타고 군부대4거리에서 내려, 과천 재활용센터 방향으로 25분 정도 걸어야 한다. 제비울미술관 경유 버스는 과천시청 도시교통과(02-3677-2289)에 문의하면 된다.

승용차 : 과천 청사 방면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오다가 군부대앞 사거리에서 과천 재활용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1.2km정도 들어가면 된다. (문의 : 02-3679-0011)

아기우는 소리 자주 들리네

최근 신생아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전산망 집계 결과 지난해 3/4분기 현재 신생아수는 36만5,492명으로 2006년 같은 기간보다 2만8,721명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07년 총 출생아수는 48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필자 주: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도 1.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결혼 건수도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출산율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증가세는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던 출산율이 2006년도에 반등세로 돌아선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선 이 같은 결혼과 출산의 증가를 두고 속칭 쌍춘년과 황금돼지해 효과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행위의 하나인 결혼과 출산을 단지 연도 특수효과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최근 출산율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고 여전히 인구대체 수준(2.1명)과 OECD 평균(1.6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선진국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가져야 한다' 와 '갖는 것이 좋다' 라는 긍정적인 태도가 '97년 90.3%에서 2003년 86.8%로 급감한 이래 2006년에는 87.9%로 다소 회복되었다. 기혼여성이 갖고 싶은 희망 자녀수도 지난 20년 동안 평균 2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6년에는 2.3명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같은 인식이 출산과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자녀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확산은 개인의 출산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통계청의 혼인통계를 살펴보면 결혼 건수는 점차로 증가하고, 외환위기 이후 급등했던 이혼율은 최근 점차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미국 등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혼인관계에서의 출산이 높은 비중(98.5%)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의 안정은 출산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쌍춘년(2006년)과 황금돼지해(2007년) 출산효과는 최근 출산율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2006년도에 출산한 2천 가구에 대해 표본조사를 한 결과 출산여성의 3.7%만이 당해연도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 쌍춘년이 2006년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같은 특수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상승을 견인하기보다는 연도별로 분산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97년 IMF 외환위기는 경제뿐 아니라 출산율도 급락시켰다. IMF 외환위기 이전 6~10%대를 유지하던 경제성장률은 98년 -6.9%로 급락했으며, 2%대의 실업률은 7%

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경제침체의 여파로 IMF 외환위기 이전 1.6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던 합계출산율도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해 급기야 2005년에는 세계 최저수준인 1.08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수립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 4.3%, 실업률 3.5% 수준 유지, 신용불량자수 감소(2003년 372만명→2006년 280만명) 등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경제에 대한 전망이 출산율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3년부터 경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계속 출산율이 감소하고 2006년부터 출산율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침체에 겪었던 심리적 불안감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확신이 복구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의식변화→출산의사→출산이행(임산→출산)에는 3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이 급락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경기변동과 출산율사이에는 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혼인이 출산율 결정의 주요 변수이고, 혼인에 경제적 부담이 큰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안정은 출산율 반등의 주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2006년 출산가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16.2%가 경기가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그 영향도는 20대 저연령층, 저소득층, 둘째 이상 출산 그리고 비취업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안정은 개인의 출산결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한 이래 6.0이던 합계출산율을 '83년 인구단체 수준인 2.1까지 끌어내렸으며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1.6대의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출산억제정책의 관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비되는 미래사회의 위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발족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출범, 2006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수립 등으로 저출산 위기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정부예산도 증가하여 보육예산은 '96년 1,100억원에서 2006년 1조 600억원으로 10배, 저출산대책 예산은 '03년 4천억원에서 2006년 2조1천억원으로 5배 늘어나는 등 2006년에야 본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2006년 출산가구의 4.3%가 정책의 영향으로 출산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혀 저출산대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이런 정책효과는 고연령층(35~39세), 높은 출산순위(셋째아 이상), 중산층 이상, 취업여성일수록 크게 나타나 저출산대책이 정책대상별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가 향후 출산율 상승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출산과 양육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니다. 프랑스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것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투자를 확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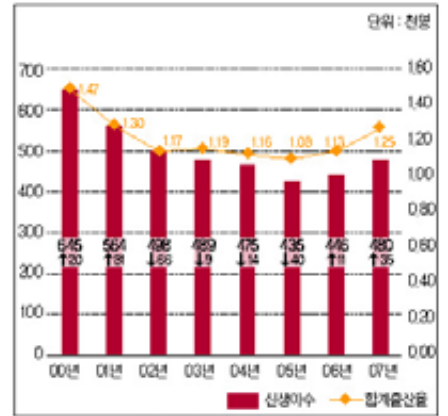
라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성공사례처럼 사회투자를 확대해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을 함께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자녀 돌봄과 가사부담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지워지는 한 여성 경제활동 증가와 출산율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다.

잠재성장률이 2000년 5.08%에서 2010년 4.47%로 하락(합계출산율 2005년 수준 가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투자 확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출산율 급하락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한 미래투자인 것이다. 이러한 미래투자로 출산율이 안정되어야만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스웨덴이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1.5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GDP 대비 29%의 사회투자가 원충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출산율은 하향세이나 감소폭이 적고, 특히 '90년대 중반 장기적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감소가 완만했던 것은 GDP 대비 17%의 사회투자를 하고 '95년부터 3차례의 중장기 저출산대책(엔젤플랜)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투자 비율은 8.6%로 OECD 평균인 21.2%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본격적인 저출산대책도 2006년에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밖에도 출산율이 높은 OECD 국가에서 보듯 다문화가정, 미혼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심,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등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신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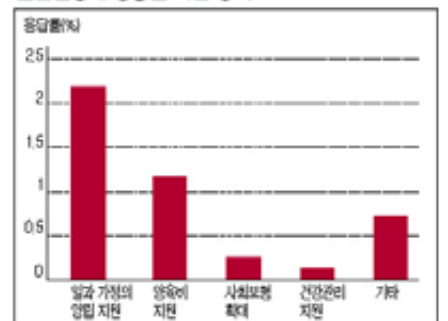


주)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전산망 자료

경기변동과 출산율 간의 관계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책



글 김서중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팀장
kims005@naver.com



‘명예·존경·권위’가 회복되는 사회

언제부터인가 권위·존경·명예라는 단어가 고리타분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취급받는다. 심지어는 터부시되는 경향마저 보인다. 권위주의 정권 타도라는 말에서 보듯 권위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누구를 진실로 존경하기도 어렵고 존경할 만한 대상을 찾기도 어려운 세상이 된 지 오래인 것 같다.

하물며 명예에 관해서야 말할 필요도 없다. ‘명예’란 말은 잉여인력 정리하는 데 사용되는 명예퇴직이란 용어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 “명예가 밥 먹여주냐?” 정도의 비아냥만 가득하다. 남발되는 명예박사·명예교수·명예회원 등에서 사용되는 ‘명예’란 그저 자격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접대용으로 제공하는 수식어 정도다. 주는 쪽에선 돈 안 들이고 생색내는 데 좋고, 받는 쪽에선 대외 장식용으로 괜찮다는 정도로나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명예를 사용하다 보면 국어사전에서조차 뜻풀이가 다음처럼 달라질 것 같다.

“명예: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그러나 현재는 전혀 훌륭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예우상 붙이는 수식어.”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그걸 지탱해 주는 몇 개의 튼튼한 기둥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건전한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집단들을 말한다. 즉, 외부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군대와 경찰, 사회적 규범을 지키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확신(가치관)을 심어주는 관료와 법조인,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육체적 위협이 닥쳤을 때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의사와 약사, 구성원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직자·학자·언론인! 이들 각 집단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명예’를 먹고 살아야 한다.

이들은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그 공헌에 대한 대가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 건전한 사회에서는 옳은 행동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존경이 존재하며 그것이 명예라는 단어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소득은 높아가지만 한국을 선뜻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는 이유, 우리의 삶이 갈수록 척박해져 간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그런, 사회의 기둥이 되는 집단을 해체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런 집단 내에서도 명예가 한갓 허울에 불과하다면 그건 잘못 설계된 시스템이 확실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경이나 소방관, 그들의 영전에 정부와 국민이 무관심하면 이 다음엔 누가 무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인가? 생명과 법을 다루는 의사나 법조인들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일을 처리해주고 금전적 대가만 챙긴다면, 성직자·지식인이 명예보다 채와 권세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는 선진국의 모델일까.

올해는 새 정부와 함께 시작하는 새해다. 새해는 우리들 뇌리에서 사라져가는 단어들, ‘명예, 존경, 권위’가 제 의미를 찾아가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민소득은 높아가지만 한국을 선뜻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는 이유, 우리의 삶이 갈수록 척박해져 간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사회의 기둥이 되는 집단을 해체해 왔기 때문이다



지폐를 줄였습니다
소비도 줄여야 합니다

건강한 소비가 건강한 경제를 만듭니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14mm와 8mm 작아진 오천원권, 당신의 지갑을 더 많은 돈으로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작아진 지폐 만큼 우리도 이제 소비를 조금 줄여야 할 때 입니다.